信 心과 精誠으로 靑銅文化의 脈을 이어가는 匠人들의 作品
불상 · 탱화 · 범종 전시관
전화:02-735-1045 / 팩스:02-735-2344

현대불교

55 세부터의 월급, 국민은행에서 드리겠습니다.
국민은행 개인 연금 신탁
가입문의 : 080 - 023 - 4000

명예회장 노태평 / 발행인 겸 편집인 김광삼 / 논설고문 고은 / 편집국장 최정희 / 인쇄인 김규석 / 등록번호 다-3379 / ㉾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 대표전화 737-8881 / 편집국 722-4162 FAX 737-0698 / 광고국 737-0692 / 구독신청 737-0693
구독료 : 월 4천원 1년 4만원
불기 2539년(서기 1995년) 1월 4일 수요일 (주간)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금주의 법구

집착할 것이 없는 사람은
근심할 것도 없다.
(숫타니파타)

법회 안내

금륜정사 (02)245-0904
지장연가 천도기도 18일(음)
관음 인등 축원기도 24일(음)
전통사찰음식 발우공양
매월 1, 15일(음)
신중기도 매월 1-3일(음)

봉인사 (02)821-2060
인등기도법회 매월1~3일(음)
촛불가족법회 매월 1 · 3주
일 오후7시
능인법회 매월 보름(음)
지장법회 매월 18일(음)
관음법회 매월 24일(음)
금강경독송법회 일 오후2시

소림선원 (02)886-7770
초하루법회 매월 초하루(음)
보살법회 매월 8일(음)
지장재일 매월 18일(음)
어른이법회 일 오전10시30분
중 · 고등부법회 일 오후2시
일요법회 매주 일 오전11시

심보정사 (02)913-2859
어른이법회 매주 토 오후2시
중 · 고등법회 매주 토 오후4시
참개법회 매주 일 오후2시

은초사보교원(053)653-9232
어른이법회 매주일 오전10시
중 · 고등부법회 일 오후3시
청년부법회 토 오후6시30분
불비나합창단법회 수 오후2시
거사림법회 매주 수 오후7시

광주한마음선원(062)225-0174
정기법회 매째 토 오후3시
법형제법회 둘째 토 오후3시
한마음요전 회 오전10시30분
거사림요전 목 오후7시30분
청년법회 매주 수 오후7시
매주 토 오후3시
어린이법회 매주 일 오후2시
학생법회 매주 일 오전9시

군산 흥천사(0654)445-3769
어른이법회 매주 일 오전11시
중 · 고등부법회 일 오전11시
청년부법회 매주 일 오전11시

※ 이난은 각 사찰의 법회 소식을 알리는 난입니다. 법회안내를 원하시는 사찰 · 포교당은 전화(722-4162) 팩스(737-0698)로 연락바랍니다.

'읽히는 경전 펴내기' 새 문 연다

역경사업진흥회 · 번역 출판사업 착수

'어린이 불교' 곧 출간 … 연구소도 개설

역경 사업의 새로운 문이 열린다.

역경사업진흥회(이사장 석주스님)가 금년부터 본격적인 사업을 전개할 방침이다.

그간 등국역경원과 일부 한자들이 개인적으로 진행해 온 역경 작업과는 달리 범화하는 시대에 발맞춰 전개할 역경사업진흥회의 활동은 경전의 대중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교계 안팎의 비상한 관심을 모을 것으로 기대된다.

역경사업진흥회는 금년부터 펼칠 주요사업으로 △역경연구소 개설 △어린이를 위한 경전 간행 △완시경전의 현대적 번역 △주제별 경전뽀기 △색인집 출간등을 꼽고 있다. 이들 사업을 위한 기초 계획도 이미 수립된 상태라 것이 한 관계자의 진언이다.

역경연구소는 현대인의 독서성향과 연령별 선호도등을 세밀하게 분석, 효율적인 경전 번역작업의 방향타를 설정하는 역할을 맡게된다. 이를위해 진흥회는 4-5명의 전문인력을 양성할 방침이다. 경전의 번역에 앞서 '어떤 경전을 어떻게 번역하고 어떻게 독자를 확보할 것인가' 등의 문제를 전문적으로 검토하게 될 역경연구소는 경전 읽기의 생활화에 촛점을 맞춘 출판 기획은 물론 컴퓨터 통신등 매체보급까지 담당하게 된다.

어린이를 위한 경전의 간행은 이미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다. 부처님의 일대기와 동심을 바르게 이끌어 갈 경전속의 이야기들을 불교의 시각에서 흔시적으로 묶어낼 이 책의 제목은 〈어린이 불교〉이다. 국민학교 5, 6학년의 수준에 맞춰 칼라로 제작될 이 책은 종교적 논리의 강요보다는 자연스럽고 쉽게 불교를 이해하고 생활에 옮길 수 있도록 구성돼 있으며 올 봄에 출간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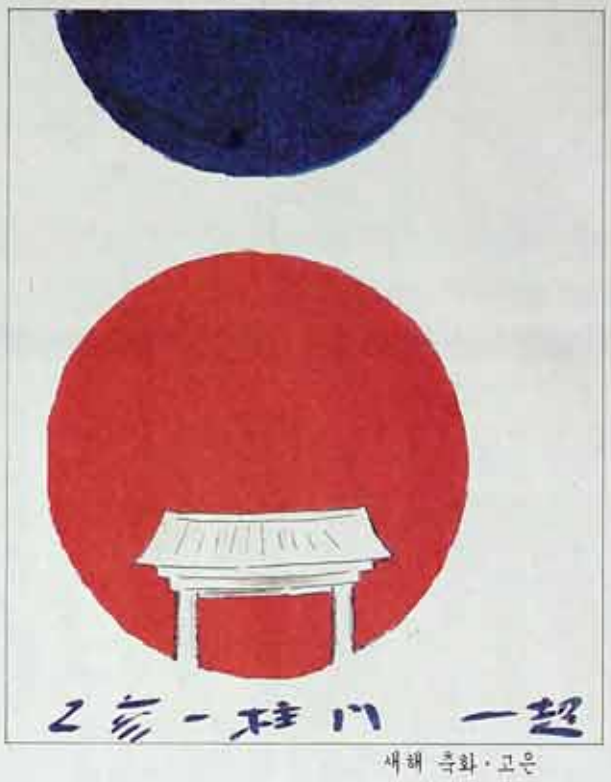
성인들을 위해 번역 간행할 경전은 '아함경'속의 경전으로 5권 분량이다. 진흥회는 '아함경'을 보다 많은 사람들이 쉽게 구해 휴대하면서 읽을 수 있도록 소책자로 만들어 낼 계획을 세우고 있다. 아울러 대승경전 2권도 금년내로 출간할 계획이다.

주제가 있는 경전은 특정한 주제에 따라 다양한 경전의 해당 항목들을 가려내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번역서를 뜻한다. 일상 생활에서 쓰이는 용어에서 전문용어, 다소 애매한 표현및 특정주제의 뜻풀이와 함께 해당 경전의 원문을 현대어로 번역 수록함으로 불교 이해의 폭을 넓힌다는 것이 주제별 경전 간행의 기획의도다. 경전 색인작업의 작성은 매우 광범위한 작업으로 꼽히고 있다. 진흥회는 금년부터 꾸준히 경전 색인 작업을 추진해 수많은 경전들을 쉽게 가려 볼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역경사업진흥회의 색인작업은 단순한 검색을 위한 작업이 아닌 경전의 역사적 가치와 흐름, 영향력등을 다각적으로 묶어 종합색인북북으로 집대성 시킨다는 점에서 주목되고 있다.

82년에 설립된 역경사업진흥회는 그간 실질적 사업을 위한 재정 확보에 주력해 왔다. 금년부터의 본격적인 활동을 앞두고 이사장 석주스님은 "경전은 선반위의 보물이 아니라 생활인의 삶과 함께 숨쉬는 지혜의 주머니"라며 "현대인의 언어 감각에 맞는 번역과 생활속에서 읽혀지는 책의 출간을 통해 경전읽기의 생활화를 주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각종 사업의 실무를 맡고 있는 상무이사 능관스님도 "그간 축적돼 온 역경 사업의 경험을 토대로 다양한 기획을 내놓아 현대인과 미래의 세대를 위한 번역작업을 해 나갈방침"이라고 밝혔다. 〈임연태 기자〉



새해 축화 · 고은

새 해 떠올라 여기 진리의 문 열리나니

문체부 장관에 주돈식씨

주돈식 전 청와대 공보수석이 지난 23일 정부개각에서 문화체육부장관으로 임명됐다. 주돈식 신임 문체부장관은 조선일보 편집국장을 지낸 언론계 출신으로 김영삼 정부출범 당시 대통령 정무수석비서관을 역임했다.

'깨달음의 사회화' 선언

8일 성도절 이웃돕기등 행사 다채

성도절을 정후해 각 종단과 사찰,단체들은 일제히 기념법회를 갖는 등 성도절의 의미를 확산시키기 위한 다양한 행사를 계획하고 있다.

조계종은 오는 1월8일 성도절을 앞두고 '깨달음의 사회화'확산을 위해 범종단적 실천운동을 전개키로 했다. 이와관련 조계종은 7일부터 15일까지를 '부처님 되신 날'기념주간으로 선포하고 이 기간동안 고아원,양로원, 장애인 수용시설등의 사회복지기관을 방문, 1일 봉사활동 참여와 사찰 모금활동을 펼치는 등 다양한 행사를 계획하고 있다.

이와 함께 각 사찰은 1사찰 1기관 이상 보시,1일부터 사찰입구와 법당 주변에 연등달기 및 철야정진법회를 개최해 '부처님 되신 날'의 의미를 되새긴다.

해고종은 관단 간부스님과 직한 및 사부대중이 참석한 가운데 7일과 8일 양일간 성도절 기념 철야정진 기도법회를 봉행한다.

관음종도 총무원 묘각사에서 1일부터 8일까지 계속해서 특별정진기도법회를 봉행한다.

조계사는 고승초청법회를 비롯 철야용맹정진기도,만등불사 등을 봉행하며 각 산하단체에서 다양한 성도절 기념 문화예술제를 거행한다.

화성 신흥사는 7일과 8일 봉축기도와 봉축법회를 차례로 봉행하고 스님과 어린이회, 초 · 중고 학생회, 가정빈가합창단 등이 꾸미는 '부처님 성도 만만세' 봉축예술제를 거행한다. 아울러 참회문,발원문 쓰기와 봉축연등제 및 불꽃축제를 봉행한다.

수효사도 8일 오전 10시 일도스님의 기념법문과 불교계 시인 다수가 참석하는 '깨달음의 시 낭송회'를 개최한다.

불교시민운동 7개단체 연대 추진

10일, 평불협 · 경불련등 신년 하례

시민 · 사회운동단체의 연대모임 결성 움직임이 추진되고 있다.

현재 연대모임에 뜻을 같이 하고 있는 단체는 조국평화통일추진불교인협의의 공해추방운동불교인모임 경제정의실천불교시민연합 자비의전화 불교인권위 보리방송모니터회 불교환경교육원 등 7개 단체로 알려졌다.

이들 단체는 오는 10일 오후6시 서울호텔에서 신년하례모임을 갖는다. 한편 7개 단체 가운데 평불협 공추본 경불련 자비의전화 등 4개 단체의 대표가 조계종총무원장 월주스님임에 따라 앞으로 이들 단체의 활동이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신년특집 20면 발행
특집, 인재불사 - 불교중흥의 초석 ····· 3면
'인재양성 이렇게' 전문가좌담 ····· 4 · 5면
스님박사들 · 불교대 출신들 ····· 6면
해방 50년 불교학 50년 ····· 7면
국회의원불자 신행 설문조사 ····· 8면
새 아침 지상법석 혜암스님 ····· 10면
불자기업인들 이렇게 신행한다 ····· 13면
민통선 폐사지 심원사를 가다 ····· 15면

한암스님 '선문답 21조' 본지 단독입수 … 11면

목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참으로 좋은 새해 인사다. 우리는 흔히 복을 많이 받으라고하면 돈과 명예등 소유를 먼저 연상하게 된다. 그러나 복의 범위를 '나'에 국한 시키지 말고 늘 귀에 젖도록 듣고있는 '더불어 사는 삶' '나누는 기쁨'등 이웃과 함께하는 쪽으로 넓혀보자. 복을 받는다는 의미가 달라질 것이다.

소유하는 복은 그 도가 지나치면 자칫 탐심과 아기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복을 받되 그 복을 다시 회향한다면 더 크게 복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받기에 앞서 먼저 복을 지어 복밭을 가꾸면 그 공덕이 한량 없음을 우리는 부처님의 말씀을 통해 잘 알고 있다.

민약에 돈을 벌어 매일 은행에 예금하듯 하루 한가지의 착한 일을 한다면 우리들 '마음의 통장'은 얼마나 부자가 될까. 마음의 통장이 넉넉하다는 것은 곧 요즘말로 내신성적이 좋다는 뜻도 된다. 내신성적이 좋으면 대학입시의 관문을 쉽게 통과할 수 있듯 극락행이 수월할 것이다. 극락이란 무엇인가. 다할께 행복한 삶의 현장이 아닌가.

진정으로 행복을 원한다면 올해년에는 매일 마음의 통장에 복을 저축하자. 매일 아니 순간순간 자비심을 내어 작은 일이라도 이웃과 함께 한다면 우리는 늘 연꽃을 피우는 삶을 가꿀 수 있다.

부처님께서는 〈화엄경 보현행원품〉에서 이렇게 일러주신다. "자비의 물로 중생을 이롭게 하면 지혜의 꽃과 열매를 맺게 된다."

지혜의 꽃과 열매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을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울해년 날마다
좋은 날 되소서
현대불교신문사 임직원 일동

◆1월 11일자 휴간합니다.

曉星그룹 신뢰받는 기술
"한국산업발전의 견인차 — 효성중공업"
종합중전기에서 첨단기술산업까지
효성중공업의 생산제품 소개
●중전기기 및 송변전 설비 : 초고압 송변전 설비, 초고압 변압기, 배전 변압기(유입, SF_6GAS, 건식, Mold, Amorphous), 초고압 GIS, GCB, DS, 각종 배전반, 통합기 및 변전설비, 철탑, 철구조물 ●산업용 기기및 설비 : 압프 압축기, 송풍기, 크레인, 수문, 삭도, 산업설비, 환경보전 및 수처리설비, 각종기계장치, 화학장치, 주차설비 ●회전기기 : AC전동기, DC전동기 및 Drive System, 방폭형 전동기, AC서보모터, 브레이크 모터, CLS전동기, 발전기, 각종 특수전동기 및 전동기 기동장치 ●전력전자 및 FA : 자동창고, UPS, 프로그래머블 콘트롤러(PLC), 수-배전반, 전력 감시제어장치, 분산형 제어 시스템, 계장설비, 각종 콘트롤러, 교류전자 접촉기, 개폐기(MC,M/S), 배선용 차단기(NFB), 진공차단기(VCB) ●건설 : 효성빌라, 주택건설, 각종 산축 공사
FA기기 산업용기기 전선 회전기기 중전기기 전력전자
효성중공업주식회사
HYOSUNG INDUSTRIES CO., LTD.

신년사

불교계가 일어서야 한다

시간의 흐름에 인위적인 마디를 만들어 놓고 우리는 그 마디마디를 희망으로 장식하고 싶어한다.

을해년 새해 새 아침, 불기 2539년, 서기 1995년도 그러한 희망 속에서 밝았다. 더욱이 지난 해가 악몽같았기에 새해에 거는 기대와 희망은 크다.

희망이 큰만큼 해야 할 일도 많다.

민족적·국가적 차원에서도 그렇고 교계로 눈을 돌려보아도 과제는 태산같다. 그리고 그것은 대부분 새 물결·새 요구와 관련된 것들이다. 거시적 차원에서 보면 새 물결이란 한반도 주변정세의 격변, 세계화의 추진, 그리고 컴퓨터를 주축으로 한 정보산업의 급속한 발전 등으로 요약된다.

해방 50년이 된 올해의 한반도 정세는 통일지향의 우리 의지와는 달리 「어깨 넘어 흥정」으로 치달을 공산이 짙다. 그런 흥정은 분명코 민족의 이익과 딱 맞아 떨어지지는 않을 것이고 따라서 우리에게 긴장과 대응을 요구할 것이다. 또 새로운 무역체제의 등장과 세계화 선언은 경제뿐 아니라 일상의 삶 구석구석에 밖으로부터 황소바람이 불어닥칠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그것은 일찍이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충격파가 될 수도 있다.

한편 정보산업분야의 눈부신 변화도 산업체제는 물론 기존의 생활질서에 혁명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이 확실시되며 따라서 국민정서의 뿌리까지 흔드는 결과로 이어질 전망이다.

이러한 변화의 물결은 분명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다. 그러나 을해년 새해는 일련의 변화가 생활 속으로 파고 들어 우리 모두 「나의 문제」로 경험케 되리라는 점에서 예사롭지 않은 것이다.

그렇더라도 우리는 변화를 두려워해서는 안된다. 변화란 곧 우주만유의 속성일진대 우리는 다만 새물결에서 야기되는 문제들을 시대적 요구로 적극 수용해 그러한 변화가 장차 선순환(善循環)이 되도록 하려면 어떤 대응책을 마련할 것이냐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이는 물론 지당한 얘기겠지만 현실여건은 새해 아침의 희망과는 달리 사태악화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기에 세삼 강조하지않을 수 없는 대목이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자신들이 안고 있는 문제에 진지하지 못하고 또한 합의된 해결책도 갖고 있질 않다. 지난해 그토록 지긋지긋한 사건·사고를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매번 미봉에 그쳤을 뿐 우리는 개인적으로나 사회적·국가적으로나 뼈를 깎는 참회에 근거한 새로운 대안을 창출해내지 못했다. 그 까닭에 올해도 작년과 유사한 사건사고의 접종현상을 예견하지 않을 수 없다. 게다가 국제환경 변화를 조망할 때 외교·안보면에서 의외적인 사태가 예상된다.

한편 홍수처럼 밀어닥칠 서양의 저급(低級)대중문화는 과소비 만연, 성적 문란, 청소년 범죄 등 갖가지 타락현상을 부채질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기에 우리의 대응은 그 어느 해보다도 진지해져야 한다. 아니, 진지한 정도가 아니라 향후 반세기에 걸쳐 우리의 운명을 결정짓는 사활(死活)의 분수령을 넘는다는 각오가 바탕이 되어야 한다.

그럴진대 불교계가 응분의 역할을 해야 함은 너무도 당연하다. 불교는 과거 역사속에서 민족성쇠의 답보였으며 현실속에서는 인구의 절반을 포용하는 최대의 종교이고, 미래를 향해서는 인류의 희망으로 지목되기 때문이다.

물론 한국불교가 그러한 몫을 능히 감당할 만한가라는 현실진단이 먼저 고려되어야 하겠지만 역사적 당위 앞에서라면 현실은 극복의 대상이지 자조적인 안주처일 수는 없다.

더욱이 지난 한해 조계종을 필두로 개혁의 진통을 이겨내고 면모를 일신한 불교가 아니던가.

그러기에 우리는 을해년 새해에 우리 불교계가 분연히 떨치고 일어서서 불교중흥은 물론, 국운 개척의 선봉이 되어주기를 바라마지 않으며 그 점을 역사의 당위로서 못박아 두고자 한다.

물론 현대불교신문도 사시(社是)인 불법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에 걸맞는 노력을 계속함으로써 중흥에 일조할 것임을 다짐한다. 해방 50년인 을해년이 과거 50년, 미래 50년의 역사적 분수령이 될 것이라는 인식과 함께.

마음 깨끗하면 온세계가 깨끗

각종단 중정 새해법어

남 위해 몸버리면 진리얻어



끝없이 광등하고 아름다운 이 법계는 여래의 몸으로 충만합니다. 내가 보는 세계가 무진장하면 내가 보지 못하는 세계도 무진장함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중생들이 남을 위하여 몸을 버리면 곧 진리의 몸을 얻습니다. 필경 무슨 도립니까. 하늘에는 落謌(낙뢰) 소리요 땅에는 落磐(낙반)소리입니다.

을해년 새 아침 동해에 붉은 해가 떠오르며 만상을 다 삼키니 그 빛이 서로 비치고 있습니다.

문득 산승이 佛天(불천)에 세배하고 천촌만락을 바라보니 사해형제가 서로 도와 청연을 베풀고 노래하고 춤을 추니, 좋을시고 올해는 앞을 봐도 대로요 뒤를 봐도 대로입니다.

봄날 달밤에 한 개구리 울음이
온누리에 퀘뚫어
한 집안을 이루도다.

월 하 〈조계종 종정〉

지혜로우면 세상 어둠 사라져



어두운 밤 물러가니
붉은 해 솟아오르고
구름 빗긴 하늘에는
맑은 달 홀로 비추네.

사람 마음이 깨끗하면 그 사는 세계도 깨끗하다.

사람마다 그 마음이 착하고 지혜로우면 세상 어둠과 어지러움도 사라진다.

세상 그늘 짙어지고 사람 삶이 사나운 것은 다 인간 심사의 조화라.

사람 마음마다 청산이 되고 맑은 물이 되어 사는 곳마다 연꽃을 피우게 하라.

그러하면 木女의 춤을 보고 石子의 태평가를 들을 수 있으리라.

보 성 〈태고종 종정〉

불의·죄악의 근원 탐욕을 버리자



희망의 새해를 맞이하여 할 일이 많지마는 먼저 해야할 일은 국민모두가 새 마음의 새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낡은 마음과 낡은 행동을 고쳐야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인간 각자가 지니고 있는 불성(佛性)을 회복할 것을 주장합니다.

오늘날의 무질서, 부도덕한 사회가 바르게 되고 타락한 인간의 가치관이 바로 서며, 부정과 부조리를 광정하고 범죄와 비행을 추방하여 청정사회를 이룩하는 기초가 바로 상실된 불성 곧 양심의 회복과 인간성 복귀에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나의 이익에 앞서 남을 위하는 이타심(利他心)과 봉공정신으로 생활할 것을 제언합니다. 남에게 즐거움을 주고 남의 괴로움을 덜어주는 발고여락(拔苦與樂)의 자비심을 국민 모두가 지니고 행할 때 모든 암흑은 사라지고 광명사회는 실현될 것입니다.

또 새해에는 의식개혁으로 마음의 존귀성을 앞세워 정신과 현실이 일치되게 생활해야 하겠습니다.

도 용 〈천태종 종정〉

제 자리 제 직분 충실해야



을해년의 서기(瑞氣)에 심신을 맑게 하고 저마다 제 자리, 제 직분에 충실하여 화해의 큰 도리를 살려갑시다.

윗 사람은 윗 사람답게 수범을 나투고, 아랫사람은 아랫사람답게 참신한 기풍을 보입시다. 참회는 제자리로 돌아가서 자신의 가치를 살려가는 청량한 정화수입니다. 참회와 화합속에서 새해의 설계를 밝게 추진하여 진각종문을 더욱 넓히고, 바깥 세상도 그 힘을 입어 정화의 터전을 마련하도록 서원과 정진을 나눕시다.

과학 정보가 세계를 지배하고 온갖 물상들이 공룡처럼 커져갈수록, 정신정보를 이원(二元)으로 세워야 애써 쌓은 물질의 풍요가 빛을 발할 수 있습니다. 이웃이 연꽃처럼 반기는 마음이 먼저 열려야 기술의 세계화가 제몫을 다합니다. 모든 분야, 다양한 재능의 사람들이 저마다 자기 직분과 위치에서 본연의 활동을 하고, 화해의 본래 자리를 활짝 열어, 내 이웃, 우리 동족, 세계 시민이 화합의 웃음을 꽃피는 정토에서 살아가도록 기도하고 정진합시다.

각 해 〈진각종 총인〉

인과법 수행으로 재앙막자



지난 해 국가나 국민에 일어난 무수한 재앙은 일찍이 부처님의 인과법에 의하면 성실히 준비하지 않는데 있다는 증거라고 하겠습니다.

신앙에는 정과 사가 구분됨은 물론 이거니와 부처님 말씀대로 진실한 신앙이 있을 때 불법이 천하에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을해영신(乙亥迎新)에는 국민 모두가 부처님의 인과법을 성실히 수행하여 새로운 재앙이 오지 않도록 발원하고 각자의 마음속에 대자대비 관세음보살님을 청하여 일심으로 모십시다.

대 천 〈관음종 종정〉

작은 행이라도 실천을



21세기를 목전에 두고 국경과 국경이 없어지고 무역의 장벽이 철폐되어 세계는 하나라는 지구촌이 성큼 다가서고 있는 이때에 우리는 용기와 주인의식, 관용과 희생, 그리고 부끄러워 할 줄 아는 바른 사람의 정신으로 다시 태어나야 되겠습니다.

우리모두 작은 행이라도 실천이 있어야 병든 사회를 회생시킬 수 있기 때문에 불자들이 앞장서서 자기 분수를 지키고, 절제하여 남의 것을 욕심내지 말고 육바라밀 실천수행을 생활화합시다.

록 정 〈총지종 종령〉

전법의 큰 길을 걷자



올해는 도약의 해요 전진의 해요 창조의 해입니다. 을해년은 다른 해보다도 새로운 계획하에 협동하고 노력해서 뚜렷하게 개혁의 보람을 천양해야 하는 값진 해가 되도록 다 함께 동참하고 일로매진할 것을 제의합니다. 오직 위법망구의 순수한 신념아래 전법하는 한해가 되길 바랍니다.

금 암 〈법륜종 종정〉

정토구현 이룩되길



既造諸惡業
——皆懺悔
迎新攝佛光
俱願淨土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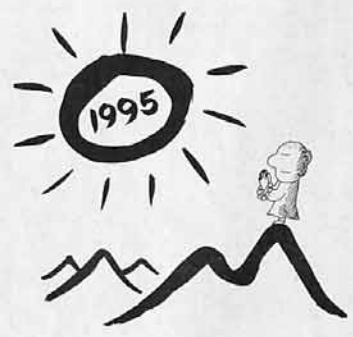
온국민은 지난 세월에 지은 잘못을 일일이 참회하자.

새해를 맞아 부처님의 자비 광명으로 정토구현 이룩되기를.

구 암 〈법화종 종정〉

현대만평

박 구 원



곳곳에 자비의 빛이…

을해년 불교사

우라나라 최초사찰 성문사·이불란사 건립

1995년 을해(乙亥)년이 밝았다. 돼지띠 해인 올해는 불기로는 2539년이 된다. 우리 역사속의 을해년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불교관계역사를 연대순으로 살펴본다.

□삼국·통일신라시대

▲375년 고구려 소수림왕 5년 2월 성문사(省門寺)를 지어 전진(前秦)에서 와 고구려에 처음으로 불교를 전한 승려 순도(順道)를 있게 하였고, 이불란사(伊弗蘭寺)를 지어 아도(阿道)를 있게 하였다.

▲ 615년 고구려 영양왕 26년 고구려의 승려로 일본으로 건너가 불법을 전한 혜자(惠慈)가 돌아왔다.

▲ 855년 신라 문성왕 17년 윤4월 창림사(昌林寺)에 무구정탑을 창건했다.

□고려시대

▲ 975년 고려 광종 26년 3월19일에 화엄학에 밝았던 법인국사(法印國師) 탄문(坦文)이 76세로 서산 가야산 보원사(普願寺)에서 입적했다.

▲ 1035년 고려 정종 1년 10월16일 식일도감(式一都監)황주(黃州)등 십주군(十州郡)의 승관인(僧官人)을 회수할 것을 건의했다.

▲ 1095년 고려 헌종 1년 6월 15일 헌종이 건덕전(乾德傳)에서 목우계(木又戒)를 받았다.

▲ 1215년 고려 고종 2년에 조계산 수선사(修禪社)의 제5세 법주를 지낸 자진국사(慈眞國師) 천영(天英)이 출생했다.

▲ 1275년 고려 충렬왕 1년 5월4일 5승려가 조사(詔使)로 오자왕이 사신을 거느리고 서문밖에 나아가 맞이했다.

□조선시대

▲ 1395년 조선 태조 4년 태조는 전조(前祖)의 제왕씨(諸王氏)를 위해 우두산 견엄사에 밭 150결을 시급하고 매년 2월 10일에 수륙재를 거행할 것을 지시했다. 7월7일에는 중국 구법승이었던 정지국사 지천(正智國師 智泉)이 천마산 적멸암에서 나이 62세 법랍 43세로 입적했다.

▲ 1755년 조선 영조 31년 8월, 팔도 의승(義僧)의 번역(番役)을 면제하고 번전(番錢)을 대납시켰다.

▲ 1815년 조선 순조 15년 1월 무격(巫覡), 승니(僧尼)의 도성출입을 엄격히 금지하였다.

▲ 1875년 조선 고종 12년 1월26일에는 낙산사 홍련암과 수도산 봉은사에서 많은 사람을 교화하며 보살행을 실천한 청호(晴湖) 학밀(學密)이 고양군 뚝섬에서 출생했다. 12월20일에는 삼각산 혜봉암에 머물면서 도총섭(都摠攝)의 직을 수행했던 운파익화(雲坡益化)가 나이 58세 법랍40세로 입적했다.

□일제시대

▲ 1935년 2월 23일 조선불교청년 총동맹이 제3회 전체대회를 개최했다. 3월13일 제3회 조선불교 전국수좌대회가 개최됐다. 4월9일에는 불교수양회가 결성됐다.

5월25일에는 조선불교문화운동협회가 창립됐다. 8월3일에는 월간「불교시보」가 창간됐다.

9월22일부터 24일에는 조선불교 성극 순례단이 대구에서 〈불타의 일대기〉를 공연했다.

100 전통 100년, 도전 100년 1896-1996

환경관리 국내 1위
두산그룹

'94 환경관리 모범업체 최다선정

두산그룹은
모범적인 환경관리를 통해
강토사랑, 지구사랑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94「환경관리모범업체」로 최다 선정(16개 사업장)된 두산그룹이 이 나라 제일의 환경기업으로 거듭납니다.
두산은 예방위주의 철저한 환경감시 기능을 수행하는 〈통합환경관리시스템(IEMS)〉을 통해, 그룹 차원의 대대적인 환경보호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폐기물 처리 및 환경오염 방지시설을 망라하는 환경사업분야에서도 커다란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강토사랑, 지구사랑 — 두산이 앞장서고 있습니다.



환경관리 모범업체 지정현황
두산상사 금산공장 동양맥주 서울공장, 이천공장, 광주공장, 구미공장, 경산공장 두산음료 서울공장 두산기계 병점공장 두산유리 군포공장, 영남공장 두산전자 증평공장 종합식품 이천공장, 부천공장 두산제관 광주공장 오비씨그램 이천공장 백화 군산공장

깨끗한 환경, 우리가 먼저
1社1山1河川 지키기운동·종가집 철새보호운동·나무 비료주기운동·환경책자 배포운동등 斗山의 환경보호 운동을 성원해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斗山

특 집 / 인재불사-불교중흥의 초석이다

차례
■ 좌담회 '인재불사 이렇게', 전통강원 · 교육 실태 …… 4~5면
■ 스님박사 학위논문 분석 …6면 ■ 해방 50년 불교학 50년 …7면

시대의 걸승은 미래를 여는 정신적 지주

역사의 새벽 연 원효 · 서산등의 맥 이어야
교수방법 개발 절실 … 재가 교육도 과제



◇시대가 다변화되고 포교방법이 다양화되면서 불교계에서는 '사람을 길러야한다'는 소리가 고조되고있다.

'교육을 방해하는 자는 반드시 지옥에 떨어지고 교육을 진흥시키는 자는 마땅히 불도를 이루리라'는 만해 한용운의 절규를 새벽을 일깨우는 첫닭의 울음으로 받아들이며, 이러한 관점에서 현대불교는 인재불사를 1995년도의 화두로 삼고자 한다.

불교의 성쇠

3국시대에 불교가 전래되자 인간을 사랑하는 정신은 꽃을 활짝 피워 인간과 부처를 동일한 존재로 생각하게 되었다. 민족의 정서와 불교가 융합하자 민족 특유의 불교정신인 화쟁(和諍)사상을 정립하였다. 조화와 통일, 포용과 창조를 의미하는 화쟁사상은 원효스님에 의해 결정체를 이룩한 것이니 이것은 불법이 여명기를 거쳐 만물을 비추기 시작했음을 뜻하는 것이다.

고려시대에는 불교가 국교로 채택되어 생활윤리나 사회의 지도 이념이 되었다. 이에 국난이 일자 8만대장경 조판이라는 세계적인 불후의 대작 불사를 통해 민족의 자존을 지켰다. 이 시대는 교종과 선종이 활짝 피어 그 농염함을 자랑하였으니 대각의천(大覺義天), 불일보조(佛日普照) 등 한낮의 태양을 의미하는 위대한 선승들이 나타나게 되었다.

조선조는 개국과 동시에 유교를 국시로 내세우며 불교를 억압하기 시작했다. 전대에 불교가 누렸던 모든 특권을 박탈하였을 뿐만 아니라 승려의 도성출입도 금지하였다. 양가의 자녀들이 출가하는 것을 금지하였으며, 승려계급을 칠천(七賤)의 하나로 취급하였다. 허응당 보우스님이 불교중흥을 위해 순교를 당한 이래 서산휴정(西山休靜)에 이르러 잠시 불교의 존재가 내외에 과시되며, 이후 불교는 캄캄한 암흑 속에 잠기기 시작한다.

전세계가 근대화에 매진하고 있을 무렵의 한국은 애석하게도 쇄국이란 빗장을 걸고 깊은 잠을 자고 있었다. 이 무렵 불교의 사원은 황폐화되어 있었으며, 선맥은 끊어져 점이나 사주 관상을 보는 것이 사찰의 역할인양 착각하거나 득남 · 출세를 위해 복을 구하는 장소에 불과했다. 이때 경허라는 걸승이 등장하여 선맥을 복원하고 만공, 해월, 수월, 한암 등의 제자를 배출했다. 캄캄한 밤을 지새우고 새벽을 맞이하기 위한 달그림자들이 남북에 걸쳐 길게 드리워지기 시작한 것이다. 이후 금오, 효봉, 구산, 성철 등의 선승들이 불교를 중흥하기 위한 초석을 다진 이래 월하, 월주스님 등에 이르러 불교의 개혁이 시작되고 있다. 불교의 개혁은 불법의 중흥을 통해 인류사회에 기여하자는 것이란 점에서 바야흐로 21세기 문명의 구심점으로서 불법의 커다란 태양이 솟아오르기 시작하고 있음을 뜻한다 할 것이다.

국력의 기초

원효스님이 찬란한 불법의 태양을 솟구치게 한 이래 불교의 법통은 고려의 불일보조, 조선의 서산휴정, 근대의 성우경허로 계승되고 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아침을 뜻하는 원효, 한낮을 뜻하는 불일보조, 해질녘을 의미하는 서산휴정, 한밤을 상징하는 경허의 등장은 단순히 효사가들의 말장난을 떠나 일찍이 느끼지 못했던 역사의 흐름을 시사하는 것이라면 이 또한 우리들에게 무엇인가를 의미하는 것이 분명하다.

한국불교 1700여년의 역사적 흐름을 조망하면 대부분의 역사가들은 역사적 상황과 불교 사이에 표현하기 힘든 불가분의 상관관계가 있음을 부인하지 못한다. 그것은 불교가 흥륭할 때 민족의 정기가 되살아 났으며, 불교가 쇠락할 때 국운도 기울어져 희미한 백열등 처럼 제 빛을 발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돌이켜 보건데 3국의 화려한 분화는 그 기저에 불교가 자리잡고 있다. 3국을 통일한 신라의 저력도 불교의 사상적 기반 위에서 발휘된 것이니, 그들은 통일의 이념과 원리를 법화경의 회삼귀일(會三歸一) 사상에서 찾았다. 원광(圓光)의 세속5계는 신라 사회를 지탱한 사회윤리로서 애국애민정신과 용기와 지혜있는 삶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었다. 불교의 위대한 빛을 온 누리에 뿌린 원효는 화쟁사상으로 국론을 통일하고 민족의 정신 속에 인본주의가 뿌리내리게 했다. 이러한 민족의 저력이 3국을 통일하고 소정방(蘇定方)이 이끄는 당나라의 군대를 한반도 내에서 축출할 수 있게 했다.

고려는 불교의 힘을 바탕으로 건국하여 불교적 가치관에 따른 자유와 평등사상이 넘치는 사회를 건설하였다. 그들은 불교를 통해 국민정신을 한마음이 되게 만들었으며, 민족의 자존심을 지키고자 하였다. 당시 유럽 · 아시아 대륙을 석권했던 몽고세력이 침입하자 그에 30여년간 대항하였으며, 거란의 침입도 용기와 슬기를 발휘하여 물리쳤다. 그와 같은 저력은 백고좌(百高座)법회를 열어 위정자의 애민정신을 고취시키거나 왕사와 국사를 통해 국정을 자문받음으로써 가능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승단 자체도 승과제도를 통하여 승려들의 자질을 향상시키고 도덕적 타락을 방지함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획득한 결과였다. 그러나 고려중엽 이후 승단이 자체정화력을 상실하고 권력과 유착하여 정쟁에 휘말리거나 대중과 유리되어 사회교육장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하자 사회적 혼란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마침내 역성(易姓)혁명을 통하여 왕조의 종말을 맞이하게 되었다. 이것은 결국 불교의 인재양성과 관리체계가 무너진데서 기인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조선을 건국한 주축세력들은 기득권층인 불교를 배척하고 유교를 국시(國是)로 새로운 민족사를 창출하고자 했다. 그러나 당시 인구의 15%도 되지 않았던 지배계층은 국시인 유교의 가르침에 충실하게 따랐으나 여성이나 대부분의 서민 대중들은 불교적 가치를 지니고 있었다. 위정자와 서민간의 사상적 괴리감을 메꾸어줄 국론통일의 사상체계가 없으므로 인하여 사회윤리는 경직되고 철저한 계급사회가 되었던 것이다. 따라서 국가적 위기에 봉착하면 자주적 자존이 아닌 외세에 의존할 수 밖에 없었다. 이러한 때에도 불교도는 임진왜란이나 병자호란 등의 국난이 발생하자 살신보국의 정신을 발휘하여 국난타개에 앞장섰다. 일체의 유정(有情)을 보살의 화현이나 부처와 동일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 존엄한 존재로 파악하고 그들을 지키고자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철저한 유교의 배타성이 사상의 자유로움을 가로막아버림으로 인하여 조선 역사 전체가 암흑 속에 잠기는 비운을 맞이하였다. 이것은 상대적 가치와 조화를 강조하는 불교의 쇠락과 국운이 함께 했다는 점에서 의미하는 바가 크다고 할 것이다.

1876년 개항과 함께 쇄국정책으로 잠자고 있던 조선은 근대화의 소용돌이 속에 휩싸인다. 이 무렵 이동인스님, 무불스님, 김옥균, 유대치, 오경석 등 개화를 위해 육신을 불사른 불교도들의 노력도 물거품이된 채 일본의 식민지라는 민족사 일대의 치욕을 당하게 되었다. 이에 만해 한용운은 만당(卍黨)을 결성하여 국권을 회복하고자 노력하며, 용성스님은 대각교운동을 통하여 민중을 깨우치고 불교의 중흥을 획책하였다.

장래 좌우할 열쇠

우리는 역사를 통하여 인재의 양성과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따라서 오늘 이 시점에서 불교의 진정한 중흥은 무엇인가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그것은 단언하건데 인재의 양성에 있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고 불교의 인재양성이 단지 승려들만의 교육이나 양성을 의미하지 않는다. 승가의 구성원이 4부대중이며, 4부대중의 화합과 상호견제 속에서 참다운 불교의 발전이 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 출가자와 재가자 모두를 지칭하고자 한다.

그동안 불교계는 강원과 선원 위주의 승려교육을 지향했다. 선원과 강원은 한문경전 위주의 교육을 했거나 출가승 위주의 수행을 강조했다. 승속이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가지 않으면 진정 이 사회의 지도적 종교가 될 수도, 불교의 중흥도 기대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다. 뿐만 아니라 교학을 천시하고 선수행만을 강조함으로써 대중적 기반과 유리되었거나 출가지상주의 속에서 재가자를 출가자의 종속물 정도로 치부해 버렸다. 재가의 존재 의의를 무시하고 재가생활을 가치없는 삶으로 도외시하는 기풍을 조성하여 불교의 시대성과 사회성을 떨어뜨리는 오류에 빠지게 했다. 여기서 종교의 사회적 기능을 무시하게 되었으며, 포교의 당위성이나 방법개발을 하찮은 일로 생각하게 되는 후유증이 생길 수 밖에 없었다. 조선조 후기 이래 이 땅에는 서구의 종교가 들어오기 시작했다. 그들은 종교의 존재의의에 대한 냉철한 자각 속에서 기층 민중의 삶과 가치에 동참해야 한다는 사실을 인식했다. 그것이 종교의 사회적 역할이며, 종교의 생명력이라 생각한 것이다. 해방 이후는 서구의 자본주의와 과학문명, 발달한 교육제도를 앞세우고 민중들의 정서 깊숙히 침투하고 있다. 그들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성취하기 위해 산업사회의 특성과 변화를 분석하고 그에 알맞는 다양한 방법을 연구 개발했다. 따라서 교육, 의료, 사회복지 등 정치 사회 경제 전반에 걸친 영향력을 구축할 수 있었다.

우리는 이제 인재양성이 한국불교의 장래를 결정하는 열쇠라고 말할 수 밖에 없다. 인재를 양성하지 않는다면 불교의 중흥은 커녕 민중의 외면을 받을 것이 자명하다. 그렇다면 불교의 중흥을 위한 하는 해결책은 무엇인가.

우선 산업사회 내지 21세기를 인도할 승려를 양성하기 위해 전통교육(강원,선원)과 현대식교육을 효과적으로 접목시켜야 한다. 다양화된 현대학문을 모두 배울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종교학, 사회학, 서양철학, 교육학, 심리학 등에 대한 기초지식은 습득해야 마땅할 것이다. 또한 팔리어나 산스크리트어로 된 경전을 연구하고 그것을 한문경전과 비교하여 정확하고 이 시대에 맞는 용어로 번역할 수 있는 교육체계가 되야 할 것이다. 문제의 해결은 불교계의 교육제도 개선에서 찾아야 한다.

또한 교육의 질적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교수진을 대폭 확충할 필요가 있다. 현재 몇 사람의 강사로 꾸려가는 강원의 형편으로는 전문화하거나 다양한 지식을 교수할 수 없다. 나아가 시야를 넓히거나 필요한 지식을 습득하기 위해 해외에 많은 유학생을 파견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재가교육은 단순히 5계나 10계를 주는 차원에 그칠 것이 아니라 불교적 이념을 이해하고 보살도를 실천하여 인류와 세계문화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불교도를 양성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과 방법을 개발해야 한다. 우선은 승려교육이나 인재양성이 급할 것이겠지만 현대사회의 다양성을 수용하고 그 속에 불타의 가르침을 펼치기 위해서도 재가자의 교육과 양성은 더없이 소중한 것이다. 여기서 '교육을 방해하는 자는 반드시 지옥에 떨어지고 교육을 진흥시키는 자는 마땅히 불도를 이루리라'는 만해 한용운의 절규를 새벽을 일깨우는 첫닭의 울음으로 받아들이며, 이러한 관점에서 현대불교는 인재불사를 1995년도의 화두로 삼고자 한다.

〈특별취재반〉
◇ 차차석 조사자료부장
◇ 정성운 기자
◇ 김재경 기자
◇ 박미영 기자

생활 속의 불교 ⑫
협찬 : 대우자동차 전농판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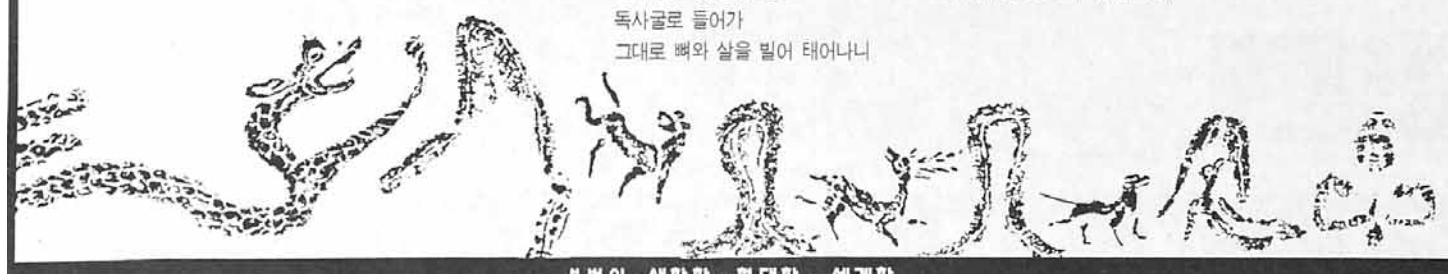
독사굴로 들어간 두루뭉수리

무쇠로 만든 연장이 못 쓰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고철상에 모였다가 용광로로
들어가 다시 무쇠로 재생되어
나온다.
금붙이라면 금방으로 모였다가
금 제품이 되어 다시 나온다.
그렇듯이 사람도
살아 생전의 마음 그 차원이
금이냐, 무쇠냐, 깡통이냐에 따라
더하고 덜함도 없이 되나오게 된다.

사람이 불법의 도리를 모르고
죽게 되면 그 의식 그대로
눈 멀고 귀 멀어 생시에
하던 대로 거기에 걸려
한 발자국도 새삼스럽게
내딛지를 못한다.
사대는 흩어져 원점으로 돌아가고
식만 남게 되니
눈도 없고 귀도 없으매
마치 두루뭉수리 꼴이라
다만 생전의 습대로 이리저리
헤매게 된다.
헤매는 중에 불바퀴를 보면
타 죽을까 겁을 내고
물바퀴를 만나면 빠져 죽을까
겁을 낸다.

그러다가 생전에 개와 같은 짓을
많이 했으면 개로,
독사짓을 많이 했으면
독사굴로 들어가
그대로 뼈와 살을 빌어 태어나니
그 모습을 어찌하겠는가.
고로 살아 생전에 아귀 축생의
마음을 자주 냈으면
아귀 축생계를 면치 못할 것이라
지옥이 따로 없이
독사 몸으로 들어간 게
곧 지옥이 아니겠는가.
살아서 천당에 태어나지 못하는
사람은
죽어서도 천상에 태어날 수 없다.

그러니 불법의 도리를 외면하여
살아서나 죽어서나
두루뭉수리 꼴이 되지 말고
살아서 마음 공부를 하여
밝디 밝은 길로 나아가야 한다.



불법의 ·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고객의 만족은 우리의 생명!
기술은 최고, 최고 기술은 정성!
한마음으로 성실하게!"

견인차량 24시간 항시 대기
정확한 진단, 신속한 처리
섬세한 안전점검
그리고 보험업무처리까지

대우자동차 전농판매
전화 : (02) 215-1472
215-1071
팩스 : (02) 215-1076

특 집 / 인재불사-불교중흥의 초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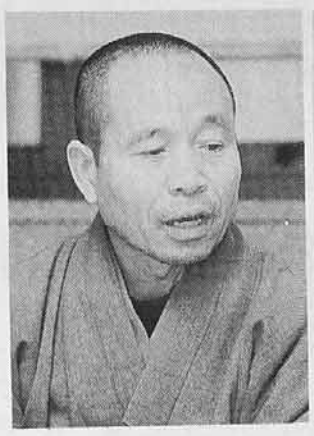
'인재불사 이렇게' 전문가 좌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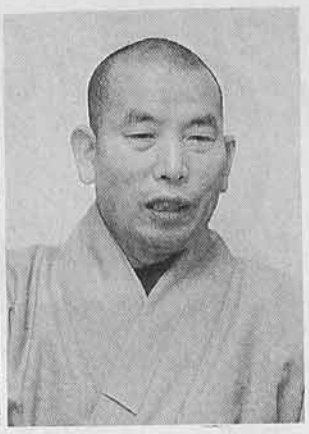
교육의 밭 먼저 갈아야 "진정한 개혁"

학식·수행·실천 겸비해야…제도 체계화 시급

다변화 시대 이끌 엘리트 양성에 정재 투자를

현대불교신문은 95년을 불교중흥의 원년으로 선포했다. '인재불사가 불교중흥의 초석'이라는 대전제 아래 한국불교의 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대안을 도출하기 위한 좌담회를 개최했다. 좌담회는 구랍 19일 오후 2시 본사 3층 회의실에서 각계의 권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좌담회에서는 승가와 재가의 교육방법에 대한 문제점과 중요성의 제고, 인재의 관리와 양성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이 제시됐다.〈편집자주〉


◇각성 스님


◇송산 스님


◇박선영 교수


◇박광서 교수


◇일연 스님

〈참석자〉

박선영교수(동대교육학과, 불교교육학) 각성 스님(3·1선원장, 강백)

송산 스님(중앙승가대 학장, 불교복지학) 일연 스님(동학사 주지·강주)

박광서교수(서강대, 재가 불교운동가) 현광 스님(옥스퍼드대 박사과정)

▲박선영교수=조계종의 개혁작업도 무사히 끝나고, 새로운 지도체제가 구축되었습니다. 이제 내년이면 광복 50주년을 맞이하게 되며, 어느새 21세기가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이에 새로운 시대에 불교의 사회적·종교적 역할을 다하기 위해 필요한 불교의 인적 자원을 어떻게 양성해야 할지가 중대한 현안이 되고 있습니다. 교육은 국가의 존립과도 직결되는 만큼 각 나라마다 중대한 관심의 대상입니다. 한국은 이제 바야흐로 다종교 사회, 개방된 세계 속에서 불교의 자존과 역할은 교육을 통한 자기 갱신에 있다고 봅니다. 이런 전제 아래 좌담을 진행할까 합니다.

▲송산스님=교육제도의 개혁에 대해서는 조계종에서도 다각적으로 연구 중입니다. 옛날에는 스승과 제자가 일대 일로 교습하는 형태였습니다. 지금은 전문화, 다양화 속에서 전문강사스님을 초빙하

강원교육 한계 드러나

여 승려를 교육하고 있습니다. 사회가 발전하면서 재가자들의 교육열이 높아지고 있으므로 출가승들도 보조를 맞춰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현 강원교육은 한계가 있습니다. 현대교육방식과 전통교육방식의 장점을 살릴 수 있는 연구가 시급합니다.

▲각성스님=현재의 강원교육제도가 구태의연하고 미비점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시대가 급진적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재가자들의 교육열기와 정보 인식도가 과거와 달리 매우 높습니다. 승려들도 이러한 사회 흐름에 적응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시대에 알맞는 교육의 활성화가 필요합니다. 현재의 강원제도는 한문의 벽에 갇혀 너무나 많은 시간을 허비하고 있으며, 교과내용도 다양하지 못합니다. 이제 정선된 교재와 내외전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며, 기존의 교과목에 더하여 구사론, 인명론, 천태학, 유식, 중관 등 종합적인 교육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박광서교수=저는 재가자로서 재가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연구했으면 합니다. 불교는 깨달음의 종교이므로 승가교육은 깨달음의 사회화라는 재가교육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재가교육이 정립되지 않으면 승단의 기초가 흔들리는 것은 물론 승단의 존립이 위태로와 질 것입니다. 다만 종교의 두 축은 수행과 중생구제입니다. 다양한 가치가 공존하는 시대엔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 전문성이 요구됩니다. 승단의 교육제도에 이러한 것이 반영되어 있는지 의문입니다. 여기서 개인의 깨달음을 추구함과 동시에 중생들의 근기에 따라 그들을 제도할 능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수행의 절대적 가치가 팽배해 있는 한국불교 현실에서 중생구제는 번거로운 일로 치부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교정하고 출가의 두가지 목적을 원만히 성취하기 위해서도 교육이 필요한 것입니다.

▲박선영교수=교육의 내용은 역사성과 사회성을 갖춰야 합니다.

이대로는 21세기 적응 못해

그러나 전문적인 현대교육과 수행을 병행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 스님들은 청정함과 향기 이외에 식견을 지닌 설득력을 가져야 합니다. 사회인들이 종교인들에게 갖는 기대가 매우 큰데 종교인들은 이것을 브

담스러워 하지 말고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일연스님=승려교육은 강원교육과 선원의 수행을 들 수 있습니다. 겉보기에는 비구니 교육제도가 그런대로 체계가 있어보입니다만 4년간의 강원교육으로는 태부족입니다. 바람직한 승려교육을 위해 기초교육 기간과 제도에 변혁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현광스님=저는 한국불교의 남전불전 연구가 부족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88년도에 스리랑카에 가서 팔리어를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후 인도에서 석사과정을 마치고 현재는 영국 옥스퍼드대학 동양학부 박사과정에 재학중입니다.

스리랑카의 교육제도는 영국의 식민지배를 받으면서 변화되었습니다. 서구교육에 발맞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스리랑카의 승려들은 어려서 출가하므로 절에서 일반 사회교육을 이수합니다. 중·고등과정을 거치면서 팔리어 경전도 공부하지요. 이 과정을 마치고 대학에비고사격인 시험에 합격하면 불교대학에 진학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합니다. 현재 스리랑카의 교육은 바탕이 균등하고 높아 세계불교권에서 남방불교학의 중심지가 되어 있습니다.

(이하 경칭 생략)

▲박선영=한국불교는 〈화엄십지〉만 마쳐도 큰 학승으로 취급했습니다. 하지만 서양의 교육이 밀려오고, 지식이 지식을 낳아 승가교육도 변혁의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일본은 사회의 학력을 그대로 인정하고, 출가자의 학력 정도에 맞는 수행과 교육을 시킵

신도교육도 연구과제

니다. 말하자면 선교육(先教育)·후득도(後得度)제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부처님 당시 제자들의 80%가 브라만 내지 왕족 출신인데, 이것은 불교승단이 당시 최고 지성인의 집단임을 시사합니다. 현대사회도 재가자들의 학력이 높은 만큼 스님들의 수행과 교육의 질이 높아져야 합니다. 저는 강원을 기초교육의 도량으로 삼으면서도 국학의 본산으로 키웠으면 합니다.

▲현광=영국도 현재 교육문제로 커다란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연일 교육에 관한 세미나를 열면서 21세기에 적합한 교육제도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교육제도로는 21세기에 적응하지 못한다는 위기의식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영국이 옥스포드와 캠브리지를 중심으로 현대사회를 이끈 인재를 배출할 수 있었던 것은 경비와 노력을 아끼지 않은 교육투자 때문입니다. 교수와 학생간에 일대일의 개인교수제도가 정착되어 있습니다. 저는 한국불교의 교수방법이 매우 선진적인 영국의 제도와 비슷하다고 봅니다. 문제는 많은 강사의 확보와 활발한 논강, 그리고 각 강원의 특성화 작업을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일연=불교적 인재는 수행과 학식이 겸비되어야 하며, 특히 율전에 대한 깊은 연구가 있어야 합니다. 계율을 무시하고선 불교의 생명력이 살아날 수 없습니다. 언어 이전에 전달되는 인품의 향기는 지계와 수행에서 나옵니다. 지도자적 인격완성에 필요한 교육제도가 되려면 현재의 교육과정 보다 충분한 교육기간이 필요합니다. 또한 교육을 마친 이후 가까운 지역에서 사회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배려도 중요합니다.

▲박광서=20세기는 과학의 발달로 물질적 풍요를 누린 시기이며, 21세기는 개체와 가치의 다양성이 중시되리라 봅니다. 따라서 다가올 시대에 대비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야만 세계적인 종교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불교계는 사회문제에 둔감합니다. 대중들의 외면을 받지 않으려면 사회적 실천을 겸비해야 합니다. 또한 재가자를 위한 교육제도도 필요합니다. 간병만 열심히 해도 보살의 경지에 이를 수 있다는 인식을 심어주어야 합니다.

과감한 투자는 당연

다가오는 세기에 한국불교가 제위상을 회복하고 세계적인 종교로 부상하기 위해서는 분명한 목표와 각오를 지닌채 다양한 인재양성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삼보정재가 인재양성에 적극적으로 투자되어야 합니다.

▲각성=21세기에 대비한 교육제도를 종단적 차원에서 깊이 연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필요하다면 수재들을 수용할 특수학교를 세우는 일도 해야 합니다. 전통을 고수하면서도 대중화 시대에 ↗

불 교 성 지 순 례

인도에 다녀오신 모든 이는 부처님의 미소를 닮아 있었습니다.

인도 정부 관광국 후원

인도·네팔 순례 14日

석가모니 부처님의 탄생(룸비니)에서 성불(브다가야), 그리고 설법(사르나트)과 열반(쿠시나가르)까지 모든 수행과 성도의 현장을 직접 순례하시고 성불하십시오. 오랫 동안 부처님의 큰 뜻을 연구해 오신 오국근 교수님(인도 네루대학 교환교수, 한국·인도협회 부회장, 한국 불교 청년회장 역임, 현 동국대 교수)께서 전 일정을 동행하시면서 부처님의 큰 뜻을 전해 드릴 것입니다.

卍 순례일정: 서울-방콕경유-네팔(카트만두, 히말라야산, 룸비니)-인도(브다가야, 사르나트, 쿠시나가르, 아그라, 아잔타, 발람푸르 기원정사, 라자기르 죽림정사 등 순례) 13박 14일

卍 출발안내: -제1차 순례: 12월 4일~12월 17일(신청마감일: 11월 19일) ···마감
-제2차 순례: 1월 15일~1월 28일(신청마감일: 엑스퀴지-1월 9일 이스퀴지-1월 4일)
-제3차 순례: 2월 19일~3월 4일(신청마감일: 엑스퀴지-2월 13일 이스퀴지-2월 8일)

卍 동 참 금: ₩ 2,190,000(신청금 포함, 여권인지대 별도)

卍 신 청 금: ₩ 200,000

미소의 나라, 불교의 나라로……
태 국 5日
동참금: 655,000
출발일: 12/7,14,21,28 1/4,11,18,25
·일정: 서울-방콕-파타야-아유타야-방콕-서울

중국 불교의 또다른 발자취
대 만 5日
동참금: 645,000
출발일: 12/8,15,22,29 1/5,12,19,26
·일정: 서울-타이페이-고웅(불광사)-화련-타이페이-서울

겨 울 여 행 특 선

최고의 여정, 최상의 서비스, 최대의 기쁨

태국(파타야) 5日 ₩ 685,000	12月 24,25,28,29,30,31日 1月 7,8,14,15,21,22,28,29日	미국 서부 버스 7日 ₩ 799,000	12月 23,30日 1月 6,13,20,27日
대만(화련) 4日 ₩ 535,000	12月 25,30日 1月 1,4,8,11,15,18,22,25,29日	중남미 역사탐방 15日 ₩ 3,990,000	1月 5,19日
마 닐 라 4日 ₩ 625,000	12月 24,31日 1月 7,14,21,28日	중남미 일주 20日 ₩ 4,980,000	12月 25日 1月 8,29日
홍콩·마카오 4日 ₩ 545,000	12月 23,30日 1月 6,13,20,27日	유럽 5개국 10日 ₩ 1,940,000	12月 29日 1月 5,12,19,26日
동남아 3국 5日 ₩ 699,000	12月 24,28,31日 1月 4,7,11,14,18,21,25,28日	유럽 6개국 11日 ₩ 2,140,000	12月 25日 1月 1,8,15,22,29日
홍콩(마카오)·방콕·싱가폴 8日 ₩ 995,000	12月 25日 1月 1,8,15,22,29日	유럽 8개국 버스 13日 ₩ 2,140,000	12月 24,31日 1月 7,14,21,28日
방콕·싱가폴 6日 ₩ 795,000	12月 27,29日 1月 3,5,10,12,17,19,24,28,31日	모로코스페인포루투칼 10日 ₩ 2,290,000	12月 29日 1月 5,12,19,26日
동경·하꼬네 4日 ₩ 945,000	12月 29日 1月 5,12,19,26日	사 이 판 4日 ₩ 645,000	12月 25,29日 1月 1,5,8,12,15,19,22,26,29日
일 본 일 주 5日 ₩ 1,235,000	12月 27日 1月 3,10,17,24日	괌 4日 ₩ 645,000	12月 25,29日 1月 1,5,8,12,15,19,22,26,29日
일본(혼슈 및 큐우슈우) 6日 ₩ 1,345,000	12月 27日 1月 3,10,17,24,31日	시드니·골드코스트 5日 ₩ 985,000	12月 25日 1月 1,8,15,22,29日
하 와 이 5日 ₩ 749,000	12月 24,28,29,31日 1月 4,5,7,11,12,14,18,19,21,25日	호주·뉴질랜드 8日 ₩ 1,545,000	12月 24,25,27,29,31 1月 1,3,5,7,8,10,12,14,15,17,19日

※ 성수기 요금 별도있습니다

여행조건 특급 및 일급 호텔 사용, 10人이상 출발, 전일정 식사 제공(기내식 포함) 해외 여행 보험 가입

의대키우 선도하는 불교 성지순례 전문 (주) 아 태 관 광 국외 여행업 제817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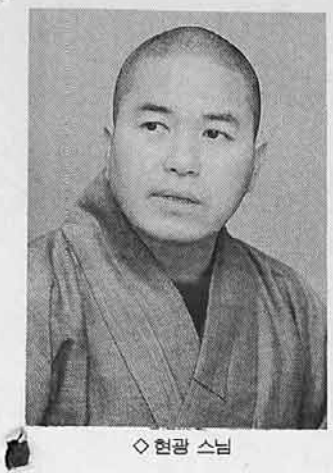
저희는 이익금의 일부를 불우 이웃돕기성금에 사용합니다.

☎ 732-3200 (代)

승가교육의 오늘

특 집 / 인재불사-불교중흥의 초석이다

출세간의 백년대계 "청사진이 흐리다"



◇ 현광 스님

맞도록 변해야 합니다. 또한 보살정신을 실천하면서 경전을 익힐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투자를 아끼거나 머뭇거릴 여유가 없습니다. 교육을 도외시 했기 때문에 종단이 낙후되고, 시비와 분쟁이 끊이지 않는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송산=승가교육이 낙후된 것은 제도와 의식에서 기인합니다. 선불교의 전통은 지식을 허상이라 여기고 책을 멀리하게 만들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교육을 받을 필요성은 물론 교육을 받고자하는 의식조차 없어지게 했습니다. 공부를 하지 않아도 의식주에 아무런 장애도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제도적으로는 아무런 불이익이 없습니다. 개혁종단의 교육제도개선안에 따르면 행자교육원에서 사미계를 수여하며, 기초교육기간을 보다 연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부하지 않으면 안되도록 이번 개혁종단에서 교육제도를 개선했습니다. 기초교육과 재교육의 이수에 따라 일정한 자격을 주는 것입니다. 또한 중앙승가대학도 교육제도를 강화시켜, '선득도·후교육'에서 야기되는 한국불교의 병폐를 사전에 차단하고자 합니다.

▲박선영=절대빈곤을 해결하고 나면 인간의 본질에 대해 의문점을 제기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따라서 현대사회의 종교는 사회와 격리되지 말고, 대중들의 정서 깊숙히 들어가야 합니다. 사회 현실을 정확히 파악할 때 동체대비의 보살도를 완성할 수 있습니다. 신도들의 교육도 제도화해야 합니다.

▲각성=교육이 불교의 백년대계를 결정하는 것이라 생각하고 큰스님들께서 앞장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재가 끊기면 종단의 발전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교육이 올곧게 시행되면 10년 이내로 커다란 효과가 나타날 것입니다. 교육개혁 없이는 진정한 개혁이 있을 수 없습니다.

▲송산=교육개혁은 제도개혁만으론 부족합니다. 의식개혁과 생활개혁이 뒤따라야 합니다. 제도를 운영해 보면서 문제점을 보완해야 합니다. 그러기위해 교육에 관한 공청회와 세미나가 지속적으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신자교육에 대한 고견도 말씀하셨는데 지금은 과도기이므로 먼저 승려교육이 정립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일연=지속적으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중앙승가대와 강원의 졸업생에 대한 진로를 개척해야 합니다. 전문화 교육도 1인1기를 갖도록 교육의 전문화도 필요합니다. 전통의 수행과 현대교육이 병행될 수 있도록 교육 중에는 철저하게 규칙을 적용하고, 불교의 사회적 역할이 무엇인가 심어주어야 합니다.

▲현광=성직자에 대한 교육은 무엇 보다 일상의 투명성과 선명성이 강조되어야 합니다. 성직자는 지계를 엄수하고 수행을 철저히 하는 점에서 재가불자와 확연히 구별될 것입니다.

현대사회의 종교는 사회와 격리되지 말고, 대중들의 정서 깊숙히 들어가야 합니다. 사회 현실을 정확히 파악할 때 동체대비의 보살도를 완성할 수 있습니다. 신도들의 교육도 제도화해야 합니다. 입문단계에서부터 체계적인 교육을 시킬 수 있도록 연구 해야 합니다.

서구는 지금 윤리·도덕의 타락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해 있습니다. 따라서 사회윤리를 재정립하는 것이 필요하면서도 한편으론 솔선수범하는 자세를 보여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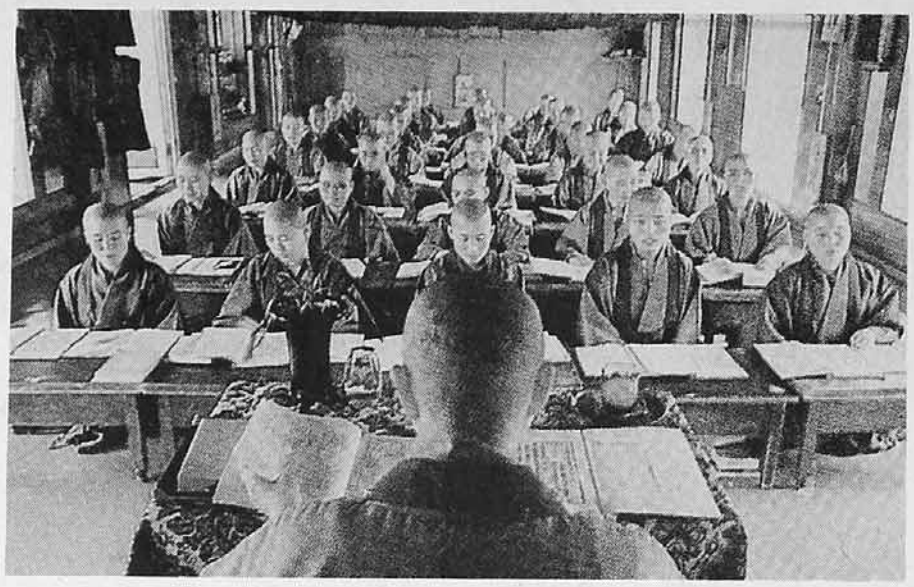
▲박광서=불교의 교육목표는 무소유정신과 무한책임주의의 실현에 있다고 봅니다. 우선 실천이 가능한 헌혈과 같은 작은 신행부터 모범을 보여야 합니다. 재가자의 교육의 발을 가는 교육이라면, 출가자의 교육은 씨를 뿌리는 교육이 될 것입니다. 재가자와 출가자를 구분하지 말고 전체적인 교육체계를 확립해야 할 것입니다.

▲박선영=종단의 어른들이 큰 뜻을 내시고, 교계 언론들이 여론을 조성해야 합니다. 교계의 신행단체와 신도들도 결속하여 실질적인 뒷받침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불교의 교육이 바로 설 때 한국불교의 장래가 밝아지리라 생각합니다. 장시간 감사합니다.

〈특별 취재반〉

"92년 종무행정보고서에 의하면 전체 승려의 14.1%가 기본교육을 기피하거나 아무런 교육도 받지 않고 있으며, 기본교육과정을 거치지 않고 선원에 입방한 초심자까지 합하면 기본교육을 받지 아니한 승려가 30%에 이르고 있다."

익히 아는 사실이지만 새삼 충격을 던져주는 승가교육의 현실이다.



◇ 승가교육이 현대사회에 걸맞게 변화되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사진은 강원의 수업장면.

조계종이 교육법으로 규정한 승가교육은 기초과정인 행자교육원과 기본과정인 승가대학, 학림 승가대학원 율원 선학연수원 등의 전문교육과정 등으로 나뉜다. 그러나 학림과 승가대학원 선학연수원 특수학교는 교육법에만 규정되어 있을 뿐 아직까지 설치되어 있지 않다.

기초교육과정은 출가해서 사미(니)계 수지 이전의 행자과정에서 배우고 익히는 과정이다. 6개월 정도의 기간 동안 출가한 본사에서 기본습의와 의식 송주를 익히고 사중소임을 본다. 이후 1년에 두차례 실시하는 행자교육원에 들어가 3주과정의 단기교육을 받는다.

이 과정을 마치면 의무적으로 기본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사미 사미니는 반드시 종단 기본교육과정(승가대학)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한다'(승려법 16조)고 규정하고 있다. 또 비구(니)계를 받으려면 '연령 20세 이상으로 종단에서 설치 또는 지정한 기본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승려법 18조)로 그 자격을 분명히 명시하고 있다. 그래야 비로소 스님으로 인정되는 비구(니)가 되는 것이다.(승려법 3조)

그러나 이러한 규정이 있음에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지난 91년 8월부터 94년 9월까지 7회에 걸쳐 실시한 행자교육을 이수한 사미(니)는 모두 1679명에 이른다.

특히 92년에는 409명, 93년 509명이 행자교육을 마쳤다. 이 가운데 기본교육과정인 중앙승가대와 동국대학교 불교대에 입학한 사미(니)는 50여명으로, 나머지 870여명은 지방승가대학 또는 선원에 들어가야 하지만 93.94년 지방승가대의 사미과 사집과에 입방한 학인은 484명 뿐이다. 나머지 약 42%에 이르는 384명의 사미(니)는 기본과정에 입학하지 않은 것으로 추산된다.

지방승가대와 중앙승가대를 2년전 졸업한 한 스님은, 본인을 포함한 4명의 도반 가운데 승가대를 졸업한 스님은 혼자 뿐이라며, "사미의 경우 45%, 사미니의 경우는 15% 정도가 기본교육을 받지 않고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강사1인 44명지도

현재 조계종에 등록된 승가대학은 모두 15곳(비구 10, 비구니 5)으로, 학인수는 해인사 102명을 비롯 모두 863명이다. 지방승가대학(전통강원으로 불렸으나 87년 종령 66호를 통해 명칭을 승가대학으로 통일)은 행자교육원을 마친 사미(니)를 교육하는 곳으로 수업년한은 4년이다. 사미과 사집과 사교과 대교과로 나뉘 각1년의 수업년한을 두고 있다.

전통적인 승가교육이 행해지는 지방 승가대학에서는 기본적으로 사미(니)율의 치문(사미과), 서장 도서 절요 선요 사기(사집과) 능엄경 기신론 금강경 원각경(사교과) 화엄경(대교과) 등의 이력과목을 공부한다. 송광사는 이 기본과목에 보조어록을 보설과목으로 추가시키고 있다.

강사는 강주를 포함 47명으로, 15개 승가대학 평균 3.1명이다. 강사 1인당 적게는 5.0명에서 많게는 44.4명의 학인을 지도하고 있다. 강사 1인당 18.4명의 학인을 지도하므로 10명 내외의 학인을 강사 1명이 지도하는 경우가 이상적이라 가정할 때 현재의 숫자보다 80% 정도의 강사를 더 필요로 한다.

외전은 주로 영어·일본어·중국어, 컴퓨터, 인도 중국 한국불교사, 꽃꽂이 등으로 외부강사를 초빙해 특강형식으로 진행한다. 비구니 승가대학의 경우 피아노를 배우기도 한다. 송광사는 외전이라도 재가에게 맡기지 않고 승려만을 초빙한다.

공부방법은 보통 한문불전의 문장해석 위주로 이루어진다. 전통의 방법인 논강이 있으나 이것은 사교과부터 실시한다.

논강법은 한 사람이 그날 배울 글의 뜻을 풀이하면 반원은 모두 경청하다가 자기의 견해와 달리 해석할 때에는 서로 기탄없이 토론하며, 끝내 의견일치가 안되는 부분은 강주에게 묻는 것이다. 지관스님(해인사 주지)은 "논강법이 고등교육에 있어서 가장 좋은 방법"이라며 적극적인 도입과 실시를 바란다고 밝혔다.

부실한 기초교육

이에 앞서 승려가 되고자 사찰에 입산한 행자들은 6개월여 동안 입산사찰에서 〈초발심자경문〉과 염불 습의 등 기초적인 교육을 받는다. 그러나 4대 총림을 비롯한 몇 사찰을 제외하고는 입산사찰에서의 행자교육은 거의 실태를 파악할 수 없을 정도로 미미하다.

교구본사인 한 사찰의 경우 매년 300~400명의 입산자가 있으나 이 가운데 수계한 행자는 10~20명 밖에 안된다. 이같은 원인은 "행자에 대한 별다른 관심도 없고 이들을 대수롭지 않게 여겨, 행자가 출가하면 아무런 대책없이 후원에서 생활하게 하고 몇 개월 지나면 계를 받게 하는 식"이라는 지적이다.

이 사찰의 경우는 다른 본사에 비해 행자교육이 잘되고 있는 곳으로 알려지고 있는 사찰이다. 원주스님과 교무스님, 율원과 승가대학의 구참학인이 행자교육을 담당하고 있으나, 일부 사찰의 경우 갓 사미(니)계를 수지한 선배가 지도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다.

행자교육원에서는 3주의 기간동안 △행자로서 필요한 기초적 교학의 이해 △기초적인 계율의 학습과 수련 △예참과 기본불교의식 수련 등을 교육목표로 선학 경학 율학 습의 등을 교육한다.

선우도량(대표선우 도법)이 지난해 11월 발표한 '한국불교 승가교육 개혁안'의 지적이 아니라도 "시대를 선도해나갈 올바른 수행자 양성은 승가교육을 통해서만 이루어진다."

따라서 조계종은 종헌과 교육법 등 각종 종법을 통해 반드시 이수해야 할 승가교육의 이력과정을 명시하고 있다. 즉, 출가해서 기초교육과정인 행자교육원을 통해 사미(니)계를 수지하고 기본교육과정인 승가대학을 마치고 비구(니)계를 수지, 비로소 승려가 되는 것이다.

승가교육은 대체로 사미(니)의 52.7%가 입학할 정도로 전통강원 즉 승가대학에서 이뤄지고 있다. 따라서 승가대 교육에 대한 관심은 교육의 중요성을 새삼 강조하지 않더라도 한국불교 청사진의 밑그림이 됨은 당연하다. 이에따라 승가대 교육의 문제점도 다양하게 지적되고 있다.

동국대 및 중앙승가대 선우도량 해인사승가대학이 마련한 각종 좌담회와 세미나 토론회 등에서 제기된 한결같은 문제점은 △현재의 교과목은 300여년전인 조선후기에 정착된 것으로 현대사회와 연관성이 떨어지며 △선불교 위주의 교과목 편성과 사회·역사의식을 개발할 외전과목의 부족 등 교과과정의 개발문제, 그리고 △한문불전에 대한 훈고학적인 문장해석 위주의 공부방법 △현대적 연구방법론을 배운 교수인원의 부족 등 여러가지를 꼽을 수 있다.

한편 이같은 문제점은 대중생활 속에서 익히는 단체수련과 조석예불, 발우공양, 어른스님 모시는 법도, 운력 등을 통한 승가공동체의 식의 함양이라는 장점을 고려하는 가운데 해결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별취재반〉

'논강법' 전통 살리며 내·외전 균형 맞춰야
행자교육 일관성 없어…수계 조건 강화 필요

불교 유통의 전문화 시대

1995. 송강 기획은?

송강 기획은 불음 보급자로서 겸허한 자세와 자부심을 견지하며 포교 불사의 원력을 키웁니다.

송강 기획은 오직 영상 및 음성 포교 자료만을 고집하며, 혼재된 불교 유통 관행을 답습하지 않기 위하여 전문 유통에 힘씁니다.

송강 기획은 양질의 포교 자료 제작에 협력하며, 제작자의 의욕을 고취하기 위하여 제작된 포교 자료의 신속한 보급에 정열을 바칩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의 성장과 즉적을 따르며 한 인간으로서의 80생을 조명하고 현존하는 성지와 유적지의 종교성과 역사적 기치를 추적하여 불교의 참뜻, 삶과 죽음의 본질 등 보다 크고 거룩한 부처님의 대자비심을 영상화한 정통 다큐멘터리.
VHS 60분 × 2장, 값 30,000원



경봉대선사 법어집

경봉스님의 시자였던 명정스님이 "노사의 법문을 정말하게 세 번 들으면 탄탄대로의 수행길만 열리는 것이 아니라 공부를 성취하여 대오철저한 분임은 사람이 될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권하신 경봉큰스님의 육성법문.
C60 × 10개입. 해제 책 1권, 친필 인쇄본 1매. 값 50,000원



산사의 향기

1,600년 한민족 불교 문화의 짙은 향기가 감돌는 명상 음악의 길이 있는 산물과 빼어난 영상으로 어울어진 한편의 감동시. '94 대한민국 영상 음반 대상 금등 비디오 대상, 금등 비디오 길록상 수상작.
VHS 50분 × 1장, 값 20,000원

사원 모집

경리직 : 여 1명 (경력 1~2년)
전화 상담직 : 여 1명 (경력 무관)

공통 사항 : 불자에 한함
제출 서류 : 자기 소개서 및 이력서 1통 (응시 분야 명기 요)

전형 방법 : 서류 심사 후 개별 면접 통보
전화 상담직은 실적급 임(식대 및 교통비 지급)

연락처 : 02) 745-6015/7
주 소 : 서울시 성북구 성북동 1가 69번지 2F

특 집 / 인재불사-불교중흥의 초석이다

스님박사들 · 불교대 출신들

인간실존에 대한 해답 추구

스님박사 29명 · 해외 취득 59% … 경전 · 교리연구 두드러져


◇ 서경보스님


◇ 이지관스님


◇ 채인환스님


◇ 이법산스님


◇ 김철인스님


◇ 전해주스님


◇ 한보광스님


◇ 윤호진스님


◇ 나지명스님


◇ 최현각스님


◇ 진본각스님


◇ 전종석스님


◇ 표도철스님


◇ 석자명스님


◇ 김진열스님


◇ 박종호스님


◇ 소진홍스님


◇ 김묘주스님


◇ 장계환스님


◇ 김혜법스님

불교정신을 현대사회에 접목시키고자 노력하는 박사스님들의 활동이 늘어나고 있다. 1969년 이후 박사학위를 취득한 스님 29명의 학위논문을 조사 분석한 결과 크게 세가지의 특징을 발견할 수 있었다.

첫째, 종교 및 사상은 시대성과 사회성을 지닌다. 따라서 최근에 이를수록 불교학을 연구하는 스님의 수가 급격히 증가(1969~1979:3편, 1980~1989:15편, 1990~1994:11편)하는데 이것은 사회의 정치적, 경제적 안정과 성장에 따른 것이라 볼 수 있다. 이는 불교학 발전을 위하여 매우 바람직한 현상이다.

둘째, 내용상으로 분류하면 역대고승의 저서 및 사상연구 8편, 불교사 3편, 종교간의 비교연구 2편, 경전 및 교리연구 10편, 인문과학과 연관된 불교연구 4편, 사회과학 내지 물리학 논문이 2편이다. 이는 불교교리 자체의 연구 뿐만 아니라 일반학문과 접목한 불교의 연구작업이 진행되고 있음을 말하는 것이다. 순수불교와 일반학문이 연결된 불교는 일견 서로 다른 흐름인 것 같으나 인간의 실존에 대한 궁극적 해답을 찾으려는 탐구와 시대가 변천함에 따라 다양하게 직면하게 되는 인류의 문제에 대한 허결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란 점에서 동일한 맥락에 속한다.

특기할 만한 사실은 한국에서의 학위취득율이 41%에 그쳐 해외진출이 두드러진다는 점이다. 이것은 스님들의 활동영역이 넓어지고 있으며 한국불교가 세계화되고 있다는 사실을 시사하는 것이다. 일본과 미국을 중심으로 한 외국에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불교연구의 성과가 한국불교학의 발전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학문의 연구는 문화의 발전을 촉진 시켰다. 동시에 찬란했던 불교문화의 이면에는 스님들의 치열한 교학연구가 있었다. 21세기 한국불교의 중흥을 준비하는 지금, 선조들의 전통과 승단의 규모에 비하면 불교를 현대적인 방법으로 연구하는 스님들의 숫자는 태부족임이 분명하다. 불교계의 개혁이나 중흥을 위해 보다 많은 스님들이 연구할 수 있도록 교계의 분위기가 무르익기를 기대한다.

박사스님들의 학위 논문

박사학위를 취득한 스님 29명의 개인 프로필을 법명 현직 학위취득학교 논문제목 취득연도 순으로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서경보스님(일붕선교종 종정)=미국 템플대학교 종교학과 철학박사, '조당집을 통해 접근한 한국 선불교의 연구'(1969)

▶채인환스님(동국대교수, 선학과)=일본 동경대학교 문학박사, '신라불교 계율 사상사 연구'(1975)

▶이지관스님(해인사 주지, 전 동대총장)=동국대학교 불교학과 철학박사, '남북전 육부율장 비교 연구'(1976)

▶김철인스님(숙명여대 강사, 전 동국대 승가학과 교수)=건국대학교 철학과 철학박사, '불교연기사상에 관한 연구-아환경을 중심으로'(1981)

▶윤호진스님(동국대 교수, 불교학)=프랑스 파리 소르본느대학교 철학과 종교학박사, '나선비구경에 있어서의 무아의 윤회문제'(1981)

▶한지현스님=미국 캘리포니아 골든 주립대학교 철학박사, '밀교승(Mantrayara)의 철학적 체계'(1984)

▶한보광스님(동국대 정각원장)=일본 경도불교대학 문학박사, '연수문하의 고려 수학승 연구'(1985),

▶이법산스님(동국대 교수, 선학과)=대만 문화대학교 철학과 철학박사, '보조지눌의 선사상 연구'(1985)

▶김혜법스님=동국대 행정대학원 법학박사, '북한 형법에 관한 연구'(1985)

▶소진홍스님(청룡사)=대만 문화대학 문학박사, '중국 격의불교 연구'(1986)

▶최현각스님(동국대 교수, 선학과)=동국대학교 불교학과 철학박사, '선의 실천철학 연구'(1986)

▶신법인스님(각원사)=일본대동문대학교 문학연구과 문학박사, '서산대사의 선가귀감에 대한 연구'(1987)

▶서법경스님(동국대 교수, 인도철학과)=프랑스 파리 소르본느대학교 철학박사, '신아함에 있어서 마라의 연구'(1987)

▶나지명스님(조계종총무원 기획실장)=미국 템플대 종교학과 철학박사, '천태의 불이사상 연구'(1988)

▶표도철스님(한국티베트불교회장)=미국 트리니티대학교 종교학박사, '불교와 기독교의 비교분석'(1988)

▶강혜원스님(동대선학과 강사)=동국대학교 철학박사, '북종신수의 선사상 연구'(1988)

▶전종석스님(중앙승가대 교수)=일본 대정대학 진언밀교과 불교학박사, '고려밀교와 원대 라마교와의 관계 연구'(1989)

▶정성본스님(중앙승가대 교수)=일본 고마자와대학 문학박사, '초기선종의 성립사 연구'(1989)

▶전해주스님(동국대교수, 불교학과)= 동국대학교 불교학과 철학박사, '신라 의상의 화엄교학 연구'(1990)

▶김진열스님(동국대선학과 강사)=동국대학교 철학박사, '능가경의 선사상(1992)'

▶진본각스님(중앙승가대 교수)=일본 고마자와대학 불교학박사, '화엄 관법 연구'(1992)

▶김묘주스님(미타사 금보암)=동국대학교 불교학과 철학박사, '유식학의 심식구조설에서 본 아동성격 심리의 논리적 고찰'(1992)

▶임승산스님(중앙승가대 학장, 불교복지학)=일본 경도불교대학, '한국재난구제사'(1992)

▶강청아스님(한마음선원)=미국 오하이오 주립대학 물리학박사, '우주초기에 붕괴되는 입자들에 대한 우주론적 제약들'(1992)

▶장계환스님(동국대 불교학과 강사)= 일본 경도 불교대학 '법장교학의 사상사적 연구'(1993)

▶권대원스님(동국대교수, 불교아동학)=숙명여자대학교 아동학과 '불전설화의 유아교육적 가치탐색'(1993)

▶서성우스님(동국대 불교학과 강사)= 동국대학교 불교학과 철학박사, '법화경 방편품에 관한 연구'(1993)

▶이자명스님=동국대학교 불교학과 철학박사, '한산의 시세계 연구-선문학적 입장에서'(1994)

▶박종호스님(동국대 선학과 강사)=동국대학교 선학과 철학박사, '임제의현의 선사상 연구'(1994)

■동국대 불교대학 졸업생 어디서 뭘 하나


◇동국대 불교대학 출신들의 상당수가 교계밖에서 활동하고 있다. 이는 '사람이 없다'는 불교계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숙고해야 할 문제점이다.

"상당수 교계 밖에서 활동"

포교사 · 교계언론등에 진출 … 증가추세 보여

종립 동국대학에서 불교학을 전공한 사람들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

의외로 불교학을 공부한 사람들이 불교계 밖에서 더 많은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같은 사실은 본지 특별취재반이 94년 12월 현재까지의 졸업생 사회진출 현황을 동국대 불교대학중 불교학과, 인도철학과의 동문주소록 및 졸업생들의 조언을 참고로 분석한 결과 드러났다.

조사에 의하면 동국대 불교대학 출신들의 교계 활동은 종단과 사회적 변화와 상당히 긴밀한 연관이 있다는 사실이 파악돼 주목되고 있다. 또 해가 갈수록 불교권 내에서 활동하는 수치가 조금씩 높아지고 있어 교계내의 인력 수급 폭이 넓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게 한다.

그러나 그 증가폭은 교계내에 형성되는 불교관련 업체의 증가폭과 긴밀한 관련을 보여 저조하다는 분석이 더 큰 타당성을 갖고 있어 불교학 전문인의 양성과 그들의 수용 사이에 괴리감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불교대학 출신들이 가장 많이 진출하는 분야는 교육계다. 그러나 이 분야의 증가폭은 70~80년대를 지나면서 매우 저조하다. 이는 교육부 차원의 교원채용기준의 변화와 학교수에 대한 교직 희망자의 폭발적인 증가 등 사회적 문제와도 무관하지 않을 것으로 분석된다. 종립학교의 경우도 계속적으로 양산되는 교직희망자를 받아들일 만큼 교법사의 수적 증가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교육계 진출 현황이 60년와 80년대에 큰 변화가 없다고 보는 것은 불교대학 출신의 교직 희망자들이 갈수록 높아지는 교육계 진출 문턱을 넘지 못한다는 점을 시사하는 것이다.

법사로 진출하는 졸업생의 수적 증가는 80년대 이후 그 폭을 현격히 높이고 있다. 이는 교계내에 다양한 사설 교양대학이 생겨난 것과 군법사의 수적 증가, 도심 포교당의 증가와 그에 따른 상임 포교인력의 필요성 대두 등에 기인한 것으로 풀이 된다. 법사로 진출한 졸업생이 70년대의 25명에서 80년대에는 41명으로 늘어났다. 이와 관련 90년대 전반기도 상당히 늘어났을 것이란게 동국대측의 분석이다. 동국대에 불교대학원이 개설되고 조계종 포교사 교육과 각 지역 포교사 양성기관의 확대 등 교계 내의 변화와 관련 동국대에서 불교를 전공한 사람들에게도 그만큼 문호가 넓게 열렸다는 것이다.

언론, 출판계로의 진출 분포도 약간씩 증가되고 있지만 큰 변화의 폭은 형성시키지 못하고 있다. 90년대 들어 교계내에 신문사가 줄이어 문을 열었고 불교방송국의 개국, 불교 텔리비전의 개국등 이 분야 진출의 폭이 넓어진 것을 감안하면 조사된 연대 이후에도 상당수의 진출현황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불교운동분야의 진출은 불교계 내에 형성된 각종 실천사업 그룹의 증가와 함께 계속적인 증가 추이를 보이고 있다. 이분야 역시 70년와 80년대간에 상당한 수적 증가를 보이고 있다. 이는 80년대에 형성된 각종 불교운동 단체들이 당시의 사회현상과 어우러지며 불교대학 출신들의 주목을 끌었음을 시사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같은 조사의 분석에서 나타난 흥미로운 사실은 교육, 언론, 출판, 법사, 불교운동 등 교계 내부로 진출한 졸업생 보다는 교계 밖으로 진출활동상황이 체크되지 않는 경우가 더 많다는 것이다. 10년 단위로 벌인 이번 조사에서 승가 구성원이 제외됐지만 재가 졸업생들 대부분이 교계 밖으로 진출했다는 것은 교계내에 일자리가 없다는 점을 부각시키는 대목인 셈이다. 이같은 진출의 문이 좁다는 요인 외에도 승가와 재가 사이에 놓인 괴리감이 작용한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즉 교계 내에서 재가자의 위치가 확고하게 자리잡혀 있지 않다는 것이다. 사부대중은 상호 보완적 차원에서 맡은 일을 수행함으로써 원활한 교단의 발전이 가능하다는 논리의 선 밖에는 언제나 승가 위주로 형성된 활동영역이 크게 자리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사회로 진출한 경우와 교계로 뛰어든 경우를 놓고 볼 때 생계와 관련한 수입의 격차도 매우 크다는 것이 불교 전공인의 탈불교화 현상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도 대두되고 있다.

불교계의 고질적인 문제 가운데 하나로 인재의 부족을 드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불교학을 전공한 인력마저 교계 진출을 망설이는 현실은 하루 속히 개선돼야할 불교계 전체의 과제로 남아 있다.

불교 인재의 양성과 적절한 수용, 이는 종단의 안정과 다양한 사업체의 조성 등 제반 요건이 갖춰지지 않는 한 조화를 이루기 어려운 숙제라는 것이 이번 조사에서 드러난 가장 큰 결론이다. 〈특별취재반〉

부처님의 자비 광명이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종 정 尹月下
예경실장 朴重來

원로회의 의 장 金慧庵
부의장 金僧讚
부의장 金圓潭
사무처장 朴惺法

총무원 원장 宋月珠

총무부장 金梵河
기획실장 羅之鳴
재무부장 朴元愚
문사부장 金時玄
사업부장 李雪松
호법부장 鄭慧昌
사서실장 朴平常

총무국장 姜性慧 기획국장 朴萬成
감사국장 金法眞 재무국장 李宗三
문화국장 車德信 사회국장 吳法光
사업국장 梁正滿 호법국장 朴正念
조사국장 趙弘冠 사서차장 張眞悟
상임감찰 千月佑 상임감찰 魏雨松
호법과장 金曉林 조사과장 朴雲光

중앙종회 의장 田雪靖
부의장 黃日面
부의장 李靑和
사무처장 金圓學

호계위원회 위원장 吳杲山

교육원 원장 金圓山
교육부장 鄭香寂
불교연구소장 宋德雲
총무국장 徐正門

포교원 원장 金正樂
포교부장 金圓慧
포교국장 金聖壽 연수국장 沈和庵

해방 50년 불교학 50년

특 집 / 인재불사-불교중흥의 초석이다

독자적 학풍 형성 … 사회문제 해결책 모색

인물 · 교단사에 치중 … 80년 이후 연평균 50편 발표

교리 · 포교론 등 연구 폭 넓혀야 … 종단지원 아쉬워

한국에서 현대적인 불교학 연구가 시작된 것은 언제일까. 정확하게 시기를 단정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동국대학교의 모체인 명진학교가 개교한 1906년 이후라 할 것이다. 개항과 함께 4대문 안에 승려들의 출입이 허락된 이후 불교계의 뜻있는 승려들은 현대식 불교교육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서울에 명진학교를 설립했다. 명진학교는 중앙학림, 혜화전문 등으로 교명을 변경하며 해방이 될 때까지 많은 불교계의 인재를 배출했다. 그러나 자체적으로 전문적인 불교학자를 양성할 정도는 아니었다. 따라서 보다 깊은 연구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일본이나 구라파로 유학을 떠나게 되었다.

당시 영국은 17세기 이래 인도를 식민지 경영하기 위해 인도의 문화와 사상을 정책적으로 연구했다. 특히 옥스퍼드대학 동양학부에서는 막스뮐러를 중심으로 팔리어와 산스크리트어를 연구했으며, 이 과정에서 많은 근본불교 경전들을 영어로 번역하여 서구에 소개했다. 일본은 이미 19세기 말엽부터 영국과 독일에 유학생을 파견하여 인도의 언어와 근본불교를 연구하게 했다. 여기서 공부한 사람들이 귀국하여 현대적인 불교학 연구의 기틀을 잡았으니 100여년 이상의 역사가 되는 것이다.

명진학교 개교

명진학교나 중앙불교전문학교, 혹은 혜화전문학교에서 수학한 승려들이 당시의 일본으로 유학하는 것은 당연한 일로 생각했다. 그것은 지리상의 여건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 식민지시대의 한국불교계는 많은 유학생을 외국에 보내어 선진 문물을 수용하고자 했다. 아쉽게도 그것은 해방 이후 비구와 대처의 다툼 속에서 불교사 발전에 크게 기여하지 못했지만 많게는 한 절에서 60여명을 유학 보낸 기록도 있다. 이러한 사람들이 해방 이후 한국불교학의 기초를 다진 것은 물론이다.

우선 한국의 불교학 연구가 어떻게 흘러 왔는가를 살펴보기 위하여 편의적으로 5단계로 구분하고 내용에 따라 세분했다. 〈도표참조〉

해방 이전에 발표된 불교관련 논문은 모두 10편이다. 이중에서 1930년에 김건곤씨가 잡지(조선)에 '대성원효의 일생'이란 논문을 발표한 것이 최초로 기록된다. 발표된 논문을 보면 역사와 인물탐구가 대부분인데 식민지 상황 아래서 민족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한 것이라 생각된다. 특기할 것은 30년대 후반부터 일본에 유학했던 정두석(전동대총장), 조명기(전동대총장) 등이 논문을 발표하고 있는 점이다. 1906년에 명진학교를 설립했으니까 30여년의 시간이 경과한 뒤에 전문 연구가가 나오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다.

1945년 민족의 염원인 해방이 되자 전국민은 조국의 갱신을 꿈꾸며, 높푸른 희망에 부풀게 되었다. 그러나 곧 정치적 혼란과 한국동란이 발생하여 전국토가 황폐화되기 시작했다. 이런 사정은 불교계에도 영향을 끼쳐 1950년 이전에 발표된 논문은 단 2편에 불과하며, 1955년까지 계산해도 7편을 넘지 않는다. 국내의 상황이 학문에 몰두할 여유를 주지 못했다는 사실을 암시하는 것이다. 화랑제도 등 민족의 자긍심을 심어줄 수 있는 역사관련 논문이 주종을 이루고 있는 점에서 해방 이후의 민족정신 개발과 관계가 깊다고 볼 수 있다.

1956년에는 동국대학교 대학원 불교학과에서 안계현이 최초의 석사학위를 취득하게 된다. 당시 불교학과는 백성욱, 조명기, 권상로, 김동화 등 쟁쟁한 학자들이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었다. 해방 이후 1960년까지 발표된 논문을 주제별로 분석해 보면 인물과 역사 연구에 집중해 있다. 한국불교사를 정립하기 위한 노력에서 기인한 것이라 볼 수 있다. 경전이나 교리에 관한 논문이 한편도 발표되지 않은 것은 전문불교학자의 부족이거나 여건이 성숙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교단사나 인물에 관한 연구가 많은 것은 한국 사학자들이 연구한 것도 포함시켰기 때문이다. 따라서 해방 이후 1950년대의 불교학 연구는 준비하는 시기라 보는 것이 적당할 것이다.

61년부터 70년까지 불교학연구의 출발기로 볼 수 있다. 특히 교단사와 관련된 논문은 전국 각 대학의 사학과에서 한국사의 일부로 연구되기 시작하므로 장족의 발전을 이룩하고 있다. 따라서 60년대 이후는 동국대학교의 불교학과를 중심으로 발표된 논문을 분석하여 연구의 경향을 살펴보는 것이 보다 정확하게 불교학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다. 60년대 불교학보에 발표된 논문을 주제별로 분류하면 경전과 교리에 관한 논문이 증가함을 알 수 있다. 반면에 교단사나 인물연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엷어지고 있는 것도 눈여겨 볼 수 있다. 동국대학교 대학원 불교학과에서 발표된 석사학위 논문 중에서는 1962년도에 김해동이 '인과론 연구'로 석사학위를 취득한 이래 14편의 교리 관련 논문이 발표된다. 교단사 연구 석사학위논문이 10편임을 감안한다면 연구의 경향이 달라졌음을 알 수 있다.

71년부터 80년까지 불교학보에 발표된 논문은 모두 89편이다. 주제별로 분류하면 인물과 교리, 경전에 대한 연구가 두드러짐을 알 수 있다. 연구 내용도 인도, 중국, 한국 등에 걸쳐 폭넓게 걸쳐 있다.

제 과학과의 접목

인물과 교단사에 관한 논문도 사상사나 사회사적인 측면에서 의례, 종파의 성립, 해외자료의 발굴 등에 집중하고 있다. 전문 연구가가 많아진 만큼 분야가 다양해진 것이라 생각된다. 또한 정부의 국학정립 시책과 연계하여 연구된 경향도 있다. 이 기간 중에 대학원 불교학과와 인도철학과에서 발표된 석사학위 논문은 51편 중에 41편이 교리나 경전에 관한 연구이다. 불교학 연구가 비로소 정착되어 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81년부터 92년까지는 불교학의 연구 논문이 양적 질적으로 높아지면서 분야도 매우 다양하게 나타난다. 이 기간에 불교학보에 발표된 논문이 130편이고, 여타의 기간에 발표된 것까지 감안하면 연평균 40-50편의 논문이 발표되고 있다. 바야흐로 도약기를 맞이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특히 80년 후반부터는 유럽, 미국, 대만 등에서 공부한 학자들이 귀국하므로서 연구방법이나 서술방식이 다채로워지고 있다. 또한 세계 각국에서 발표된 연구 논문이나 서적들이 수입되므로서 다양한 정보에 접할 수 있게 되었으며, 그로 인해 순수교리와 그것의 사회적 접목에 관한 논문들이 나오고 있다. 인권, 환경, 교육, 복지, 정치 등에 관한 불교적 해법을 제시하는 논문들이 점증하고 있는 것이다. 이 시기에 불교학보에 발표된 논문을 주제별로 분류하면 인물, 교단사, 경전, 교리 등이 주종을 이루고 있다. 교단사와 인물에 관한 논문은 80년 초반까지 정신문화연구원과 함께 국학을 정립하는 차원에서 연구에 매진한 결과라 본다. 경전이나 교리에 대한 연구도 문헌사학적인 일본의 학풍과 달리 논리적이고 종교의 본질을 검증하려는데 집중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문제를 접근하는 방식이나 인식의 태도가 한국 독자적인 학풍을 형성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한국불교학의 현대적 연구는 1906년부터 치면 90년이며, 불교와 관련된 논문이 발표된 1930년을 깃점으로 잡으면 65년에 불과하다. 그러나 본격적인 불교학 연구가 해방 이후에 시작된다고 본다면 길게잡아 50여년에 불과하다. 유럽이나 일본에 비해 상대적으로 짧은 기간이나 전문연구가의 숫적 열세에 비하면 장족의 발전을 했다고 말할 수 있다. 내용상으로도 매우 다양한 분야에 걸쳐 연구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렇지만 그간의 논문이 질적으로도 흡족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는가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이제는 그동안의 연구가 인물과 교단사에 치중되어 있는 점을 지양하고 근본교리나 사상개발에 매진해야 한다고 본다. 특히 21세기의 과제가 인간과 환경, 인간과 과학, 인간과 인간 사이의 자유 · 평화 · 화합의 문제라면 불교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개발하거나 인간의 존엄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사회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연구해야 할 것이다.

특히 21세기의 과제가 인간과 환경, 인간과 과학, 인간과 인간 사이의 자유 · 평화 · 화합의 문제라면 불교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개발하여 해결책을 제시하거나 인간의 존엄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사회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연구해야 할 것이다.

한국불교학의 숙제

한편 불교학자들의 신진대사가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도 꾸준히 연구해야 할 과제다. 한국의 불교학 연구는 어려운 시대에도 흔들리지 않고 강단을 지켜온 몇몇분의 희생적 노력의 산물이라 할 수도 있지만 학자의 저변확대에 등한히 함으로써 젊은 학자들의 양적 팽창이 매우 저조하고 학문의 매매춘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형편이다. 이것은 초종파적으로 관심과 투자를 아끼지 않을 때 해결될 수 있는 한국불교학의 숙제라 할 것이다. 또한 50여년의 기간 중에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를 진행했고 소기의 성과를 얻은 것도 사실이지만 이제는 불교학자들이 하지 않아도 일반 사학과에서 할 수 있는 교단사 관계 연구는 지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그러한 연구분야는 사학자들에게 일임하고 인도, 한국, 중국불교의 사상사나 교리발달, 교리해석, 포교방법론, 윤리학 등을 개발하는데 매진해야 할 필요성이 절증하고 있다. 이러한 몇가지 이외에도 끊임없이 사회현상을 분석하여 불교의 사회적 역할을 찾고자 할 때 사회의 변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실용적인 불교학 연구가 가능해지고 학문과 실질적인 종교생활이 이원화되는 현상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특별취재반〉

◇불교학 논문 발표현황 〈불교학보 기준 단위 · 편수〉

주제 / 연도	인물	교단사	경전	문학	교리	종파	예술	총계	비고
1930~44년 해방이전	2 (20%)	5 (50%)				2 (20%)	1 (10%)	10	81년판 현대 한국불교서적 총목록 참조
1945~60년	13 (25%)	25 (49%)		8 (16%)	1 (2%)		4 (8%)	51	
1963~70년	6 (14%)	8 (19%)	2 (5%)	6 (14%)	12 (29%)	1 (2%)	7 (17%)	42	불교학보
1971~80년	24 (27%)	13 (15%)	7 (8%)	6 (7%)	25 (28%)	6 (7%)	8 (9%)	89	
1981~92년	36 (28%)	28 (22%)	14 (16%)	1 (1%)	34 (26%)	6 (5%)	11 (8%)	130	


◇ 김동화박사


◇ 백성욱박사


◇ 권상노박사


◇ 조명기박사



◇불교대학에서 발간되고 있는 불교학 전문잡지. 불교학보는 전임강사 이상의 학자만 투고가 가능하며, 동국사상(1967년 창간)은 누구나 투고할 수 있다.

1995 이 기쁜 오늘, 부처님 자비 가득한 한해가 되길 빕니다.

한국불교태고종

종정 鄭寶城
사서실장 宋宗演

총무원장 朴瑞峰
부원장 崔慧草 李昤潭
총무부장 尹惹月 교무부장 柳旰潭
재무부장 鄭仁烘 사회부장 鄭大隱
규찰부장 李智性

종회의장 申碧山
부의장 朴印空 李雲山

사정원장 洪印谷
부원장 李白牛

서울시 성북구 성북동 292-1
☎ (02)745-2030~2
FAX (02)745-6364

대한불교천태종

종정 金道勇

총무원장 田雲德
총무부장 金道圓 교무부장 朴德水
교육부장 金國星 재무부장 南宮道載
사회부장 李門德 규정부장 邊春光
종정사서실장 朴法傳

종의회의장 尹德山
부의장 金國星 金吉斗

감사원장 朱正山
감사위원 趙珍德

참의원장 朴炯喆
간 사 李相來
금강불교대학학장 李載昌
구인사전문강원 金智福

충북 단양군 영춘면 백자리 132-1
☎ (0444) 423-7100~8
FAX (0444) 20-3399

대한불교진각종

총인 覺海

통리원장 智光
총무부장 一靜
재무부장 省超 재무국장 孝庵
홍교부장 碩峯 문화국장 悔淨
건설부장 于勝 공무국장 大慶

중앙교육원장 道欣
교법부장 炤明 교법국장 德一
교육국장 觀證

종의회의장 慶慧
부의장 法光 大安華 사무처장 惠正

사감원장 素庵
부의장 眞堂

서울시 성북구 하월곡동 22번지
☎ 913-0751~3, 913-0803~4
FAX 915-6032

대한불교법화종

종 정 문구암 대종사
원로의장 노금파 대종사
총무원장 김대호 대화상

원장사서실장 김덕진 의전부장 황해수
총무부장 장지연 포교원장 주운경
교무부장 옥대원 포교부장 이해암
재무부장 나황정 교육부장 박혜암
사회부장 박보광 종회의장 이각규
감찰부장 김상규 부 의 장 전병수
경호부장 김도안

서울시 성북구 삼선동1가 11-73번지
☎ (02) 762-2678, 764-2678

"불교입문 부모님 영향 50%
불음주계 지키기 가장 어려워"

국회의원불자 신행설문조사
〈본지 최초분석〉

우리나라 불자 국회의원들은 3개월에 한두번 이상은 꼭 사찰을 방문하며, 80.0%가 가정에 불상 등 불교상징물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불자의원들은 도덕성 회복 및 종단화합을 한국불교의 당면과제라고 지적했다.

이같은 결과는 현대불교신문이 95년 신년호 기획특집으로 실시한 '국회의원 불자신행 설문조사' 결과 밝혀졌다.

불자 국회의원들의 신행활동과 한국불교의 사회참여 및 당면과제, 조계종 개혁 등 불교 전반에 관한 질문이 제시된 이번 설문조사는 불자 국회의원들의 모임인 국회정각회원과 전 정각회원으로 구성된 국회정각동우회원 40명을 대상으로 지난 12월 6일부터 10일 동안 방문 및 우편조사 방법으로 실시됐다. 국회의원들을 대상으로 불교의식을 조사한 설문조사는 이번이 처음이다.

20%만 반야심경 외워

불자의원들은 보통 한두곳의 사찰을(57.5%) 정해놓고 다니며, 75.0%의 응답자가 3개월에 한두번 이상은 꼭 사찰을 찾았다. 사찰방문 횟수는 분기에 한두번이 40.0%, 월1회 27.5%, 주1회 및 반년에 한두번이 각각 7.5%의 순서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89년 한국갤럽조사연구소의 '한국인의 종교와 종교의식'에서 밝혀진 일반불자들의 분기별 사찰방문 횟수 38.0%보다 훨씬 높은 것이다.

또 법회 참석은 1년 평균 2.7회였으며, 10회 이상 참석한 불자는 7.5%로 나타났다. 배우자 및 동거가족의 종교는 81.3%가 불교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불자의원들의 65.0%가 사찰방문시 법당에 들어가 오체투지를 하며, 72.5%가 일주일에 1회 이상 금강경 법화경 천수경 관음경 화엄경 등의 경전을 독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일체유심조 중생제도 자비 색즉시공 보시 등의 가르침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시주는 80.0%가 갈 때마다 또는 자주하는 편이라고 답했으며, 집안에 보유하는 불구는 불단이 5.0%, 불상 27.5%, 불상사진 17.5%, 기타 상징물이 30.0%인 것으로 파악됐다.

참선을 가끔씩이라도 한다는 불자의원이 70.0%로, 불교를 통한 자기성찰의 시간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75.0%가 기도에 동참하고 있으며, 기도의 내용은 가정의 평안(32.5%), 소원성취(25.0%), 건강(7.5%), 선거문제(2.5%)의 순이었다.

불자의원들은 또 오계 가운데 가장 지키기 어려운 것으로 불음주(42.5%)와 불망어(15.0%)를 꼽아 우리나라 정치·선거문화의 단면을 보여주었다. 불살생과 불사음은 각각 7.5%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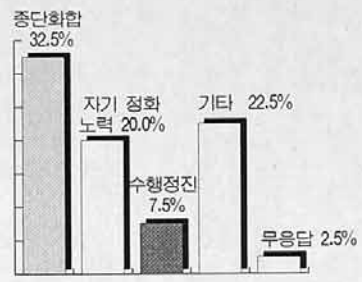
한편 선거 때 불자들이 지지해줄 것으로 믿느냐는 질문에 70.0%의 불자의원들이 그렇다고 답했으며(전폭지지 5.0%, 대체로 지지 30.0%, 가능하면 지지 15.0%, 다소간 영향 20.0%), 선거와 종교는 전혀 무관하다는 응답은 17.5%였다.

불자의원들은 주위의 권유나 영향보다는(32.5%) 스스로의 선택에 의해(65.0%) 불교인이 되었으며, 그 동기는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다는 교리' '마음의 안정' '산사의 분위기에 매료' '절에서 고시공부하던 중' 등 다양하게 나타났다. 불교인이 되는데 가장 큰 영향을 준 사람은 부모님(50.0%)이었으며, 선배 형제가 각2.5%, 기타가 12.5%였다.

선거시 불자들의 지지 여부



한국불교의 당면과제



"불교의 사회기여도 낮다" 63% … '호국' 좋은 전통

불자의원들이 존경하는 스님은 원효 성철 경봉 만해스님의 순이었으며, 이밖에 월산 서옹 일연 구산스님을 꼽았다.

한편 불자의원들의 불교입문 시기는 50.0%가 성인이 되기 이전이었으며(국교 이전 32.5%, 고등학교 10.0%, 중학교 7.5%), 사회인이 되고부터는 40.0%, 의원이 되고부터는 7.6%로 나타났다. 신앙기간은 1~5년이 5.0%, 6~10년 2.5%, 11~20년 7.5%, 20~30년 35.0%, 30년 이상이 47.5%였다.

불자의원들의 한국불교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는 대체로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철저한 해탈추구를 10점 만점, 오직 복을 비는 종교일 때는 0점으로 한국불교의 수준을 채점하라는 요구에 불자의원들의 45.0%가 5~6점, 4점 이하 22.5%, 7점 이상은 17.5%로, 평균 4.5점의 비교적 낮은 점수를 매겼다. 또 '한국불교가 인류구원의 희망'이라는 말에 동감하느냐는 질문에 54.5%만이 동감을 표시했으며, 35.0%가 그렇지 않다고 응답했다. 지난 9월 불자교수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같은 질문의 설문조사에서 불자교수들의 84.0%가 동의한 것과 상당한 견해차이를 보여 주목된다.

"스님 존경" 37.5%

이같은 원인은 승단에 대한 불신에 있는 것으로 추측되며, 실제 승단에 대한 존경도도 낮게 나타났다. 존경한다는 의원들은 37.5%에 그쳤으며, 그저그렇다 또는 존경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47.5%를 차지했다.

또 한국불교가 지금 역사적으로 어떤 상태에 있느냐는 물음에 대해서도 12.5%만이 중흥기라고 답했으며, 70.0%의 불자의원들이 쇠퇴기(15.0%) 소강국면(55.0%)이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불교의 사회기여도에 대해서도 62.5%의 불자의원들이 기여도가 낮다거나 그저그렇다고 답했으며, 크게 기여했다고 평가한 응답자는 27.5%에 머물렀다.

이에따라 불자의원들은 한국불교에 대해 자기정화와 수행정진을 통한 도덕성 회복(35.0%), 종단화합(32.5%), 지도력·조직력 강화(7.5%)를 내부적인 주요과제로 지적했다. 이와 함께 사회윤리와 가치관 정립(75.0%) 사회복지(7.5%) 등의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국불교를 '호국불교'라 부르는 것에 대해 불자의원들은 대체로(65.0%) 좋은 전통이라 보고 있으며, 과거의 전통이라거나 본분에 어긋난다는 의견은 20.0%로 나타났다. 이는 국가위기시 떨쳐일어섰던 승군들의 활동 등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이며, 아울러 국가발전에 불교가 자기 역할을 해야 한다는 바탕으로 풀이된다.

한편 조계종 새집행부가 추진할 개혁에 대해서 55.0%의 응답자가 성공가능성이 크다거나 성공을 확신한다고 보았으며, 12.5%만이 회의적이라고 답했다. 〈정성운 기자〉

설문내용·응답집계

◇불교입문 시기는 언제부터인가.
①국교이전 ……32.5%
②중학교 ……7.5%
③고등학교 ……10.0%
④사회진출후 ……40.0%
⑤의원이 되고부터 ……7.5%
⑥무응답 ……2.5%

◇신앙기간은 얼마나 되는가.
①1~5년 ……5.0%
②6~10년 ……2.5%
③11~20년 ……7.5%
④21~30년 ……35.0%
⑤30년 이상 ……47.5%
⑥무응답 ……2.5%

◇불교입문은 스스로의 선택에 의한 것인가.
①그렇다 ……65.0%
②타의 ……32.5%
③무응답 ……2.5%

◇불교입문에 영향을 준 사람은.
①아버지 ……20.0%
②어머니 ……30.0%
③형제 ……2.5%
④선배 ……2.5%
⑤기타 ……12.5%
⑥무응답 ……32.5%

◇자주 다니는 사찰은 몇 곳이나 되나.
①한 곳 ……32.5%
②두 곳 ……25.5%
③세 곳 ……17.5%
④네 곳 ……2.5%
⑤다섯 곳 이상 ……15.0%
⑥무응답 ……7.5%

◇사찰을 찾는 횟수는
①주1회 ……7.5%
②월1회 이상 ……27.5%
③분기에 한두번 ……40.0%
④반년에 한두번 ……10.0%
⑤1년에 한두번 ……7.5%
⑥무응답 ……7.5%

◇올해 법회에 참석한 횟수는.
①1~2회 ……87.5%
②3~5회 ……20.0%
③6~10회 ……10.0%
④10회 이상 ……7.5%
⑤무응답 ……35.0%

◇배우자의 종교도 불교인가.
①그렇다 ……87.5%
②무종교 또는 타종교 ……5.0%
③무응답 ……7.5%

◇동거중인 부모·자녀의 종교도 불교인가.
①그렇다 ……75.0%
②무종교 또는 타종교 ……10.0%
③무응답 ……15.0%

◇반야심경을 막힘없이 외울 수 있나.
①외울 수 있다 …… 20.0%
②여럿이 할 때는 윈다. ……52.5%
③못외운다 ……22.5%
④무응답 ……5.0%

◇경전 읽기는 어느 정도 하는가.
①하루 여러 차례 …… 5.0%
②하루 1회 …… 5.0%
③일주일 2~3회 …… 2.5%
④일주일 1회 ……15.0%
⑤가끔 생각할 때 ……57.5%
⑥하지 않는다 ……10.0%
⑦무응답 ……2.5%

◇사찰에 가면 꼭 시주하나.
①갈 때마다 매번 한다 …60.0%
②자주하는 편이다 ……27.5%
③어쩌다 가끔 ……12.5%

◇집안에 어떤 불구를 보유하고 있나.
①불단 ……5.0%
②불상 ……27.5%
③불상사진 ……17.5%
④기타상징물 ……30.0%
⑤무응답 ……20.0%

◇평소 참선을 자주 하는가.
①매일 한다 …… 5.0%
②틈나는대로 …… 25.0%
③어쩌다 가끔씩 …… 40.0%
④하지 않는다 ……15.0%
⑤무응답 ……15.0%

◇기도할 때 주로 어떤 내용으로 하나.
①건강 …… 7.5%
②선거문제 …… 2.5%
③가정의 평안 …… 32.5%
④소원성취 ……25.0%
⑤기타 …… 5.0%
⑥무응답 ……27.5%

◇오계 가운데 가장 지키기 어려운 계율은.
①불살생 …… 7.5%
②불사음 …… 7.5%
③불음주 ……42.5%
④불망어 ……15.0%
⑤무응답 ……27.5%

◇한국불교는 지금 역사적으로 어떤 상태라고 보는가.
①쇠퇴기 ……15.0%
②중흥기 ……12.5%
③소강국면 ……55.0%
④모르겠다 …… 7.5%
⑤무응답 ……10.0%

◇한국불교의 수준을 채점한다면, 몇 점을 주겠는가.(철저한 해탈추구를 10점, 오직 복을 비는 종교라고 생각한다면 0점)
①1~2점 ……5.0%
②3~4점 ……17.5%
③5~6점 ……45.0%
④7~8점 ……15.0%
⑤8~10점 ……2.5%
⑥무응답 ……15.0%

◇'한국불교는 인류구원의 희망'이라는 말에 동의하는가.
①전적으로 동감 ……12.5%
②대체로 동감 ……42.5%
③모르겠다 ……2.5%
④다소 과장된 것 같다 …30.0%
⑤지나친 과장이다 ……5.0%
⑥무응답 ……7.5%

◇한국불교가 당면한 과제는 무엇인가.
①종단의 화합 ……32.5%
②자기정화 노력 ……20.0%
③수행정진 ……15.0%
④지도력·조직력 강화 ….7.5%
⑤기타 ……22.5%
⑥무응답 …… 2.5%

◇한국불교를 '호국불교'라 부르는 것에 대한 견해는.
①불교 본분에 어긋난다 …2.5%
②과거의 전통일 뿐이다 ‥17.5%
③좋은 전통이므로 살려나가야 한다 …… 65.0%
④무응답 ……7.5%

◇조계종 새집행부가 개혁을 완수할 것으로 보는가.
①성공을 확신한다 …… 5.0%
②성공가능성이 크다 ……50.0%
③반반이다 ……15.0%
④회의적이다 …… 12.5%
⑤무응답 …… 17.5%

◇승단에 대해 솔직한 심정을 밝힌다면.
①대체로 존경 ……37.5%
②그저그렇다 …… 35.0%
③존경보다는 회의가 앞선다 ……10.0%
④존경심과는 거리가 멀다 2.5%
⑤무응답 ……15.0%

◇성수대교 붕괴사건과 관련, 청와대불상을 치워서 그런 것이라는 풍문이 돌았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①일면 수긍이 가는 풍문다 …15.0%
②누군가의 의도적인 풍문다 ·20.0%
③그런 소문이 퍼지는 사회풍토에 문제있다 …… 27.5%
④일고의 가치도 없는 풍문이다 ……20.0%
⑤무응답 ……17.5%

◇선거시 불자들이 불자후보라고 지지할 것으로 믿는가.
①전폭적으로 지지할 것이다 · …… 5.0%
②대체로 지지 ……30.0%
③가능하다면 지지할 것이다 …… 15.0%
④다소간 영향을 미칠 것이다 · …… 20.0%
⑤선거와 종교는 무관 ….17.5%
⑥무응답 ……12.5%

◇불교가 역점을 두고 노력해야 할 분야는.
①경제정의 …… 5.0%
②사회복지 …… 7.5%
③사회윤리·가치관 정립 · 75.0%
④환경보전 …… 2.5%
⑤무응답 …… 10.0%

◇한국불교는 해방 이후 우리사회에 얼마나 기여했다고 보는가.
①크게 기여했다 …… 27.5%
②그저그렇다 ……40.0%
③기여도가 낮다 ……17.5%
④기여하지 못했다 ……5.0%
⑤무응답 ……10.0%

◇불교의 사회참여 활동에 만족하는가.
①그런대로 만족 ……20.0%
②그저그렇다 …… 42.5%
③대체로 불만 …… 25.0%
④무응답 ……12.5%

1995 새해아침 이 기쁜 오늘, 부처님 자비 가득한 한해가 되길 빕니다.

재단법인
대한불교 관음종
종정 金大天
사서 金性眞
원로원장 李慧雄
위 원 金明宇 張暎月 金惡月 申鏡峯 趙慧鏡 朴宗雄 朴三愚
총무원장 李泓波
총무부장 金智攝 교무부장 黃法明 재무부장 金鎭徹
사회부장 金性哲 감찰부장 金和服 조직부장 李宗炫
포교부장 鄭法性 종무부장 全曉華
종회의장 鄭法輪
부의장 申無本 鄭春潭
교육원장 金東靈
수교부장 洪智默 독경부장 吳慧圓
서울시 종로구 숭인동 178-3
☎ (02)763-3109, 3345
FAX (02)763-5851

불교총지종
종령 祿靜
통리원장 曉岡
총무부장 圓蜂
재무부장 法成
사회부장 慧菴
교정부장 四弘花
중앙종의회 의장 松霞
부의장 愚勝
사감원장 總持花
재단법인 사무국장 知性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776-2
☎ (02)552-1080~3
FAX (02)552-1082

공익법인
대한불교 화엄종
종정 韓龜河
의장 鄭熙秀
재단법인
화엄승가장학재단
공익법인
대한불교 화엄종 장학회
인천직할시 남동구 간석 3동 산 21
☎ (032)422-2066~7
FAX (032)422-0413
서울사무소 (02)730-0798~9

대한불교 삼론종
종정 대산혜능
부종정 능봉용운
승정원장 월봉기원
총무원장 지강만청
종회의장 혜공재선
사정원장 각화청암
교육원장 대진영담
문화원장 대월법흥
교리연구원장 김인덕 교수
■총무원 : 충북 중주시 교현2동 539-21
☎ (0441)43-3000, 44-3000
FAX (0441)845-5150

'95 미술의 해

내실 다지며 영역확대 발판 구축

불미협등 대형 세미나 계획 … 개인 · 그룹전 활기 기대

불교미술계 어떤 준비하나

미술의 해를 맞아 불교미술계가 신년벽두부터 바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는 문화체육부가 정한 「미술의 해」를 관 주도 행사로만 지켜 볼 것이 아니라 불교 미술의 영역확대와 질적 성장을 꾀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불교미술계의 의욕을 보여주는 것이다.

한국불교미술인협회와 한국불교미술협회, 동국불교미술인회는 이미 미술의 해를 맞아 불교미술관련 세미나를 공동주최키로 하고 준비위원회를 구성했다. 세 단체의 공동세미나는 불교미술의 저변확대와 내적 발전방향의 모색등에 촛점이 맞춰질 것이란게 관계자들의 얘기다.

이를 위해 준비위는 미술사학과 평론계의 인사와 현재 활동중인 작가들이 함께 참여하는 대규모 세미나를 마련한다는 기본 방침아래 준비작업을 하고 있다. 한 관계자는 불교미술의 전통계승과 현대화에 대한 현실적인 문제도 깊게 논의될 것이라고 밝히고 있어 세미나의 폭이 상당히 넓을 것을 시사했다. 준비위는 봄에 열릴 이 세미나의 구체적인 계획 수립을 위해 다양한 아이디어들을 내놓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같은 단체에 의한 행사 외에 작가들의 개인전도 어느해보다 왕성할 것으로 전망된다. 교계 일각에서는 지난해 봄과 가을에 50여회의 불교관련 전시회가 개최된 점을 주목, 오히려 미술의 해에 불교미술계의 개인전은 적을 것 같다는 분석도 내놓고 있다. 그러나 불교미술에 큰 관심을 가지고 활동하는 작가들이 많고 젊은층의 의욕이 높다는 측면에서 볼 때 오히려 일반 미술계의 상승되는 분위기 만큼이나 불교미술 작품전도 활발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인사동 화랑가의 경우 이미 대부분의 화랑이 대관계약이 밀리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중 불교관련 전시 계획도 많이 포함됐다는 것이 화랑 관계자들의 귀띔이다.

한국불교미술인협회의 경우 지난해 가을에 창립전을 가졌으나 올해는 초파일을 전후해 회화, 조각, 공예, 사진 등 각 분야 회원 70여명 대개가 작품을 내놓는 대규모 전시회를 계획하고 있다. 또 동국불교미술인회, 한국불교미술협회, 경주의 동국불교미술작가협회등 단체들도 대규모 전시회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특히 불교미술인들에게 취약점으로 비춰져 온 소그룹전도 금년에는 활발히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서울과 경주, 부산, 광주등에는 활동이 중지된 소그룹들이 각각 2~4개씩 있으며 이 그룹에 소속된 작가들은 미술의 해를 그룹 재기의 기회로 삼을 것이란 관측이 유력하다.

또한 한국불교미술인회 회장을 맡고 있는 전영화교수는 미국, 일본등지에서 초대전을 가질 계획을 세우고 있으며 몇몇 중견 작가들도 불교미술의 해의 전시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따라서 올해는 불교미술계의 해외 나들이 바람도 신선하게 불어 올 것으로 전망된다.

조각가 진철문씨는 "미술의 해에 불교미술계의 커다란 변화가 오길 바란다"며 "한국 미술의 압권인 불교미술이 종교라는 영역 속에 파묻혀 가는 현실을 과감히 탈피하고 한국과 동양의 미술사를 이끌어 가는 주역이 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 미술의 해는 불교 미술계에 커다란 의미가 있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임연태 기자〉



◇ 계룡산 소림원에서 발견된 김복진씨의 유일한 유작 미륵불상.

김복진 유작 '미륵상' 처음 발견

윤범모씨, 공주 소림원서

한국 근대조각의 선구자 김복진(1901~1940)의 유작이 발견됐다.

최근 미술평론가 윤범모(한국근대미술사학회장)씨는 충남 공주군 계룡면 양화리에 소재한 소림원(少林院)에서 불신(佛身) 높이 1미터의 김복진 유작 불상을 확인했다.

김제 금산사의 대불(大佛)의 모형으로 추정되는 이 불상은 1936년 김복진의 조선미전 입선작과도 흡사한 것으로 당시 제작됐던 모형중 하나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소림원 주지 봉래스님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이 불상은 봉래스님의 스승인 원호스님이 일제때 직접 봉안한 것으로 당시 불상 재료로 사용되지 않던 석고로 제작된 점이 주목을 끈다.

한국인 최초로 근대조각 교육을 받고 1920, 30년대 조각활동과 함께 제자를 길러내 한국 조각의 정초를 세운 김복진은 조선미전 출품작 나체습작(1925), 불상습작(1936)을 비롯 최소한 40여점의 작품을 남긴 것으로 알려졌으나 그동안 단 한점의 작품도 발견되지 않았었다.

김복진은 1920년 동경미술학교 조각과에 입학, 본격적인 근대조각가로서 왕성한 작품활동을 펼치면서 금산사, 법주사 등의 불상제작을 맡는 인연을 쌓기도 했다.

▨미술의 해 조직위 연간 사업계획

기획전 · 특별행사 다채 … 전국서 157건

우표 발행 · 해방 50주년 관련 축제도

「'95 미술의 해」 사업계획이 확정 발표됐다.

157건에 걸쳐 다양하게 준비된 사업들은 미술의 해 조직위원회(위원장 이대원 예술원회장)가 수립하고 집행위원회(위원장 박광진 한국미술협회 이사장)에 의해 추진된다.

「미술의 해」 관련 사업은 중앙에서 학술사업 4개 행사, 미술관계법과 제도개정 및 개정사업 3개 행사, 이벤트사업 9개 행사, 전시사업 16개 행사 등 32건이다. 또 충청남북도 21개 행사, 광주직할시 전라남북도 12개 행사, 부산직할시 대전직할시 4개 행사 등 지역에서 125개, 모두 157건의 사업이 펼쳐진다.

이 행사들은 1월16일 오전11시 세종문화회관 소강당에서의 선포식에 이어 차례대로 전개된다. 이날 개막식에서는 선포식 이후 동양화, 서양화, 조각, 공예, 서예 분야의 근현대 작고작가중 12인을 선정 작품세계를 재조명한 영화를 상영한다.

이어 2월28일부터 3일간 진행될 「미술의 해」 개막행사는 천안삼거리공원, 병천아우내장터, 병천산성공원, 류관순열사 광장에서 광복 50주년 및 3·1정신 계승을 위한 미술행불 대제전이 개최된다.

전시사업으로는 한국 현대미술의 현주소를 보여줄 '한국미술 30인전' '오늘의 한국미술전'이 7월 예술의 전당 한가람 미술관, 11월 파리시립미술관에서 각각 초대전 형식으로 열린다. 조직위는 이들 전시회를 계기로 각국에 거주하는 한민족 작가들의 작품을 초대하는 등시에 한민족의 슬기와 지혜가 담긴 문화적 얼을 펼쳐 보이겠다는 야심찬 계획이다.

또 이태리 베니스날레 한국관 개관기념 '이태리 현대미술전'을 11월중 국립현대미술관에서 갖고, 문예진흥원이 주관하는 '한·중 수묵화교류전'이 5월 문예진흥원 미술회관에서, '서울판화 미술제'가 3월~4월 예술의 전당에 기획된다.

이밖에도 3~4월 '올해의 작가전' 7월 '한국미술의 모습전' 8월 '전국휘호대회' 7~8월 '쟈코메티 작품전' 8~9월 '한국미술95' 9월 '전국화랑 미술제'와 '작은 그림전'이, 10월에는 '전국 공예품 디자인 개발전시 및 워크샵' 등 미술계 전반에 걸친 문화행사가 열린다. 이상 32건의 전시행사는 미술의 대중화와 저변화에 한발 적극적으로 나서는 계기가 될 것이란게 관계자들의 얘기다.

학술행사로는 4·10월 2차례에 걸친 '미술의 해 세미나'와 8월 '미술강연회' 12월 '국제심포지엄'을 계획했다. 그리고 연차적으로 전개될 '미술책자 발간' 또한 10월에 추진된다.

조직위는 특히 「미술의 해」를 뜻깊고 오래 기억토록 하기 위해 11건의 이벤트사업도 수립하고 있다. 가장 관심을 모으고 있는 사업은 미술의 해 기념우표 발행이다. 미술의 해 로고와 월별작가의 작품을 우표화할 것으로 체신부와 협의중에 있다. 이외에도 미술정보센타 설립, 영상아트 국토미화계획, 유명미술인과 패션디자이너의 연계패션쇼 등 이벤트사업 도 펼쳐진다.

이대원 조직위원장은 "한국미술의 독자성과 전통성을 살려 민족적사업으로 전개해 나갈 방침입니다. 미술의 해 표어처럼 '아름다운 마음, 아름다운 생활'을 만드는 원년이 되는데 앞장서겠습니다"고 말하고 "미술의 대중화를 위해 실용적이고 생활화하는 방안을 계속 모색중"이라고 밝혔다.

〈도필선 기자〉

미술의 해에 바란다



문 명 대
〈동국대 교수〉

미술의 해를 맞이하여 갖가지 행사들이 개최될 전망이다. 국제적인 미술대전과 함께 국내의 각종 미술전들이 기획되어 있고, 여러 언론기관에서도 기획기사들을 준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가에서도 역대 미술인들을 월별로 선정하는 등 각종 행사들을 주관 또는 지원하도록 할 방침이다.

제도적 발전토대 필요

그런데 불교계에서는 내가 과문한 탓인지 몰라도 눈에 띄는 계획들이 준비되어 있다는 얘기는 들어보지 못한 것 같다. 다만 동국대 불교미술문화재연구소와 한국불교미술협회가 공동으로 미술의 해를 기념으로 한 불교미술전을 개최하도록 되어 있고 이와 아울러 현대불교미술에 대한 세미나를 준비하고 있는 정도가 뚜렷한 계획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일부 불교신문에서 불교미술특집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다만 총무원 단위의 행사가 기획되어 있지 못한 것이 아쉬운 점이라 할까. 오랜 숙원이던 문화사회부(文化社會部)가 신설되어 큰 기대를 걸고 있는데 미술의 해에 어떤 구상을 기획하고 있는지 궁금할 따름이다.

문화사회부에서는 불교미술전이나 장단기적인 미술정책 또는 문화재의 보존관리문제 등에 대한 구체적이면서도 실현가능한 과제를 제시하고 해답을 구하도록 하는 작업을 서둘러야 할 단계가 아닌가 한다. 현대불교미술정책에서 먼저 고려되어야 할 사항은 첫째 종단의 장·단기정책을 확고히 정립하는 일이다. 정책을 개발하는 소위원회가 있고 이를 최종적으로 검토하는 위원회가 있어서 치밀하고 체계적인 연구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가령 사원의 제도와 양식을 원리적으로 제정하는 소위원회 등이 있어서 외양만 보아도 불교사원이라는 것을 선뜻 구별할 수 있도록 하는 상징물을 정해야 하고 내부공간도 독특한 불교식에 현대성도 가미하는 제도등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런 위원회는 명실상부하게 사계의 전문가로 구성해야 성공할 수 있으며, 유명무실해지지 않을 것이다. 그 대신 위원회는 교계의 중진으로 구성하여 서로 토론을 거쳐 종단의 기본정책이 정해지는 제도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말이다. 이러한 위원회는 분야별로 두되 서로 유대를 가질 수 있도록 치밀하게 짜야할 뿐더러 위원도 엄선해 선정해야 할 것이다.

인재 양성 · 활용하자

둘째 현대불교미술의 활성화 방안이 새해에는 반드시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램이다. 불교미술대전이 격년제로 실시되고 있는데 아직도 현대불교미술의 방향이 정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소위원회에서 현대미술의 이념·정의·방향등 기본원칙을 정해야 하며, 인재양성에도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매년 형식적인 전시회를 개최한다해서 현대미술의 방향이 설정되는 것도 아니며, 인재가 발굴되는 것도 아니고 활성화가 이루지는 것도 아니다. 철저한 교육과 교육된 인재들의 활용방안이 마련되어야 하며, 무엇보다도 이에 대한 지원과 배려가 필요한 것이다. 이와 함께 전시회등을 개최하여 서로간에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여 발전하도록 할 때 비로소 참다운 현대불교미술이 정착될 것이다. 지금처럼 계속 방치할 경우 무불교성(無佛敎性)·무국적(無國籍)·무아름다움(無美意識)이 판치는 치졸한 작품들만 전사찰에 가득해 질 것이다. 이른바 세계 어디 내놓아도 뛰어난 국제적·세련미를 갖춘 한국의 불교미술이 창조되는 기틀이 기필코 마련되었으면 한다.

성보관리의 대계 세워야

끝으로 새해에는 종단의 문화재(聖寶文化財) 보존 보수방안의 모색이 활발히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램이다. 우리나라 문화재의 거의 대부분이 불교문화재 이른바 성보(聖寶)라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다. 그런데 이를 보존하고 보수하는 전담기구가 전무할 뿐더러 기본정책을 수립하는 위원회 하나 구성되어 있지 못한 것은 변명의 여지조차 없다. 의지만 있어도 되는 쉬운 일조차 방치하고 있는 실정이었는데 이제 문화사회부가 신설되었으므로 기대해도 좋을런지 모르겠다. 이 역시 하루빨리 위원회가 구성되어 기본 정책이 수립, 정부에 일임하는 정책에서 과감히 탈피하는 용단이 필요하다.

이것은 이제 도둑맞고 파손되고 숨기는 소극적 미봉책에서 불교선양에 활용하는 적극적인 정책으로의 일대 전환을 뜻하는 것이기도 하다.

1995 새해 아침 이 기쁜 오늘, 부처님 자비 가득한 한해가 되길 빕니다.

사단법인
한국불교종단협의회

회 장	대한불교 조계종	총무원장	宋月珠	이 사	불 교	총지종	통리원장 安曉岡
부회장	한국불교 태고종	총무원장	朴瑞峰	이 사	대한불교	원융종	총무원장 裵一空
부회장	대한불교 천태종	총무원장	田雲德	이 사	대한불교	본원종	총무원장 李大和
부회장	대한불교 진각종	통리원장	崔智光	이 사	대한불교	삼론종	총무원장
사무총장	대한불교 관음종	총무원장	李泓波	이 사	대한불교	조동종	총무원장 尹智明
이 사	대한불교 법화종	총무원장	金大虎	이 사	한국불교	여래종	총무원장 金法佑
이 사	대한불교 원효종	총무원장	薛大雲	이 사	대한불교	미타종	총무원장 辛勉官
이 사	대한불교 총화종	총무원장	金法隱	이 사	대한불교	열반종	총무원장 金海谷
이 사	대한불교 일승종	총무원장	金慧定	이 사	대한불교	대승종	총무원장 鄭法勝
이 사	대한불교 보문종	총무원장	鄭慧日	이 사	대한불교	일붕선교종	총무원장 玄鼎海
이 사	대한불교 진언종	종리원장	李泰玉	이 사	보국불교	염불종	총무원장 李晴蜂
이 사	한국불교 법화종	총무원장	金光泰	이 사	대한불교	정토종	총무원장 尹 玉
이 사	대한불교 법상종	총무원장	鄭法輪				
이 사	대한불교 화엄종	의 장	鄭熙秀				
이 사	대한불교 용화종	총무원장	李法德				
이 사	대한불교 미륵종	총무원장	金明谷				
이 사	천 화 불 교	교 정	李喜秀				
이 사	한국불교 법륜종	총무원장	鄭一華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46-19 원당빌딩 4층
대표전화 : (02)732-4885, FAX : (02)737-7872

대한불교조계종 제6교구본사
마 곡 사
주지 철웅
본 · 말사 대중일동
충남 공주군 사곡면 운암리 567
☎ (0416)841-6221

대한불교조계종 제9교구본사
동 화 사
조실 진제
회주 무공
본 · 말사 대중일동
대구시 동구 도학동 35
☎ (053) 982-01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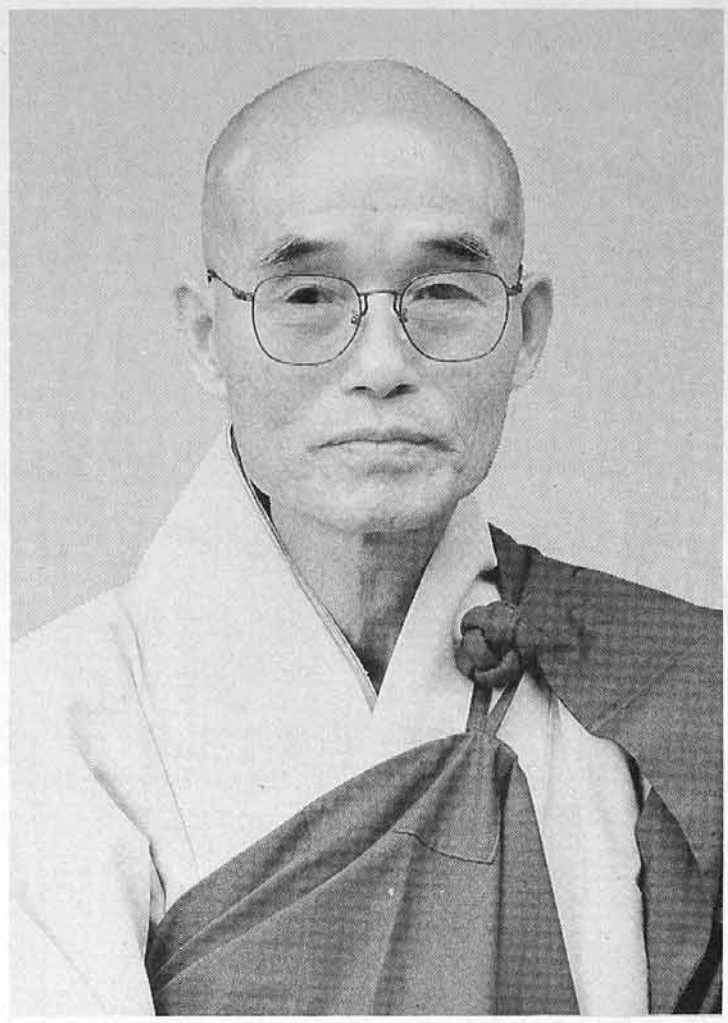
대한불교조계종 제8교구본사
직 지 사
조실 관응
회주 녹원
본 · 말사 대중일동
경북 금릉군 대항면 운수동 216
☎ (0547)436-6174

대한불교조계종 제25교구본사
봉 선 사
조실 운경
회주 월운
본 · 말사 대중일동
경기도 남양주군 진접읍 부평리 255
☎ (0346) 68-1951

새 아침 지상 법석

"남을 즐겁게 하는 새 삶을 시작하자"

혜암 스님
<해인사 방장>



새해에는 첫째로 자기 직장에 사명감을 갖고 충실하고 둘째는 남을 위해서 단결, 화합해 남을 기쁘고 즐겁게 만들어 주고 셋째는 합리적으로 이치에 맞게 살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럼 다 지상낙원, 인간 극락세계가 되는 것입니다.

자기일 잘하는 사람이 남의 일도 잘 돌봐
신용은 돈보다 큰 재산 … 건강은 더 소중

새해를 맞이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만 사실 평소와 다를게 뭐 있겠습니까? 인간 사는 것이 다 똑같지요. 알고보면 흥하고 망하고 하는 것이 다른데 있지 않아요. 녀한테 있는 것도 나한테 있는 것도 아니에요. 순전히 우리 마음을 모르는데 있어요. 우리 마음만 알면 무엇이든 잘 됩니다. 안으로 밖으로 안될 일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 마음을 모르니까 이렇게 걱정 근심 재앙이 자꾸 생기지요. 개인이나 가정이나 국가나 마찬가지죠. 국가의 대형사고가 금년에 얼마나 많이 났어요. 알 수 없는 일은 세상사이고 뜻대로 안되는 것도 세상사인데 무얼 어떻게 잘 되길 바라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지금 직장에 대해 충실하고 집안을 위하고 이웃을 위하고 단체의 단결, 화합만 되면 나라도 단체도 집안도 개인도 모두 잘돼요.

새해를 맞는 마음

개인도 눈 코 귀 입이 화합만 되면 탈이 안나요. 눈은 눈대로 코는 코대로 귀는 귀대로 욕심을 부려서 병도 나고 근심도 생기는 것이지 화합만 하면 아무 일도 없이 잘 됩니다.

나라 일이나 하늘 땅 일이나 우리 몸뚱이나 똑같아요. 조금도 틀리지 않습니다. 자기 일 잘하는 사람은 다른 일도 다 잘 합니다. 자기 일도 못하는 사람이 남을 어떻게 가르치고 도와주겠습니까?

우리 몸뚱이가 하늘이고 땅입니다. 단결 화합하고 어디가든 기쁘고 즐겁게 살아요. 다른 사람 애먹이지 말고. 나도 해롭고 남도 해로운 짓을 뭐하려고 합니까. 짧은 시간에 남도 도우면서 멋있게 살지, 우리가 엄마 산다고 남을 해치고 살아야 하겠습니까? 단결, 화합하고 즐겁게 삽시다. 남 즐겁게 해서 내가 손해날 일이 뭐 있겠습니까? 가는데 마다 그런 생각을 내야 합니다.

그리고 이치에 맞도록 그 법을 어기지 말고 합리적으로 삽시다. 이 몸뚱이를 이치에 맞도록 안해 주니까 배탈도 나고 병도 들고 하는 겁니다.

새해를 맞이해 작년에는 되는대로 살았지만 금년에는 아주 정신을 차려서 남을 기쁘게 도와주고 살아야겠다는 생각, 새해를 맞이할 때는 그런 결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작년하고 달리 살아야겠다는 생각말입니다.

작년에는 죄만 짓고 할 일도 못하고 살았으니 올해는 나를 버리고 남을 위해 살아야겠다는 달라짐이 있어야 새해를 맞는 보람이 있는 것이지 항상 살던 대로 살면 나이 먹은 값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새해에는 첫째로 자기 직장에 사명감을 갖고 충실하고 둘째는 남을 위해서 단결, 화합해 남을 기쁘고 즐겁게 만들어 주고 셋째는 합리적으로 이치에 맞게 살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럼 다 지상낙원, 인간 극락세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선(禪)과 정(定)을 얘기하곤 합니다. 어떤 것을 禪(선)이라 하며 어떤 것을 定(정)이라 합니까. 망념이 일어나지 아니함이 선이요 앉아서 본성을 보는 것이 정입니다. 본성이란 무생심(無生心)이요, 정이란 경계를 대함에 무심하여 팔풍(八風)에 움직이지 아니함입니다. 팔풍이란 이로움과 손실 헐뜯음과 좋은 평판 칭찬함과 비난함 괴로움 즐거움을 말하는 것입니다.

만약 이와 같이 정(定)을 얻은 사람은 비록 범부라고 하더라도 부처님 지위에 들어간다고 하셨으니 이와같이 얻은 사람을 해탈했다고 하며 또 피안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이는 육도(六度)를 뛰어넘고 삼계(三界)를 벗어난 대력보살(大力菩薩)이며 무량역존(無量力尊)이니 대장부인 것입니다. 망념이 일어나지 아니한다고 하는 것은 흔히 말하는 분별육식(分別六識)뿐만 아니라 제팔아뢰야식의 미세망념(微細妄念)까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제팔식은 끊어졌으나 제팔아뢰야식이 남아 있으면 선이 아닙니다. 미세망념이 모두 끊어지면 망념의 구름이 걷히고 진여자성인 지혜의 해가 드러나서 자기 본성을 보지 않을래야 보지 않을 수 없으니 이것이 곧 돈오(頓悟)이며 해탈이며 성불입니다.

해와 달이 뜨고 져도

본성이란 제팔아뢰야식의 무기심(無記心)의 무생심(無生心)이 아니고 제팔아뢰야식의 무기심의 무명(無明)까지 완전히 끊어진 진여본성이 본래의 구경 무생심입니다. 따라서 이것을 보는 것이 본성을 보는 것이며 불성을 보는 것입니다. 망상이 일어나지 아니한 것이 무생심이며 본성이므로 표현은 다르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은 똑같습니다. 정(定)이란 모든 경계를 대할 때 무심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일체 망념이 일어나지 아니하고 진여본성이 드러나서 대무심지(大無心地)가 현전하여 행왕좌와(行往坐臥)와 어묵동정(語默動靜)뿐만 아니라 자나 깨나 미래겁이 다하도록 경계에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나를 이롭게 하거나 해롭게 하거나 헐뜯거나 좋다거나 칭찬하거나 비난 하거나 괴롭거나 즐겁거나 하는 팔풍이 거세게 불어닥친다 해도 여기에 움직이지 아니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본성을 바로 깨쳐서 망념이 다 떨어지고 무생법인(無生法忍)을 증득해서 일체처(一切處)에 무심이 되는 것이니 이런 사람은 설사 겉보기에는 범부같이 보이지만 구경각(究竟覺)을 성취한 부처님의 지위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범부라고 하는 것은 꼭 사람만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팔세용녀가 성불하듯이 남자든 여자든 축생이든 무엇이든지간에 무생법인을 증득하면 모두 부처인 것입니다. 그 이유로서 보살계경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보살계경에서 말하는 부처님 계라고 하는 것은 고기를 먹지 말라 술을 먹지 말라 는 등의 무엇을 하지 말라는 명상(名相)에 의지해서 계첩을 받거나 말 몇마디 듣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진여자성계(眞如自性戒)를 받아서 자성을 바로 깨칠 것 같으면 이것이 부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대중들은 이런 법문을 많이 듣고 바로 실천하여서 공부를 성취해야지 만약 그렇지 않고 말로만 듣고 귓전으로 흘려보내 버린다면 도리어 듣지 않는 것만 못한 것이니 화두를 부지런히 들어 하루빨리 깨달아 일이없는 도인이 됩시다.

삼세고금수시친(三世古今誰是親)가 담연일물본래진(湛然一物本來眞)이라. 개화낙엽근유일(開花落葉根唯一)이요 일월거래절왕환(日月去來絕往還)이로다.

삼세고금에 어떤 것이 참 나인가 청정한 한 물건이 본래 나일세. 꽃피고 잎지나 그 뿌리는 하나요 해와 달이 뜨고 져도 가고 옴이 없도다.

어떤 것이 참 나인가, 내가 누구냐? 이것은 내가 아니요. 이 세상 돌아온 세상 어떤 것이 나인가 말이요. 번뇌망상이 없는 청정한 물건이 본래 나일세. 작은 생각, 옳은 생각, 그른 생각 이런 생각은 내가 아니요, 참으로 나라는 것은 한 생각, 아무 생각도 일어나기 전에 따로 있어요.

그래서 눈깜짝할 사이라도 나를 찾다가는 것이 사람으로서 보람있는 삶인 것

세월을 아끼자

입니다. 돈벌어서 재산을 쌓고, 벼슬을 해서 존경을 받으려 하고 그런 일이 처음부터 끝까지 재미가 있느냐하면 사실은 그렇지도 않아요. 안해봐서 그렇지 남한테 대접받는 것도 피곤해요. 대접받지 않을 때는 자유롭지 않습니까? 낮잠을 자든 어디가서 뒹굴든 누가 시비하겠어요. 대접받으려면 옷도 맘대로 못입고 다니고 신발도 아무거나 못신어요. 세상 일은 따지고 보면 공짜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남 부러워 할 일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단지 몰라서 그렇지 꽃피고 잎지나 그 뿌리는 하나요, 진리도 하나입니다. 사람만 이렇게 많지 우리는 한 뿌리에서 나왔거든요. 네 맘 다르고 내 맘 다르고 하지 않아요. 몸뚱이만 다르지 다 똑같은 마음이에요. 그래서 꽃피고 잎지는 그 뿌리는 하나요, 해와 달이 뜨고 져도 가고 옴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동네 어떤 사람은 공부하러 오기도 전에 죽어서 화장터에서 타버리기도 하고 땅에 묻히기도 해 이 세상에서 없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아주 없어져 버렸습니까? 원래 육신은 있어도 있는 것이 아니고 허공의 구름과 같은 것입니다. 지금 여기 육신을 부려먹고 다니는 주인공이 있지 않아요? 나, 이 나란 것은 죽지 않아요.

반야심경 법문같이 불생불멸, 불구부정, 부증불감 더 커지지도 않고 줄어들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나지도 않고 가지도 않고 오지도 않고, 주인공은 변하지 않는 내 주인이 따로 있습니다. 그 내 주인은 걱정, 근심하는 물건도 아니고 잘되고 안될 일도 없고 그것이 바로 성불이고 자유고 또 해탈입니다. 일체의 구속과 고통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해탈이에요. 번뇌, 망상을 나무껍데기처럼 벗어버려야 해요. 우리가 번뇌 망상 벗어버리려고 공부하는것 아닙니까?

1995 새해 이 기쁜 오늘, 부처님 자비 가득한 한해가 되길 빕니다.

학교법인승가대학
중앙승가대학

이사장 탄성스님 학 장 송산스님

이 사	석주스님	교학처장	종석스님
	송산스님	총무처장	정인스님
	종하스님	기획실장	금정스님
	설조스님	불교학과장	태원스님
	지하스님	사회복지학과장	보각스님
	현근스님	도서관장	종범스님
	지선스님	비구수행관장	혜남스님
	명훈스님	비구니수행관장	본각스님
	서돈각	신문사주간	성본스님
	주영운	불전국역연구원장	혜남스님
	박완일	불교사학연구소장	홍선스님
	홍윤식	불교사회복지연구소장	이경호 교수
	엄종일	보육교사교육원장	홍선스님
감 사	선걸스님, 범산스님, 무상스님		
사무처장	수완스님		

서울시 성북구 안암동 5가 157
☎ 925-5507~9

학교법인동국학원

이사장 吳綠園

동 국 대 학 교

총 장 민병천

삼화불교대학

학장 손혜인

불교유아교육과
불교보도(신문방송)과
불교미술과
불교학과 학생일동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511-5
☎ 511-1080
511-2026~8
FAX 511-1080

동대불교대학원 동림동문회
신년조례회

귀의 삼보하옵고
동림동문회원 여러분 을해년 새해를 맞이하여
회원 상호간에 신년 친목을 겸한 모임을
갖고져 하오니 바쁘시더라도 본회 발전을 위하여
많은 동참바랍니다.

일시 : 불기 2539년 양 1월 11일 수요일
시간 : 오후 3시
장소 : 회기동 경희의료원 뒤 연화사
연락사무소전화 : 02-462-1335 / FAX 462-1339
남장사 0582-34-6331
모임장소 : 연화사 02-964-6167, 962-6186

각기 회장 국장 총무부장
회장 이성웅 합장

삼세고금에 어떤 것이 참 나인가. 번뇌망상없는 청정한 한 물건이 본래 나일세. 꽃피고 잎지니 그 뿌리는 하나요, 해와 달이 뜨고 져도 가고 옴이 없도다. '억!'

이렇게 큰소리를 치는 것은 말로는 불법을 설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 뜻만 되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그렇게 알아두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방망이를 들기도 하고 치기도 하고 소리를 지르기도 하는 것도 말로는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 어쨌든 날마다 들어도 말만 다르고 글자만 다르지 이치는 똑같습니다. 한 번 들으면 그만인데 한 번 듣고 못알아 듣는 사람을 위해서 하고 또 하기 미련이고 또 이런 법문을 알아 들을 수는 있지만 ' 까마귀처럼 잊어버리기도 합니다. 세속살림살이 때문이겠죠. 그러니까 정신을 차리게 하려고 하고 또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이런 말도 못알아듣죠. 그렇지만 자꾸 듣다 보면 나중에는 알게 됩니다. 귀가 열리는 것이죠. 몸뚱이도 내가 아니다, 우리 맏도 내가 아니다 하니까 이걸 믿고 배우려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어요.

자꾸 들으면 귀가 열려

그러나 이건 거짓이 아닙니다. 진짜 헛것은 따로 있어요. 있는 이대로가 허공의 구름과 같은거지요. 구름이 있는것 같아도 저거 다 헛것이거든요. 이건 있어도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주인이 따로 있어요. 먹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자리에 있어요. 못봐서 그렇지 참선을 해가지고 깨달음을 얻으면 알게 되는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마음을 떠나서는 부처도 없고 귀신도 없어요. 우리 마음이 삿되면 마구니가 되고 우리 마음이 바르면 바로 부처가 되는 거지요. 손과 같다고 할까요. 엎으면 손등이 보이고 뒤집으면 손바닥이 보이는 것처럼 범부와 성인이 딱 붙어 있어요. 한치도 거리가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어두운 마음이 근본은 밝은 마음인데 부처님 마음과 손바닥처럼 딱 붙어 있습니다. 깨달으면 범부가 성인이 됩니다. 지금 우리는 깨닫지 못한 성인이고 부처님은 깨달은 성인이라는 그 차이만 있어요. 공부들 하세요.

성공한 유명한 사람들은 세월을 아끼기를 자기 눈동자보다 더 아끼라 합니다. 늙어서는 돈도 못벌고 공부도 못하고 살림도 못하고 재주를 배우기도 어렵습니다. 시간은 이처럼 귀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허망한 목숨보다 시간을 더 아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미련한 인간들이 돈, 돈, 돈 타령을 하는데 돈을 잃어버리는 것은 조그만 물건 잃어버리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세상법으로 따지더라도 남한테 실수를 범하면 명예를 잃는 것입니다. 그것은 큰 재산을 잃는 것입니다. 돈은 없다가도 있고 있다가도 없는 것이지요. 그런데 남에게 신용 잃으면 그것을 회복하는데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돈 잃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줄 알고 살면 됩니다. 남한테 신용을 잃으면 엄청난 재산을 잃는 줄 알고 신용을 지키라는 겁니다. 신용을 지켜야 장사도 잘하고 정치도 잘하고 살림도 잘할 것 아닙니까? 신용없이 무엇 하나 잘할 수 있겠습니까. 그 신용이 돈보다도 더 큰 재산이라는 것을 명심하세요.

그런데 신용보다 더 큰 재산은 건강입니다. 몸뚱이가 없으면 돈이 무슨 필요가 있으며 남한테 대접받는 것이 무슨 필요가 있느냐 하는 겁니다. 건강이 세상에서 제일가는 재산인줄 알아야 합니다. 건강이 제일입니다.

새해에는 더욱 건강하게 삽시다.

조계종 초대종정 한암스님 '선문답 21조' 본지 단독입수 (상)

조계종 초대 종정 방한암(方漢岩 1876~1951) 대종사의 문집(제명 : 마음달)이 새롭게 꾸며져 오는 3월 발간된다. 새 문집은 기존의 한암집(명정스님刊)과는 달리 월정사(주지 : 현해) 문도들이 총동원 되다시피해 1년 여에 걸쳐 흩어진 자료를 모아 엮은 것으로 한암집에서 미처 발굴치 못했던 자료들이 총망라되어 있다. 한암 대종사는 생전에 허명(虛名)과 난설(亂舌)을 특히 경계하여 가급적 저술을 삼가했고 그 흔한 법어집조차 남기지 않았으며 27년 동안 山門 밖으로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던 분이라서 이번 문집의 간행은 더욱 의의가 크다. 특히 새 문집의 백미(白眉)라 할 「선문답21조」는 간화(看話)와 반조(返照)의 필요성, 구경의 경지등을 간명직절하게 규명한 것으로 수행에 힘쓰는 후학들에게 더 없는 보감(寶鑑)이 아닐 수 없다.

현대불교는 새문집의 교정본을 긴급입수, 「선문답21조」를 3회에 걸쳐 전문 게재한다. 선문답21조의 원문은 한자로 되어있으나 독자의 편의를 위해 금강선원원장 혜거스님의 번역문을 싣는다. 〈편집자〉



◇ 한암스님의 생진모습

"청정심은 편한집·물든마음은 불구덩이"

'마음이 부처' 믿지 않으면 만겁을 수행해도 대도에 못들어

〈제1문〉 참선은 사람이 살아가는데, 어떠한 관계가 있습니까?

또한 참선을 하지 않아도 무방한 것입니까? 아니면, 이를 하지않으면 안되는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답〉 달마[1] 조사께서 말씀하시기를,

"마음이 곧 부처요, 부처가 곧 도요. 도가 곧 선(禪)이다."고 하시니, 선(禪)이란 곧 중생의 마음임을 알 수 있다.

대체로 중생심에는 두 가지의 구별이 있으니, 하나는 청정한 마음이요, 둘째는 물든 마음이다. 물든 마음은 무명삼독(無明三毒)의 마음이요, 청정한 마음은 무루진여(無漏眞如)의 본성이다. 무루진여를 염하고 불이(不二)를 수순(隨順)하는 것은 제불(諸佛)과 같아서 똥요가 없는 해탈이요. 무명삼독을 좇아서 많은 악업을 지은 자는 육취(六趣)[2]에 빠져 영겁에 윤회하는 것이니, 청정한 마음은 사람의 바른 길이요 편안한 집이며, 물든 마음은 사람의 험한 길이요 불구덩이이다.

어찌하여 지혜로운 자가 바른 길을 버리고 편안한 집을 비워둔 채 험한 길로 나아가며 불구덩이에 빠져 만겁의 괴로움을 받으려고 하는가. 그대는 이 점을 깊이 생각하여야 할 것이다.

참선이란 특별한 일이 아니다. 참(參)이란 합(合)함이니, 자성에 합하여 청정한 마음을 보양(保養)하고 바깥으로 치달려 구하지 않음이다. 오직 바라건대 일체 중생이 다 함께 몸과 마음을 바르게 하여 무상대도(無上大道)를 깨달아서 다시는 삿된 그물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속히 불과(佛果)를 증득하기를 바라고 바라는 바이다.

〈제2문〉 이미 참선을 하고자 한다면, 어떠한 마음가짐을 가져야 합니까?

〈답〉 참선을 하는 사람이 일단대사(一段大事)의 인연을 밝히고자 한다면, 맨 처음 자신의 마음이 부처이며 자신의 마음이 법이며 구경(究竟)에 다름이 없음을 믿어서 철저하게 의심이 없어야 한다. 만일 이와 같이 스스로 판단하지 못하면, 비록 만겁동안 수행을 한다 할지라도 마침내 진정한 대도(大道)에 들어갈 수 없을 것이다.

이 때문에 보조선사[3]께서 말씀하시기를,

"만일 마음 밖에 부처가 있고 성품 밖에 법이 있다고 말하여 이러한 마음을 굳건히 고집하면서 불도를 구하고자 한다면, 비록 진겁(塵劫 : 오랜 세월)이 지나도록 소신연비(燒身然臂)하며, 뼈를 부수어 골수를 내고, 피를 내어 경전을 베끼며, 장좌불와(長坐不臥)하고, 묘시(09~11시)에 일종식(一種食)을 하며, 그리고 일대장경(一大藏經)을 모두 읽으며, 갖가지 고행을 한다 할지라도, 모래를 쪄서 밥을 짓는 격이기에 스스로 수고로움만 더할 뿐이다." 라고 하셨으니, 이는 스스로 깨닫고 스스로 닦아서 스스로 불도를 이루는 것이 제일의 요체(要諦)임을 알아야 할 것이다.

만일 마음 밖에 부처가 있다고 한다면 부처는 곧 외불(外佛)이니, 나에게 어찌 부처가 있겠는가.

그러므로 "제불(諸佛)이 나의 도가 아니다."라고 말한 것이다.

〈제3문〉 이미 초심(初心)을 지녔다면, 어떻게 공부를 하여야 진실한 참구가 됩니까?

〈답〉 상근기(上根機)의 큰 지혜를 가진 이는 하나의 기연과 경계에서 이를 잡아 곧바로 사용하므로 굳이 많은 말이 필요하지 않지만, 만일 참구를 논한다면 마땅히 조주(趙州)[4]의 '무자(無字)'[5]와, '뜰 앞의 잣나무〈庭前栢樹子〉'[6]와, 동산(洞山)[7]의 '마삼근(麻三斤)'[8]과, 운문(雲門)[9]의 '마른똥 막대기(乾屎橛)'[10] 등 맛이 없는 말을 의심하고 또 의심하며 이 화두를 끊임없이 들어 마치 모기가 무쇠 소에 앉아 주둥이를 박지 못할 곳에까지 몰입하듯 하여야 한다.

만일 조그마한 차별의 생각과 터럭 끝만한 계교와 헤아림이 그 사이에 동하면, 옛 사람이 말한 "잡독이 마음에 침투하여 지혜를 손상한다."한이니 학인이 가장 먼저 깊이 경계해야 할 것이다.

나옹[11] 조사께서 말씀하시기를,

"한 생각이 일어나고 한 생각이 멸(滅)하는 것을 생사(生死)라 하니, 생사의 즈음에 당하여 힘을 다해서 화두(話頭)를 들면 생사가 곧바로 다할 것이니, 생사가 곧바로 다한 것을 적(寂)이라 한다. 적(寂) 가운데 화두가 없는 것을 무기(無記)라 하고 적(寂) 가운데 화두가 어둡지 않는 것을 영(靈)이라 말하나니, 공적영지(空寂靈知)가 부서짐이 없고 혼잡됨이 없으면 곧 바로 이루어진다."고 하니, 학인은 이 말을 지침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제4문〉 이미 여실(如實)히 참구하였다면, 어떠한 것이 여실하게 힘을 얻은 것입니까?

〈답〉 옛 스님이 말씀하시기를,

"힘이 안 드는 곳이 곧 힘을 얻는 곳이다."고 하니, 화두가 의심을 하지 않아도 스스로 의심이 되고, 화두를 들지 않아도 스스로 들어짐에 이르러서야 육근(六根)의 문이 자연히 툭 열리어, 홀로 드높고 드높으며, 광탄하고 광탄하게 되어, 마치 달빛이 시내 물결 속에 투사되어 부딪쳐도 흩어지지 아니하고 흔들려도 잃지 않음과 같은 때에 이르러야 대오(大悟)에 가까울 것이다. 여기에 이르러서 터럭 끝만큼이라도 지각의 마음을 내면 순일(純一)한 오묘함이 끊어져서 대오(大悟)를 얻을 수 없을 것이니, 간절히 이 점을 경계해야 할 것이다.

〈제5문〉 이미 여실하게 힘을 얻었다면, 반드시 깨달음이 철저〈大悟徹底〉할 것이니, 어떠한 것이 여실하게 깨달음이 철저한 경지입니까?

〈답〉 옛 스님이 말씀하시기를,

"분명하고 분명하게 깨닫은 법이 없을지언정 깨닫은 법이 있으면 곧 미혹한 사람이다."하였고, 또 다시,

"깨달으면 도리어 깨닫지 못했을 때와 같다"고 하니, 만일 깨달음이 철저한 경지가 있다면 곧 이것은 깨달음이 철저한 경지가 아니다. 그렇다면 영운(靈雲)[12] 선사가 복사꽃을 보고 깨우친 것과, 향엄(香嚴)[13]선사가 위산(*山)에게 절을 올린 것과, 현사(玄沙)[14] 스님이 손가락을 접질린 것과, 장경(長慶)[15] 스님이 주렴을 걷어 올렸던 것 등의 많은 큰 스님들이 깨쳤던 일은 모두 거짓으로 전해온 것일까?

앙산(仰山)[16]이 말하기를,

"깨달음이란 없지 않으나 제 2의 경지가 됨을 어찌하리오"라고 말하니, 절반 쯤 깨달음을 말한 것이다.

현사(玄沙)스님이 말하기를,

"감히 노형을 보니 아직은 철저하지 못합니다."라고 말하니, 실로 노파심이 간절한 것이다.

여기에 이르러 깨달음이 철저한 경지가 있다는 것이 옳은 것일까. 깨달음이 철저한 경지가 없다고 말하는 것이 옳은 것일까. 어떻게 하면 이를 알 수 있을까? 말없이 한참 동안 있다가 게송을 읊었다.

해천(海天)에 밝은 달이 처음 솟아난 곳에 암벽의 원숭이 울음 그칠 때.

> ***깨닫고 스스로 닦아서 스스로 불도를 이루는 것이 제일의 요체(要諦)임을 알아야 할 것이다. 만일 마음 밖에 부처가 있다고 한다면 부처는 곧 외불(外佛)이니, 나에게 어찌 부처가 있겠는가.***

각 주

1)달마(達磨) : (?~528) 범어로는 BodhiDharma라 하고 보리달마(菩提達磨)라 음역하는데, 달마는 그 약칭이다.

2)육취(六趣) : 6도(道)라고도 한다. 미(迷)한 중생이 업인(業因)에 따라 나아가는 곳을 지옥취(地獄趣)·아귀취(餓鬼趣)·축생취(畜生趣)·아수라취(阿修羅趣)·인간취(人間趣)·천상취(天上趣) 등 6처(處)로 나눈 것.

3)보조(普照) : (1158~1210) 고려 승려. 이름은 지눌(知訥)호는 목우자(牧牛子).

4)조주(趙州) : (778~897) 중국 당나라 승려.

5)무자(無字) : 선종(禪宗)의 화두. 개에게 불성이 없다는 조주와 어떤 스님과의 문답에서 유래된 것임.

6)정전백수자(庭前栢樹子) : "뜰 앞의 잣나무니라"라는 뜻.

7)동산(洞山) : (807~869) 조동종(曹洞宗)의 개조(開祖). 조동종은 오늘날 일본에서 융성하고 있다.

8)마삼근(麻三斤) : 선종(禪宗)의 화두.

9)운문(雲門) : (864~949) 법명은 문언(文偃). 운문종(雲門宗)의 시조. 중국의 고소가흥(姑蘇嘉興) 사람.

10)건시궐(乾屎橛) : 선종(禪宗)의 화두. 어떤 승(僧)이 운문(雲門)에게 건시궐(乾屎橛)은 마른 똥 막대기라는 말.

11)나옹(懶翁) : (1320~1376) 고려 공민왕 때 승려.

12)영운(靈雲) : 당나라 복주 영운산(靈雲山)의 지륵(志勒)선사를 말함.

13)향엄(香嚴) : 당나라의 등주 향엄산의 지한(智閑)선사로 위산의 영우(靈祐)선사에게 가서 깨달음을 얻음. 어느 날 작업 중 돌멩이를 주워 던진 것이 대숲에 맞아 '딱'하는 소리를 듣고 확연히 깨쳤다.

14)현사(玄沙) : (835~908) 중국 스님. 운문문언의 스승.

15)장경(長慶) : 당나라 승려 혜릉(慧稜)의 법호.

16)앙산(仰山) : (814~890) 법명은 혜적(慧寂). 중국 광동성(廣東省)출생. 위산에게서 법을 받음. 후세에 스승과 제자 두 분이 있던 곳의 두 글자를 따서 위앙종의 이름이 생겼다.

1995 이 기쁜 오늘, 부처님 자비 가득한 한해가 되길 빕니다.

용도사 창원포교당
구 룡 사
주지 석지형
창원시 소답동 909
☎ 55-6359

대한불교 조계종
아차산 영화사
부설(관인) 영화유치원
회주 송월주
주지 평 중
대중일동
서울시 성동구 구의동 산 9번지
☎ 444-4321, 7215

재단법인선학원
해 운 정 사
조실 임진제
사부대중일동
부산시 해운대구 우1동 412
☎ (051)746-2256

불 광 사
주지 강도성
신도회장 황정희
부 회 장 강봉숙
총 무 이세동, 한옥분
※불광사 이전안내
전주소 인천시 동구 금곡동
현주소 인천시 서구 석남1동 덕불산
☎ 583-5238

직지사 대구 포교원
회주 정혜창
대구 수성구 지원
원장 도일
☎ (053) 754-8629
대구 서구 지원
원장
☎ (053) 557-3599

낙 산 사
주지 석마근
강원도 양양군 강현면 전진리
☎ (0396) 672-2448

보 현 사
주지 도완
신도회장 이달영
대중일동
강원도 명주군 성산면 보광리
☎ (0391) 42-9437

대한불교 천태종
삼 광 사
주지 변춘광
총무 박자정 재무 황대묘
노전 황평산 부전 박지문
신도회장 김찬권
사부대중일동
부산시 부산진구 초읍동 산 131
☎ (051)808-7111~5 / FAX (051)803-1332

고은 불교 대하소설

수미산 11

그림 · 최규일



〈지난 줄거리〉

충청남도 서해 바다위의 무욕도에서 독신 수행하던 인담은 어느날 꿈에 나타난 담인스님으로부터 고려때의 시인 임춘이 남긴 〈서하문집〉이 있는 곳을 찾아 가라는 명을 받는다. 인담은 송도 뇌장산에서 문집과 〈수미행〉이라는 소책자를 얻게 되고 무욕도로 오는 길에 우녀라는 처녀를 만나게 된다. 우녀는 정신이 약간 나가버린 처녀인데 뱃사람에게 팔려가는 길에 인담을 만나 무욕도로와 인담과 함께 수행 생활을 하게 된다. 인담은 우녀의 번해가는 모습을 보며 남자로서의 번민도 어쩔 수 없이 겪게 된다. 임춘의 문집을 세상에 드러내기 위해 인담은 우녀를 남겨두고 한양으로 들어가지만 뜻을 이루지 못하고 죽을 고비까지 넘긴 후 다시 무욕도로 돌아 온다.

무욕도에서 반년여간을 혼자 남아 있던 우녀는 그사이 수행의 경지가 무척 높아져 있었다. 완숙한 여인의 자태에서 인담은 말로 표현 못할 경외감과 함께 육체적 번민을 느끼게 된다. 그러나 인담은 일상의 수행으로 돌아 오게 되고 우녀도 고즈녁한 여인으로 인담과 수행의 시간을 함께 한다.

낙조에 물든 우녀를 파도가 끌어가자 인담은…

파도에 휩쓸려

아침 보리죽을 부족(不足)과 충족(充足)사이에서 한 그릇씩 먹고 나면 해가 높곤 떠올라 이미 그 멍들어버린 강렬한 빛살 때문에 눈을 제대로 뜰 수 없게 된다.

섬 안의 두 사람 뿐이 아니라 섬의 해송(海松) 숲 구석에서 살고 있는 몇몇 짐승들도 어쩌다 솔밭을 나오면 그런 햇빛을 정면으로 마주하다가 그 작은 점청(點睛)과도 같은 눈을 지긋이 감아두어야 하였다.

어디 그 뿐인가. 파도의 물마루인들 햇빛을 어느 과정을 경유하지 않고 직통으로 받아 그 순간순간의 찬란한 햇빛에 물들어 제 몸이 깨어지며 번쩍이는 것이었다. 그런 파도의 눈부신 반사광(反射光)은 그것을 보는 눈을 눈부시게 만들거니와 그 빛살에 물든 수많은 물마루들에게도 눈을 달아주어 그 눈을 부시게 만드는 것 같았다.

이러한 아침 햇빛은 하늘 속의 지난 밤 어둠 따위를 일제히 몰아내고 그 허허한 공간까지 깨끗이 빗질한 머리칼에 가까운 수많은 현(絃)들을 딩딩 퉁겨내며 끊임없이 교직(交織)시키고 있었다.

하물며 그런 공간의 현 속을 아무런 거리낌없이 날아다니는 갈매기야말로 그 현들을 함부로 건드려 어떤 우녀의 소리를 더하고 있음에 틀림없으리라. 그래서인지 갈매기의 날개에 묻어나는 햇빛에는 어떤 소리들이 머금어있는 것 같았다.

그 소리들은 정작 어쩌다가 던지는 갈매기 울음소리의 탁음(濁音)때문에 특별한 주파수(周波數)를 맞추지 않은 귀로는 들을 수 없는 것인지 모른다.

아니 이런 사실이 행여 잘못 받아들여지는 것은 자연의 이치를 그르치기 십상이다. 마치 음양이 서로 통하지 못함에 따라 성욕이 극심해지면 귀신과 교접하기에 이르는 것과 같을지도 모른다.

여기서 말하는 귀신과의 성교란 몽중방사(夢中房事)이기도 하다.

어쨌거나 온세상의 두두물물(頭頭物物)이 서로 통하여 걸림이 없고 막힘이 없는 눈부신 아침의 시작이야말로 이렇듯이 눈부신 것이었다.

두 사람은 죽을 먹고나면 그 죽그릇을 선반 위에 올려놓자마자 밖으로 나간다. 그들이 나오기를 기다렸다는듯이 바닷바람의 한 부분이 그들의 옷 입은 가슴팍까지 파고들어 그때까지의 조촐한 심정을 풀어놓게 만드는 것이다.

우녀의 머리칼이 날렸다. 그렇게 머리칼이 날려서 그녀의 인상이 전혀 다른 사람으로 보이기까지 하였다.

그렇게 해서 두 사람은 공양 뒤의 산책으로 심신을 내던지듯이 풀었다가 오전 입정(入定)에 드는 것이었다.

인담은 우녀가 오기 전까지는 혼자였으므로 도리어 말 몇 마디를 그의 환경에 보내는 것이었다.

그것은 마치 묻지 않는데 스스로 말하기(無問自說)로도 세상의 잠든 중생을 일깨우는 설법과도 같았다.

"잘 잤느냐?"

라고 암자 뒤의 바위덩어리에 대고 인사를 나누거나 "너도 잘 잤느냐?" 라고 갈대지붕 끝에 내려와 한동안 쉬고 있는 갈매기에게도 한 마디를 던지는 것이었다. 그것도 아니라면 그 자신에게 한두 마디 주는 독백이 되기도 하였다.

"인담화상! 그대는 타화자재천(他化自在天)의 마왕(魔王) 파순(波旬)앞에서도 죽을 지경을 벗어나 당당할 수 있겠는가. 마치 가까스로 포착한 태풍 끝의 배가 닿은 섬처럼."

하지만 이제는 그런 소리도 입에서 나오지 않았다. 나오는 말이라면 우녀 밖에 들을 대상이 없어진 것이다.

"자 앉읍시다."라는 말 뒤로 방에 들어온 두사람은 결가부좌의 자세로 굳어져 갔다. 그들의 몸 속을 드나드는 태식법(胎食法)에 가까운 드문 숨결만이 방안의 정적에 개입되고 있다.

이렇게 두어시간을 지나면 인담의 몸속에 모래시계라도 지니고 있는 장기(臟器)가 들어서 그곳에서 시간을 알려주는지 어김없이 그가 단단히 접힌 무릎을 펴고 일어나는 것이다.

좌선도중의 휴식인 포행(布行)을 아예 없앤 정진이었다. 이런 수행이 처음에는 우녀의 발작에 도움을 주었을 뿐이다.

거의 강권(强勸)해서 앉혔더니 파도가 바위를 들이치는 소리가 대여섯번 들리는 뒤에 벌떡 일어나서 "나 육지로 건너가겠어요. 데려다 줘요."하고 거품을 물고 소리를 질러댔고 그것으로도 모자라 암자문을 박차고 나가서 이것저것 살림살이들을 마구 바다에 던지는 것이었다. 그 뒤로 그녀는 좌선시간에 그녀 혼자 섬의 여기저기를 싸질러 다니는 것을 제지 당하지 않게 되었다. 그런데 이제는 어엿이 선객(禪客)이 되어 인담과 서로 등진채 앉아서 묵조선(默照禪)에 익숙해가는 것이다.

한양길에서 돌아온 뒤 인담은 한번 물으로 건너가 양식을 실어왔다. 그 뒤로는 서산 칠포(漆浦) 어부가 그의 독실한 불심(佛心)과 함께 공양미 두 섬이나 실어왔다. 마침 갈치잡이에 나서는 길이라 용왕제 풍어제를 지낸 뒤여서 두 폭의 황포 돛배에는 홍·황·청·백의 울긋불긋한 깃발들이 신들린 무당의 흔백처럼 휘날리고 있었다.

인담이 어부에게 사의(謝意) 대신 한 마디 덕담을 하였다.

"이렇게 색색으로 꾸며야 물 속의 고기들도 좋아라 하고 모여들겠소."

"스님이 계셔서 저희들이 마음을 놓고 험한 파도를 탑니다."

그럴지도 모른다. 인담의 말은 덕담이되 어부의 말은 절실한 진담이었다. 바다 위의 생업(生業)이란 결국 그 바다와 바다의 형세를 규정하는 하늘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아무리 오랜 어부생활이건만 바다를 마음대로 부려본 적이 없다. 그 뿐이 아니다. 그의 선대(先代)나 동료들도 거의가 바다에 그들의 무덤이 있다.

아니, 어느 때는 몇 척의 배가 한꺼번에 휩쓸려 박살이 났으므로 그 배마다 타고 있는 사람들이 전부 물귀신이 되어버린 것이다. 그래서 칠포나 어디에나 어촌에는 제삿날이 같은 집이 하도 많아서 한밤중에 신위(神位)를 모시는 등불을 밝힘으로써 먹방으로 지내는 여느 밤과는 달리 난데없는 불빛이 연달아 비치게 되는 것이었다. 우녀가 공양미를 바치고 간 어부의 배가 저만치 떠났을 때 인담에게 불쑥 아픈 소리를 하였다.

"그래, 중이 살생을 많이 하라고 축원해도 되어요?" 쌀 두어섬 받았다고…살생을 만류하기는커녕……"

고기를 많이 잡기를 바라는 어부의 뜻에 호응하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우녀가 인담에게는 가륵하였다.

"하기는… 그러나 고기잡이라고 부처님에게 가까이 하지 말라는 법은 없지요. 나야 고기를 많이 잡으라고 비는 것이기보다 저 어부의 안전을 비는 것입니다."

"슬쩍 피하십니다. 스님."

"하기는… 피하는 것으로 보이기도 하겠지…"

"저는 저 배가 빈 배로 돌아오기를 빕니다. 달밤에 허공을 가득 싣고 돌아오기를"

"이러다가는 참선시간을 넘기겠소."라고 인담이 그녀의 말꼬리를 잘랐다. 두사람의 하루는 이럭저럭 보내어지고 있다.

어느덧 오후였다. 그들은 궁중(宮中)동물원의 공작새 암수 두 마리처럼 능청능청 옷자락을 날리며 섬의 북쪽까지 돌아갔다. 그곳에서는 멀리 수평선 쪽에 여러 척의 배들이 떠 있는 것이 잘 내다보였다.

바야흐로 서해 전체의 바다와 하늘이 낙조의 세상으로 가득하였다. 그 시뻘건 낙조 가운데는 자세히 살펴보지면 갖가지 빛깔들이 절묘하게 배합된 거대한 자연의 화폭(畵幅)이 아닐 수 없었다.

어쩌면 아침 햇살과는 전혀 다른 것이고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절대적인 장엄성이 바로 낙조의 하늘과 그 낙조의 빛을 맞받아내는 바다인 것이다. 그것에 대해서 인담보다 우녀가 황홀한 감동을 불러 일으켜 가슴의 숨이 꽉 찼다. 그녀는 쓰러질 듯 쓰러질 듯 그 낙조 속에서 실컷 물들고 있었다. 낙조야말로 색의 최고 상태였다.

인담은 그것을 여태까지 노래하고자 하였으나 아직 실천되지 못한 처지였다.

그가 한벌 벽장 속에 보관하고 있는 〈서하문집〉의 시를 훔어보다도 낙조를 노래한 것은 언뜻 눈에 띄 않았던 것 때문에 져으기 실망한 적이 있었다. 그런데 우녀는 낙조의 이 장엄한 사건을 시가(詩歌)따위의 소재로 삼을 의도는 전혀 없이 오로지 낙조 그 속에 몰입되는 그녀 자신으로 온전해지는 것이었다.

"떠나지 않겠어요."

라고 되풀이 말하였다. 끝내 그녀는 비실거리기 시작하였다. 그러다가 무릎이 그녀의 의지와 상관없이 끓려졌다. 그러자마자 나즈막한 바위쪽으로 그녀가 쓰러졌다. 다행히 날카로운 너설은 없었다. 이어서 그 바위에서 한번 더 쓰러졌다.

그곳은 벌써 파도 끄트머리였다. 그녀는 대번에 온몸의 옷이 그 파도에 쌓여 적셔졌다. 파도가 그녀를 저만치 끌어갔다. 인담이 그 물 속으로 몸을 던져 헤엄쳐 갔다.

어쩌면 아침 햇살과는 전혀 다른 것이고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절대적인 장엄성이 바로 낙조의 하늘과 그 낙조의 빛을 맞받아내는 바다인 것이다. 그것에 대해서 인담보다 우녀가 황홀한 감동을 불러 일으켜 가슴의 숨이 꽉 찼다. 그녀는 쓰러질 듯 쓰러질 듯 그 낙조 속에서 실컷 물들고 있었다. 낙조야말로 색의 최고 상태였다.

1995 새해아침 이 기쁜 오늘, 부처님 자비 가득한 한해가 되길 빕니다.

동기와시공전문업체
세 주 판 금
대 표 이 봉 규
직 원 일 동
충북 청주시 봉명동 826번지 상가 27호
☎ (0431) 63-0822
야간 (0431) 56-0151

대한불교조계종
한마음선원 부산지원
원 장 혜 도
신도회장 이하경 박성반
신도회원일동
부산시 영도구 동산동 522-1
☎ (051) 402-7077

부 산 불 교 실 업 인 회
회 장 김 정 태
상임부회장 한 재 구
부회장 백봉도,서춘석,최용원
감사 최 찰
총무이사 김 윤 환
재정이사 양 재 달
〈회원일동〉
부산시 동구 초량 3동 1147-14 국제 0T 1805호
☎ (051) 466-7174~5 FAX 466-7176

대한불교조계종 호국참회기도도량
삼 각 산 도 선 사
주 지 차 동 광
서울시 도봉구 우이동 264번지
전화 993-3161~3
주지실 993-5002
FAX 993-3164

부산직할시
불 교 연 합 회
회 장 조 정 관
임원일동
부산시 진구 양정 3동 393의 2(불교회관 3층)
☎ (051) 867-0501~3
FAX (051) 867-0504

해 동 불 교 대 학
학 장 張 二 斗 대학원장 金 知 見
교육원장 鄭 大 隱 교무처장 李 治 蘭
한 국 불 교 해 외 전 법 회
The Korean Buddhist Overseas Mission
발기인 일동
서울 종로구 낙원동 110
☎ 741-0495~6 FAX 763-4603

(사)법화경교단
법 화 삼 부 경 강 원
법 주 최 공 덕
대구시 동대구 우체국 사서함 41호
전화 대구 952-8711, 955-6579
부산 645-6224, 632-8940

불자기업인들 이렇게 신행한다

'부처님 경제윤리' 경영 일선서 실천

각종 불사에 큰 화주로 동참, 독경 · 기도로 신심다져


◇박성용씨


◇조중훈씨


◇엄상호씨


◇이건희씨


◇최계월씨


◇유종열씨


◇김석원씨


◇장상태씨


◇한갑진씨


◇정형식씨

부처님께서는 정당한 노동을 통한 부의 축적은 좋은 것이라고 가르치고 있다. 그리고 얻어진 수익을 혼자 독점해서는 안되며 의식주의 생활비와 경제활동을 위한 투자, 저축과 고용인의 급여, 남을 위해 베푸는 것등의 네부분으로 나누어 쓰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사분법(四分法)은 오늘의 자본주의 경제체제 속에서도 바람직한 기업경영의 방법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같은 가르침은 불자기업인들이 앞장서 실천해야 할 덕목이기도 하다.

불교를 믿는 기업인들은 신행 활동을 어떻게 하고 있을까.

새해를 맞아 주요 그룹 회장과 기업체 사장들의 불교신행활동을 들어 보았다.

금호그룹의 박성룡회장은 바쁜 경영일선에서도 틈틈이 경전을 읽으며 정신적인 부를 쌓고 있다. 박회장은 자신의 삶 속에서 5계를 지키려고 노력하는 기업인으로 잘 알려져 있으며 등산길에 만나는 사찰엔 반드시 들어가 법당문을 여는 신심 돈독한 불자다.

한진그룹의 조중훈 회장의 경우도 누구보다 두터운 신심으로 정평이 나 있다. 그는 탄허스님과의 인연으로 불교에 귀의했다. 오대산 월정사 중창불사에 남다른 관심을 가져 대화주로 주목 받았으며 월정사에 공덕비까지 세워져 있다.

또한 2년전에 완공한 남한산성 망월사 중창불사에도 크게 도움을 주었으며 여타의 사찰이 일구는 불사마다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건영그룹 엄상호회장의 신심은 교계에도 잘 알려져 있다. 전국신도회 부회장을 지내기도 했던 엄회장은 아파트 단지를 조성할 때마다 포교당용 부지를 내놓아 상계동 분당등지의 아파트촌 포교기지구축에 절대적인 도움을 주고 있다. 그룹내의 불교신행단체인 건영선정회는 기업신행단체의 모범으로 꼽히고 있다. 엄회장의 신심은 불교담당 비서가 따로 있다는 점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그만큼 그는 불교와 관련된 활동을 폭넓게 하고 있으며 스님 포교사들과의 유대도 매우 폭넓게 지니고 있다.

한국 코데코의 최계월 회장도 실천적인 불교신자다. 그는 집안에 불상을 모셔놓고 조석 예불을 올리는가 하면 각종 불교서적도 폭넓게 섭렵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삼성그룹의 이건희 회장은 부인 홍나희 여사와 함께 부처님이 모셔진 산사를 찾는 것을 좋아한다. 북한산 승가사의 대화주로도 알려져 있는 이회장은 불교 관련 사업도 구상 중이다.

쌍용 그룹의 김석원 회장의 경우 작고한 모친 김미희여사의 불심을 잇고 있다. 김회장 역시 부부가 함께 불교를 믿고 있다.

효성중공업의 유종열 사장은 일요법회를 반드시 참석하며 높은 신심을 보여 주기로 유명하다. 안양 한마음 선원을 다니는 유회장은 한달에 두번 가량은 일체의 주말 스케쥴을 비워두고 신행을 한다. 기업인에게는 중요한 골프 약속도 이때 만큼은 하지 않는다는게 주변의 귀띔이다.

동국그룹의 장상태 회장과 불교와의 인연은 이미 교계의 상식처럼 돼 있다.

그는 대원정사의 창건주이며 (재단법인) 대원의 창설자인 대원 장경호 거사의 세째 아들이기 때문이다. 불교방송 설립의 중추역을 했던 장상문거사의 동생인 장상태 회장은 대를 잇는 불심으로 기업을 경영하고 있다.

한진흥업 한갑진 회장은 평생을 걸어온 영화의 길을 불교에 회향할 것을 발원할 만큼 돈독한 불심을 보여주고 있다. 한회장은 지난해 「부처님 일대기」를 영화로 제작한 이후 또 하나의 불교영화를 기획중에 있다. 한회장은 올해 번역서〈아함경〉 4권도 펴낼 계획이다. 집안에서 아침저녁으로 천수경과 예불을 하지 않는 날이 없다는 한회장은 계속 경전간행에도 관심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일양약품의 정형식회장은 불암사를 자주 찾는 불자다. 모친의 영향으로 불교와 인연을 맺었다는 정회장은 온 집안이 불교를 믿고 있으며 아들 정재형 이사등 집안식구와 사찰을 찾는 것을 중요한 행사로 여기고 있다. 올해 73세로 나이가 들수록 부처님곁을 찾게 된다는 정회장은 자신의 불심을 매년 부처님오신날 보름전부터 수십개 사찰에 등을 달면서 키워가고 있다.

한보그룹의 정태수 총회장의 아들인 정보근 부회장은 최근 조계사 근처의 불교서점에서 대량의 불서를 구입해 눈길을 끌었다. 그는 현재 근무중인 마산 현장에서 금강경을 열심히 읽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서광산업의 명예회장이자 군불교진흥회 회장직을 맡고 있는 박상길 회장의 불심도 큰 그릇으로 비유되고 있다. 박회장은 강남 구룡사를 자주 찾아 간다. 특히 군불교에 대한 남다른 애정으로 4년전부터 맡은 군불교진흥회에 상당한 액수의 발전기금을 매년 내놓고 있다.

대전지역의 유수업체인 계룡건설 이인구회장도 지역에서 알아주는 불교신자다. 온집안이 불교를 믿고 있으며 경원 건설의 이현구사장과는 형제지간이다. 부처님 오신날이 되면 대전시 대덕구 관내의 거의 모든 사찰에 등을 달고 지역발전과 가정의 행복을 기원한다는 이인구 회장은 선대부터 지켜온 불심을 가족의 자랑으로 삼고 있다.

〈임연태 기자〉

본지조사 재계인사 1만3천명의 종교

불교 12% 무종교 60% … "불교에 관심" 35%

신행회조직등 포교대책 세워야

우리나라 기업인 중 61%가 종교활동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사실은 전경련이 94년 8월에 간행한 〈한국경제연감 부록 재계 인사록〉을 본지가 분석한 결과 드러난 것이다. 상장기업 경영자와 전경련 소속 경제인 1만3천1백25명의 인사록에 나타난 기업인들의 종교현황은 불교 12%(1천5백22명) 기독교 19.2%(2천5백19명) 천주교 7.8%(1천25명)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60.2%에 해당하는 7천9백65명이 무종교라고 적고 있어 절반을 훨씬 넘는 수치를 보였다.

이밖에 원불교와 유교가 0.3% 기타종교가 0.08%등의 극소수로 나타났다.

이 인사록을 토대로 한 분석에 따르면 종교를 가진 기업인 가운데서도 불교 기독교 천주교의 차이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같은 분석 이후 본지가 무종교라 적은 기업인 1백여명에 대한 전화 설문을 벌인 결과 30~35% 가량은 '직접적인 종교활동은 하지 않고 있으나 집안은 불교적인 성향'이라고 답했다. 또 25~30% 가량은 '전통적으로 유교적 가풍이 지켜지고 있어 특별히 종교를 가졌다고는 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나머지는 대부분 종교에 특별한 관심이 없다는 쪽의 대답을 해 왔으며 반드시 종교를 선택 한다면 어느 종교를 믿겠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불교 기독교라는 응답이 천주교 기타종교에 비해 많았으며 기독교에 대한 관심이 불교에 대한 관심보다 약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사실은 현재 종교 활동을 하지 않는 기업인에 대한 포교대책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자신의 종교를 밝힌 기업인 가운데서 기독교인이 불교인보다 1천여명 가량 많다는 분석과 무종교인 가운데서도 기독교에 대한 관심도가 더 높다는 사실은 주목하지 않으면 안될 현실이다. 특히 무종교 기업인 가운데 개인적 신행은 없어도 집안은 불교적 성향이라 답한 사람이 35%에 가깝다는 사실은 경제계 인사에 대한 적극적인 포교 대책의 시급함을 대변해 주고 있다.

기업 경영인의 종교에 따라 사내의 종교 활동도 큰 영향을 받는다는 것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업체별 불교 신행운동의 확산은 경영자의 포교를 통해 빠르게 전개될 수 있다는 것이 산업체포교 현장의 목소리다.

지역별 불교실업인회의 활성화도 중요한 포교 전략으로 꼽히고 있다. 현재는 부산지역이 유일한 활동을 보여 주고 있으나 서울, 광주, 대구, 인천, 대전 등 주요도시에 불자실업인회를 조직 기업인들간의 신행을 활성화시켜 나가야 한다는 지적도 대두되고 있다. 〈태〉

◇재계인사 종교현황표

종 교	숫 자	비 율
불교	1522명	12%
기독교	2519〃	19.2%
천주교	1025〃	7.8%
무종교	7965〃	60.2%
원불교	42〃	0.3%
유교	43〃	0.3%
기타	10〃	0.08%
계	13,125〃	100%

부산불교실업인회


◇김정태회장

신심 · 친목 쌓으며 지역불교 발전 주도

오는 2월로 창립4주년을 맞는 부산 불교실업인회(회장 김정태 태화쇼핑사장)는 회원 1백10명과 특별회원 5명으로 구성된 기업인 불자들의 단체다.

전국에서 유일한 불교실업인회로서 경영인의 '신심 뭉기'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낸 부산불교실업인회는 회원개인의 신행다지기와 친목도모 지역불교 발전을 위한 각종 후원사업등을 펼치고 있다.

창립 이후 매월 갖는 정기법회는 일정한 사찰이나 회관을 벗어나 명찰순례 고승법어등으로 진행된다. 부산 인근의 고찰은 이미 다 순례한 상태이며 오대산, 설악산등지도 2박3일의 일정으로 다녀 실업인들의 신심을 보여 주고 있다.

이같은 사찰 순례법회는 반드시 대덕스님의 법문과 함께 하고 있다. 회원들의 참여도도 상당히 높아 매월 법회마다 50~70여명이 동참한다. 회원들은 바쁜 경영 일선에서 법회참가 외에도 개별적으로 교양대학 성지순례등에도 적극적으로 참여 신심을 고양시킨다는 것이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같은 부산불교실업인회의 활동은 회원들이 불자로서 경영인으로서 이사회의 모범이 되는 가치관을 심어주는 계기가 되기도한다. 회원 상호간의 경영정보 교환과 상호협조체제의 형성등은 실업인회의 중요한 기능중 하나이기도 하다. 정신적인 건강과 경영의 바른길을 함께 추구하는 실업인회는 부산지역의 경제와 불교발전에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한다는 평을 듣고 있다.

지역불교 활동의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는 불산불교실업인회는 매년 1천만원 이상의 포교비를 지역 불교단체를 위해 사용하고 있다. 어린이 청소년단체는 물론 각종 행사에 실업인회가 내놓는 포교비는 회원들의 회비와 특별회비등으로 충당되고 있다. 회원들이 기업을 경영한다는 점 때문에 실업인회의 재정자립은 창립 초기부터 이뤄졌다. 정기회비 외에도 회원들의 특별회비등이 높은 참여율 속에 어려움 없이 모아져 각종 사업에 유익하게 쓰고 있다는 한 관계자는 전국 각지역에 실업인회가 결성되어 상호 유기적인 관계를 갖는다면 불자 실업인들의 활동이 더욱 왕성해 질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불교실업인회가 자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회원들의 정기법회 참여율은 70%선을 웃돌고 있다. 이는 이지역 실업인들의 신심을 드러내는 좋은 예이기도 하지만 타지역 실업인회의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이기도 하다.

즉 불자실업인들의 신심을 한데 묶는 기구의 결성을 통한 지역불교 발전과 개인의 신행 증진이 전국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1995 새해 이 기쁜 오늘, 부처님 자비 가득한 한해가 되길 빕니다.

조계종 능인청사
성등불고 포교원
주 지 법 경
육바라밀회장 성 장엄각
능인가족 일동
서울 성동구 성수2가 1동 230-8
☎ 462-1335 · 1339 FAX 462-1339

대한불교 조계종
보 경 사
주 지 진 현
재 무 종 각
대 중 일 동
경북 영일군 송라면 중산리 622
☎ (0562)62-1117 FAX (0562)62-0149

서부은평 사원연합회
회 장 서성운(삼천사)
부회장 한자용(수국사)
부회장 김혜진(시연사)
부회장 이법성(관음사)
사무총장 서혜진(신흥사)
서울시 은평구 진관외동 산 127-1
은평사서함 77호
☎ 359-7766, 353-3004

정 계 사
신 도 일 동
경기도 의왕시 청계동 산 11
☎ (0343)26-2348, 26-2670

약 사 사
주 지 장영하
신도회장 황대덕월
서울시 강서구 개화동 332-1
☎ 662-2551, 664-0311

사회복지 법인
연 꽃 마 을
○용인무료양로원 ○노인문제연구소
○서울 광명의원 ○청주 광명의원
○군포 광명의원 ○대전 광명의원
이사장 김각현 외
임직원 및 후원회원 일동
☎ (02) 203-3677, (0335) 34-3677

화 계 사
조 실 숭산 행원
신 도 일 동
서울시 도봉구 수유1동 487
☎ 902-2663

대한불교 조계종
계룡산 자광사
주 지 이원행
대 중 일 동
신 도 일 동
대전시 유성구 학하동 649
☎ (042)822-9219 FAX 822-9220

법 성 사
주 지 이석천
대 중 일 동
신 도 일 동
서울시 강서구 등촌2동 산 23-4
☎ 651-4382

定法大學 佛敎 指導者協會
약 사 포 교 원
주 지 張覺性
신 도 일 동
강동구 길1동 366-4 내남빌딩 7
☎ 474-0554 FAX 472-5292

성 국 사
주 지 덕 봉
신 도 일 동
도봉구 방학 2동 산 400-16
☎ 902-4455

수 안 사
대 중 일 동
신 도 일 동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438-12
☎ 587-4677, 3213

문화재수리단청기능 308호, 도금기능 821호
명화 · 단청 · 공상조성
한국불교미술원
원 장 정규진
서울시 종로구 청진동 196
☎ 730-8072 (야) 648-0930

정 각 사
주 지 이광우
신도회장 이원각성
신 도 일 동
서울시 성북구 삼선동1가 277-12호
☎ 742-1231

재산·복의 상징…"행운을 드립니다"

'돼지' 관련지명 전국 2천여곳…경전에서는 지혜롭게 묘사

을해년에 듣는 돼지 이야기

을해년 돼지해가 밝았다. 한반도에서 2천여년을 살아오고 있는 돼지는 우리 민족과 유별난 친숙관계을 유지하고 있다.

돼지는 우둔하고 더럽다면서도 꿈에 나타나면 길조로 생각하는가 하면 고사에 단골로 등장하는 상서로운 동물이기도 하다. 강한 번식력으로 다산성을 지닌 돼지는 또 재산과 복의 근원으로 여겨져 집안의 수호신이나 재신의 상징 구실도 했다.

이러한 한민족의 돼지 사랑은 지명에 까지 나타나 전국적으로 2천여곳의 땅이 돼지와 관련된 이름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들 이름은 대부분 '돼지골' '돼지바우' '돼지고개' 등이다.

신화에서도 돼지는 여러 상징성을 지닌 동물로 나타난다. 〈삼국사기〉고구려본기 유리왕편과 〈고려사〉 '고려세계'를 보면 돼지는 국내성과 송악 등 나라의 융성을 도모할, 새 수도의 위치를 알려준다. 〈삼국사기〉 고구려본기 '산상왕' 편에서는 자식없는 왕을 위해 왕자를 낳을 여인을 소개하기도 한다. 이처럼 돼지는 하늘이나 신의 뜻을 전하는 사자로 묘사되고 있다.



◀ 강한 번식력으로 다산성을 지닌 돼지는 한민족과 오랜세월 친숙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판각 조정훈 작〉

호랑이 이긴 돼지 왕

돼지와 관련된 설화 가운데는 부처님이 들려준 이야기도 있다.

옛날 부처님께서 기원정사에 계시면서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설법을 하고 계셨을 때 이야기이다.

어떤 곳에 5백 마리의 부하를 거느린 돼지왕이 있었다. 어느 날 부하들을 거느리고 험한 고갯길을 올라가는데 맞은 편에서 한마리의 호랑이가 어슬렁 어슬렁 내려오고 있었다.

돼지왕은 마음 속으로 공포를 느끼며 "부하들 앞에서 호랑이를 피해가면 나의 체면이 말이 아니다. 이 난관을 어떻게 풀어야 할까" 고민을 했다.

그러다가 갑자기 호랑이를 향해 큰 소리로 외쳤다.

"네 이놈, 당장 길을 비켜라. 감히 어른이 가는 길을 막다니… 고얀지고."

"허 허 허…"

아무리 세상이 뒤죽박죽 돌아간다고 이지경까지 이르렀단 말인가. 호랑이는 너무도 어처구니가 없어서 웃고 말았다.

"무얼하고 있느냐. 길을 비키라니까."

돼지왕은 부하들 앞에서 최대한 위엄을 차리고 또 한번 큰소리를 쳤다.

"길을 가고 싶으면 너희들이 비켜가거라."

호랑이가 점잖게 말을 하고서 계속 걸어왔다.

순간 돼지무리에 긴장이 감돌았다. 한바탕 싸움이 벌어지고 돼지왕이 무참하게 쓰러지는 모습이 눈에 선했다.

그런데 갑자기 돼지왕이 길옆 오물덩이로 가더니 몸을 굴려 온 몸에 오물을 발랐다.

"그래, 싸우자는 건데, 한번 해보자."

"어휴, 저놈의 냄새. 내 몸에 묻지 않게 조심해야지."

호랑이가 돼지왕으로부터 멀리 피하며 인상을 찌푸렸다. 작은 동물을 잡아먹지 않는 것은 귀중한 이빨을 아끼는 까닭인데 냄새나는 돼지를 상대할 호랑이가 아니었다.

"너도 다리가 넷, 나도 다리가 넷, 오너라 싸우자. 왜 겁을 먹고 도망을 치는거냐."

"네 이놈, 잔소리 말고 빨리 지나가거라. 어휴, 냄새 한번 지독하군"

돼지왕이 의기양양하게 부하 돼지들을 이끌고 고개길을 올라갔다.

미천한 것은 상대하지 않는 것이 호랑이 다운 호방함이라면 그런 자존심을 찌른 돼지의 지혜도 과연 일품이라 하겠다. 호랑이는 호랑이의 싸움법이 있고, 돼지는 돼지 나름의 싸움법이 있는 것이다.

〈중아함경 제16〉

만화 法句經

마음의 장

마음은
들며 흔들리기
쉽고

이 향 원



마음은 들며 흔들리기 쉽고
지키기 어렵고 억제하기 어렵다
지혜로운 사람은 마음 갖기를
활 만드는 사람이 화살을
곧게하듯 한다

*악마의 손아귀란 번뇌에 의한 생사윤회의 수레바퀴를 말한다

날말맞추기

함께 풀어봅시다

〈가로열쇠〉
①금년은 십이지동물중 이 동물의 해 ③참나, 마음의 주인 ⑤모체의 태안에서 자라고 있는 아이 ⑦10지의 하나, 색계·무색계의 4체의 도리를 관하여 일어나는 번뇌를 끊는 지혜 ⑨부처님등 불교에 관한 것을 소재로 그린 그림 ⑪육통의 하나. 남의 마음속을 꿰뚫어 볼수 있는 신통한 힘 ⑫불교의 생활화 현대화 세계화를 사시로 내걸고 지난해 10월15일 창간한 교계 최고의 신문사 ⑯세계의 중심에 높이 솟아 있는 상상의 산. 현대불교신문 10면에 연재되고 있는 고은씨의 불교소설 제목 ⑱조선시대스님. 서산대사의 제자로 임진란때 승병을 이끌고 나라를 구했음 ⑳○○종찰 통도사 ㉑출가한 남자스님으로 2백50계를 받아지닌다. ㉒이승을 떠나 저승에 다시 태어남 ㉓부처님의 공덕을 기린 노래. 또는 오도송등.

〈세로열쇠〉
②옳고 그름을 판단하여 안다고 하는 상상의 동물, 광화문 앞에 있는 석상. ③사찰을 책임지고 맡아보는 스님 ④반야심경의 한구절. 글자대로 풀이하면, 공이 곧 만유의 본연의 모습임을 뜻한다. ⑥정토삼부경에 있는 부처님. 48원을 세워 모두가 성불하기를 소원하면서 장구한 수행을 거쳐 성불했음 ⑦유언비어의 속된 말 ⑧살아있는 부처. 고승대덕을 존경하고 찬미하는 말 ⑩불·보살이 중생을 교화하고 구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모양을 여러가지로 변하여 이세상에 나타나는 것. ⑬불·보살의 넓고 큰 자비. ⑭여래의 왼편에 있는 지혜를 맡은 보살 ⑮출가하여 10계를 받아 지니는 나이어린 남자. ⑰스님으로서 큰 죄를 지은 이에게 승권을 빼앗고 절에서 내쫓는 제도. 일제시대때 채탈도첩이라 했음. ⑱사왕천의 주신으로서 수미산을 중심으로 한 사방의 세계를 지킨다는 네 신. ⑲4구로 된 게문. 사구분별의 약칭.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7
18			19		20			
		21						
22							23	

〈정답은 13호 11면에〉

1995 이 기쁜 오늘, 부처님 자비 가득한 한해가 되길 빕니다.

목동청소년회관
관장 광우
임직원 일동
서울시 양천구 목동신시가지 6BL1호(4단지)
☎ 646-0181~5

인과선원
주지 정덕
신도일동
서울시 노원구 월계동 657-2
☎ 993-3706, 907-3706

법안정사 (목동큰절)
회주 김효경
포교원장 김현도
신도회장 원숙경
신도회 일동
서울시 양천구 목5동 907-2
☎ 646-4975·653-4888

청룡사
(마야합창단)
주지 김법운
합창단·신도 일동
경기도 광명시 광명3동 32-11
☎ 612-0609

수효사
원장 무구
신도일동
서울시 서대문구 충정로3가 1-38
☎ 313-3037, 3060

학림사
조실 송월주
회주 최도원
주지 석덕오
신도일동
서울시 노원구 상계동 1번지
☎ 936-1700,4100

진관사
주지 진관
대중일동
신도일동
서울시 은평구 진관외동 1번지
☎ 359-8410

신흥사 (청소년 수련원)
주지 오성일
신도일동
경기도 화성군 서신면 상안리 산 42-1
☎ (0339)57-2695, 3916

남북통일기원정통태골봉안도량
대한불교조계종
호국각원사
주지 신법인
총무 서대원
대중일동
충남 천안시 안서동 산 98-83
☎ (0417)61-3545, 62-5332

동산반야회·동산불고대학·동산불고전문연구원
회장 김재일
회원일동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45
☎ 732-1206

동명불원
주지 덕천
신도일동
서울시 송파구 풍납1동 496-3
☎ 488-7027

관음사
주지 종하
대중일동
신도일동
서울시 관악구 남현동 549
☎ 582-8609

성불사
주지 도원
대중일동
신도일동
경기도 하남시 감이동 368-1
☎ 400-59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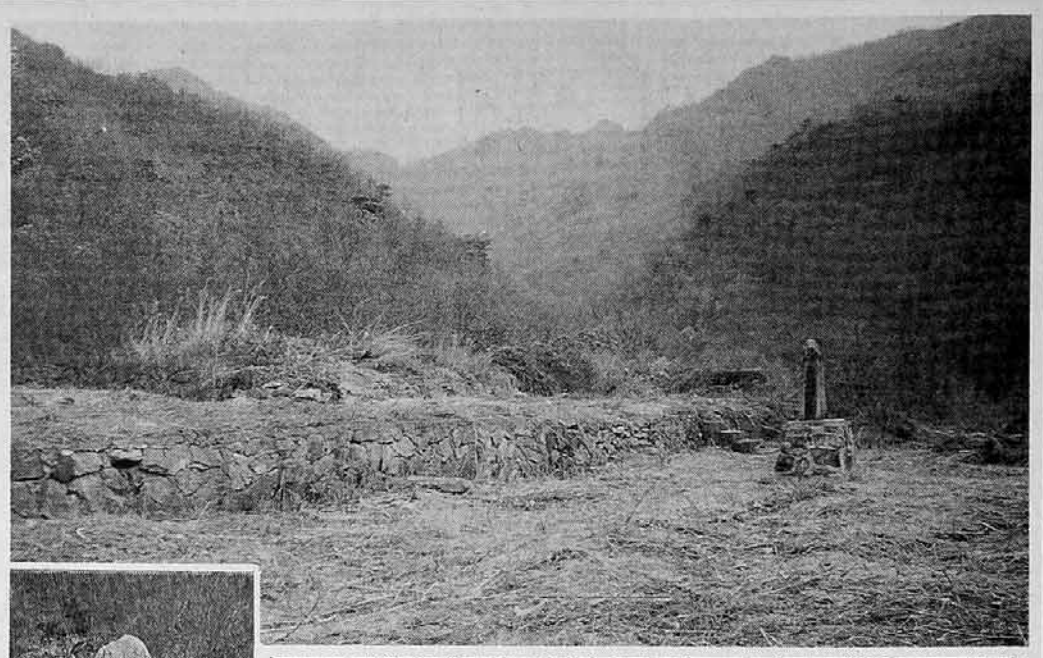
경수사
주지 김보경
신도회장 이상원
신도일동
경기도 용인군 원삼면 목산리
☎ (0334)72-3668

만의사
주지 정락
총무 성직
노전 응진
경기도 화성군 동탄면 중리 140
☎ (0339)72-6005

분단 상흔에 묻힌 '지장성지'

해방 50년 새해 아침

민통선 폐사지 심원사를 가다







단기 4278년 을유년, 그해 한반도는 삼팔선이라는 가시덤불을 매고서 광복을 맞았다. 그후 50년. 한치의 오차도 없이 흐르는 세월속에 을해년 아침을 맞는다. 지난 반백년동안 이땅에는 동족상잔이란 다툼과 흉맹이 있었으니 그동안은 짧지만 굵직한 역사였다. 그러나 5천년 역사에서 가장 바쁘게 고동쳤던 이 기간동안 잊은듯 외면당한 땅이 있다. 비무장지대와 민통선. 남북으로 각각 4km지점 155마일을 철책선으로 두르고 비어있는 땅. 우리의 땅이면서 함부로 갈 수 없는 곳이었기에 한민족에게는 찾고자 하는 마음이 애절하기만 했다. 이러한 마음을 좇아 민통선 부처님 땅을 찾아나섰다.

경기도 전곡 한탄강 유원지를 지나 연천군 대광리를 가다보면 20km지점에 보개산(寶蓋山)이 나온다. 살아있는 지장보살이 출현했다는 심원사(深源寺)가 있었던 본산이다. 보개산도 최전방 민통선지역으로 입구에 어김없이 초소와 군부대가 자리해 있다.

이 지역은 해방되면서는 북한땅이었다가 6.25후 휴전선이 올라가면서 남한땅이 된 곳이다. 본래 이곳의 행정구역은 강원도 철원군 신서면 하내산리였다. 1961년 행정구역이 바뀌면서 경기도로 편입되었다.

보개산 심원사는 유점사의 말사였다. 일제때 한용운스님이 작성했다는 유점사본말사지에는 심원사의 역사가 비교적 상세히 소개되어 있다.

사지에 의하면 심원사는 647년(진덕여왕 1) 영원(靈源)조사가 보개산에 영흥사, 법화사, 도리사, 흥림사 등 4대사찰을 창건, 고려때 모두 폐사되었으나 흥림사만 맥을 이어 오늘의 심원사가 되었다고 한다.

조선조에는 인근에 여러 암자를 거느린 대가람으로 중흥, 불법을 펼쳤다. 1천여년이 넘는 세월을 지내오면서 심원사는 조선 태조와 임진왜란때 화재로 소실되는 등 수난을 겪기도 했다. 임란



◇심원사지 입구에 자리한 부도군.

당시에는 승병 3백여명이 보개산에서 산화했다고 한다. 이때 탱화 32위 불상 1천6백9위 건물 2백50칸이 소실되었다고 하니 심원사의 규모를 짐작케 한다. 심원사는 중창을 거듭하며 1천3백여년을 이어왔다.

그러나 6.25 전란때 격전지가 되어 또다시 불에 타 폐사가 되어버렸다. 이후 보개산은 군사통제구역으로 되었고 민간인의 출입이 허용되지 않아 50여년을 폐사지로 남아버렸다.

유점사 말사 6.25때 전소

심원사 참배는 군부대의 허가를 필요로 한다. 이종인군법사(중령 · 광복통일사)의 주선으로 취재일정이 잡혔다. 보개산입구에 도착한 것이 오후 1시경. 군부대에서 나온 안내병을 따라 찾은 심원사지는 차가운 겨울날씨처럼 황량했다.

부대내 연병장을 가로지르면 곧바로 심원사 부도군이 나온다. 일제때 심원사 스님들이 보개산 인근에 흩어져 있던 부도와 비석을 옮겨놓은 것이다. 여기에는 제월당대사비를 비롯 풍담당, 청로당, 청심당 등 12기의 부도가 자리해 있다. 비석과 부도의 곳곳이 총탄으로 파여져 6.25당시 치열했던 전투를 짐작케 한다.

심원사지는 부도군에서 계곡을 따라 5백여m 지점에 있다. 6.25전만해도 수십



◇철원에 새로 세운 심원사내의 지장보살상. 왼쪽 어깨부근에 1천년전 사냥꾼이 쏘았다는 화살 흔적이 남아있다.

부도마다 천년가람 흔적 … 환희봉엔 금돼지 전설이

채의 전각이 자리해 있었으나 지금은 자연석에 새겨진 '심원사지'라는 명패만이 이곳이 심원사터였음을 말해준다. 흩어져 있는 주춧돌과 축대위를 덮고 있는 덩쿨이 부처님 땅을 보호하고 있는 듯하여 죄스러웠다.

일제때만해도 심원사에는 화산경원(華山經院)이란 강원이 있었다. 이곳에서는 경학 연구뿐 아니라 능력있는 스님들을 외국으로 유학시키는 등 교육에 주력했었다. 현대의 고승들 가운데 심원사강원 출신이 많다고 한다. 근세의 대강백 운허스님이 화산경원의 마지막 강사였다 하니 심원사는 우리에게 가까운 시절의 가람이었다.

마지막 강사 운허스님

안내병의 발길이 보개산으로 향했다. 심원사에는 꼭 참배해야 할 곳이 있다는 것이다. 국내 최고의 지장도량의 발원지를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해발 870m의 고지를 군인들이 점령하듯 단숨에 올랐건만 한시간 반이나 걸리는 험한 산행이었다. 50여년간 군인이외에는 사람의 발길을 거부했던 길이기에 험난하기가 가시밭길이었다. 군데군데 타다남은 고목이 아물지 않은 전쟁의 상처로 남아있었다.

보개산은 역시 명찰이 있어야 했던 명산이다. 8부능선쯤에 자리한 보개산 환희봉의 석대암에서 잊혀졌던 민통선내의 대지를 내려다 보았다. 터질만큼 탁트인 전망, 한국의 선으로 대표되는 산등성이가 부처님이 법을 설하던 영산회상을 연상케 한다.

여기가 한국 최고의 지장도량처다. 불교가 한반도에 전래된 지 얼마되지 않아서부터 선조들이 지장보살을 친견하고자 했던 성지다.

석대암의 좌측편에 큼직한 바위가 있다. 석대암 우물터다. 안내병의 소개에 따르면 이곳이 지장보살이 출현한 곳이란다.

유점사본말사지에는 그 장면이 이렇게 묘사되어 있다.

"신라 성덕왕 19년(720)의 일이다. 보개산 기슭에 이순식(李淳植)이란 사냥꾼이 있었다. 어느날 동생과 함께 사냥길에서 큰 금돼지를 발견하고 활을 쏘아 맞추었다. 피를 흘리며 도망가는 금돼지를 쫓아 환희봉 근처의 샘물까지 왔다. 두 형제는 샘물에서 왼쪽 어깨에 화살이 꽂힌 지장보살 석상을 발견했다. 피를 흘리고 있는 불상앞에서 두 형제는 크게 깨달은 바가 있어 참회하고 출가했다. 그뒤 3백명의 사냥꾼 무리를 제도하고 이 지장보살상을 모셔 석대암을 지었다."

이후 석대암의 지장보살상은 수많은 이적과 영험으로 '살아있는 지장보살'로 받들어졌고 참배객이 줄을 이었다. 석대암도 6.25때 폐사되었다. 이때 지장보살 석불은 어디론가 사라졌다. 전쟁이 끝나자 지장보살상은 2백리나 떨어진 강원도 철원땅에 다시 그 모습을 나투었다.

주민들 살생금기 지켜

보개산의 심원사는 오늘에 이르러 옛 절터와 함께 두개의 심원사로 존재해 있다. 3년전 군부대 불자장병을 위해 심원사지 밑에 군법당 심원사를 창건했다. 그리고 또하나의 심원사가 있다. 강원도 철원군 관인면에 자리한 지장도량 심원사(주지 영도)가 그것이다.

관인면의 심원사는 6.25당시 잃어버렸던 지장보살상을 되찾아 모신 기도도량이다. 이 지장보살상은 높이가 90cm, 무릎폭이 70cm가량의 작은 석불이다. 머리에 투건을 쓰고 내려감은 듯한 눈, 잔잔한 미소, 왼쪽 어깨에는 천년전 이순석이 쏜 화살에 맞아 손상된 흔적이 남아있다. 보개산 석대암으로 돌아가야 할 일이 남아서일까. 강원도 심원사 지장보살은 도금을 하여도 며칠이 지나지 않아 금칠이 벗겨지고 만다고 한다.

심원사 주지 영도스님을 비롯한 대중들은 5년전부터 잃어버렸던 보개산 심원사터 찾기운동을 펼쳐왔다. 옛 토지문서를 찾아내고 자료를 모아 최근에 2백50만평의 정재를 찾았다. 그리고 계속하여 심원사 중창불사를 발원하고 각고의 노력을 하고 있다.

◇민통선의 최고 최대 절터, 심원사지(위). 군부대가 자리한 사지는 50여년간 향훈이 끊어졌다. 6.25이전 폐사되기 전의 심원사 전경(아래 오른쪽)과 심원사지임을 밝혀주는 표석(아래 왼쪽)

하늘에 금방이라도 눈이 내릴 듯 잿빛 구름이 가득했다. 산속이어서 일찍 지는 땅거미를 따라 하산을 시작했다. 얼어붙은 보개산을 내려오면서도 안내병의 이야기는 계속된다.

산세가 수려한 보개산 계곡은 사람의 발길이 끊긴 지 오래되어 산짐승, 물고기들이 많다. 그런데 이지역에서는 살아있는 생명의 살생이 금지되어 있다. 불문율처럼 내려온 이 불살생은 부대장들까지 앞장서서 지키고 있다. 살생이 있으면 부대내에 사고가 난다는 것이다.

대원본존 지장보살. '모든 중생이 부처가 될 때까지 성불하지 않겠다'며 중생구제의 현장에 상주해 계시는 지장보살. 이렇게 지장보살의 원력은 계속되고 있었다.

금년은 을해년 돼지해다. 보개산 심원사를 찾은 일행은 지장보살 화현이었던 금돼지의 재출현을 기대하며 하산길을 재촉했다.

〈철원 보개산=이준엽 기자〉

불교 대중화를 선도하는
대원불교대학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2년제 야간, 전문과정 •교계 최고의 강사진 •20년 역사의 불교계 최초 전문 교육기간

1. 모집학과: 불교학과 { 출강과정 ○○명 / 통신과정 ○○명
2. 지원자격: 불교를 배우고자 하는 자.
3. 전형방법: 서류전형후 개별통보
4. 원서교부 및 접수기간: 1995년 2월말일까지
5. 교 과 목: 주5일 수업
6. 특기사항: 졸업후 소정의 법사고시를 거쳐 법사호 수여

1학년	1학기	불교학개론	선종사상	한국불교사	인도불교사	불전개설
	2학기	불교입문	화엄사상	밀교사상	법화사상	정토사상
2학년	1학기	의식이론	반야사상	포교방법론	불교미술	유식철학
	2학기	의식실수	불교상담학	불교복지론	종교대학 종교학	원전강독 I

※ 기타 상세한 사항은 본교로 문의 바람
140-190 서울 용산구 후암동 358-17
전화 : 776-7156, 773-9171, 754-1613 FAX : 756-7258
대원불교대학
대원불교대학 · 대원불교대학 · 대원불교대학 · 대원불교대학 · 대원불교대학 · 대원불교대학 · 대원불교대학 · 대원불교대학 ·

1995 새해 아침
이 기쁜 오늘,
부처님 자비 가득한 한해가 되길 빕니다.

삼보사
주지 대평
신도회장 신재철
총무 전인순
인천시 북구 임학동 31-3
☎ (032) 542-5131

삼성암
대중일동
서울시 도봉구 수유1동 488번지
☎ 988-1996, 9300

금강경독송회
지도법사 김재웅
회원일동
서울시 성북구 정릉 2동 131-80
☎ 742-0172

전북불교대학
학장 강건기
부학장 한광수
기획실장 백준기 교무처장 노정희
학생처장 이현석 교화처장 백정구
사무처장 정민권 간사 유혜선
전북 전주시 완산구 다가동 1가 1-1번지
☎ (0652) 86-3977, 86-3978
FAX (0652)86-3977

사천왕사
주지 현능
신도일동
서울시 노원구 상계 6동 737
일신프라자 B/D 401호
☎ 939-3900

삼보사
주지 윤지원
신도회장 임석순
거사림회장 홍성걸
연화회장 차정순
서울시 은평구 역촌 1동
☎ 352-6406

불교상식백과

불자들이 궁금하게 여기는 문제,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상식을 알기 쉽게 풀이한
한국불교 초유의 백과사전

불교의 기초교리는 물론, 경전 · 인물 · 용어 · 미술 · 민속 등 불교에 관한 모든 것을 총 22장 1,023항목으로 정리, 불교의 총체적 모습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게 해준다.

효문출 주관/상·하 1,352쪽/각 25,000원



▶목차 제1장 불보살의 명호/제2장 불제자와 호법선신/제3장 경전속의 인물/제4장 불교를 빛낸 인물/제5장 경전의 세계/제6장 불교의 명저/제7장 불교의 문학/제8장 법수로 배우는 교리/제9장 중요한 교리용어/제10장 불교에서 나온 말/제11장 불교의 수행법/제12장 불교의 의식/제13장 불교의 예절/제14장 불교의 역사/제15장 불교의 종파/제16장 세계 불교의 현황/제17장 사원의 구조/제18장 유명한 절/제19장 불교의 미술/제20장 불교와 민속/제21장 불교의 상징과 법구/제22장 숫자로 본 불교

불교시대사
● 서울 종로구 관훈동 197-28 백상 B/D 13층
● 전화 (02) 730-2500(대)
● 팩스 (02) 723-5961

1995 새해 특집

불교 서적 전문
책방 여시아문
서울 종로구 견지동 110-33
● 전화(02) 737-8881(대)737-0695(직통)
● 팩스(02)737-0696

재미있는 선 이야기 · 100

꽉 막힌 가슴을 확 뚫어주는
선사들의 청량법문

신비스럽고 이상하게만 여겨지는
불교의 최고 수행법인 禪을
일반인들이 쉽게 이해하고 접근할 수 있도록
핵심적이고 청량감 넘치는 선어
100개를 뽑아
선사들의 일화를 곁들여 해설한 책.
일상에 매몰돼 잠들어 있는 우리의 영혼을
뒤흔들어 깨우는 선사들의 사자후가
책 갈피갈피에 살아 숨쉰다.



申智宇 편저
260쪽/값 5,000원
불교시대사
● 서울 종로구 관훈동 197-28 백상 B/D 13층
● 전화 (02) 730-2500(대)
● 팩스 (02) 723-5961

불광
꿈나무 총서

어린이 천수경



그 동안 '천수경 이야기' 100만인 읽기 운동을 펼치며 천수경 신행운동을 펼쳐온 김호성 법사님이 어린이를 위해 엮은 책. 동시와 동화, 그리고 큰스님들의 재미난 일화를 곁들여 재미나게 천수경을 공부할 수 있게 했다. 어린이들이 쉽게 천수경을 이해하며, 동시에 독서와 사색의 폭을 넓힐 수 있어 주입식의 사고방식에서 벗어나게 해줄 것이다. 부모님과 함께 공부하거나 어린이 법회 교재로도 좋은 책이다.

- 글 김호성 - 그림 이정문/신국판/ 값 3,500원

불광출판부 ● 전화 (02)420-3200 ● 팩스 (02)420-3400

이와같이 나는 들었다

암도스님 불교이야기



오랜 시간 불교 포교에 앞장서온 암도 스님이
불교의 현대화에 역점을 두고
현대불교의 지침이 될 수 있는 경전을 찾아
생활에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해 엮은 책.

암도 지음 / 346쪽/ 값 6,000원

우리출판사 ● 전화 (02) 313-5047,5056 ● 팩스 (02) 393-9696

부처님 말씀 나누면, 다시금 새로운 한 해 ● ● ●

무비스님 완역 한글 화엄경

"2천 여 불자가 이미 화엄경을 모셨습니다."



화엄경은 부처님께서 정각을 이루신 후 최초로 설한 경전입니다.
무비스님 완역 한글 화엄경은 80권本 화엄경의 완역으로서 누구나 쉽게 읽을 수 있으며 깨달음의 깊은 세계를 직접 느낄 수 있습니다.

대덕 스님과 석학들이 한결같이 권하고
언론에서 격찬하는 무비스님 한글화엄경!

※내년 1월부터는 값이 오릅니다. 지금 결심하십시오!
현 정가 (전12권) 130,000원

도서출판 민족사 ● 종로구 청진동 208-1
● 전화 (02)732-2403~4,722-7679 ● 팩스 (02) 739-7565

고향가는 길

김영만 불교목판화 / 글 모음집

불교와 예술에 대한 열정으로 가득찬 혼신의 역작!



고향은 넉넉함, 푸근함,
너그러움, 여유 등이 넘쳐나는 곳이다.
김영만은 현대인들이 상실해가고 있는 바음의 고향을
회복하고자 하고 있으며,
그것이 불교적으로 되어야만 함을
목판화와 글을 통해 표현하고 있다.

국배판/186쪽/값 17,000원

도서출판 운주사 ● 서울 종로구 청진동 6번지
● 전화 (02) 720-9372.3 ● 팩스 (02)723-0646

어린이 불교성전

어린이들에게 불심을 ·····



신국판/
369쪽/
값 9,000원

거리에서 뛰어노는 아이들의 밝고 맑은 모습을
볼 때마다 '부처님 말씀을 저 아이들에게 어떻게 전할까?'
하고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의 소중한 아이들에게 꿈과 사랑을 가르쳐 주는 것,
인격형성의 토대를 만들어 주는 것은
우리 모두가 서로 나서서 해야 될 일입니다.
'어린이 불교성전'은 우리 말씀의 뿌리요, 미래인
어린 불자들에게 바른 불교문화를 알게 하고 더 나아가
부처님 말씀을 생활 속에 실천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는 경전입니다.

도서출판 단이슬 ● 서울시 중구 충무로 3가 38-22 ● 전화 (02)267-8101

觀 명상을 통해 얻어지는 자유

마음의 지배를 받지 말고 마음을 다스리는 자가 되라!



수자타 저/하숙희 역
/ A5 변형/ 141쪽/ 값 3,000원

깨달음에의
도달은
단지
끊임없는
수행의 결과일 뿐…
나도 그걸
할 수 있다

불일출판사 ● 서울 종로구 청진동 6번지
● 전화 (02) 720-9372.3 ● 팩스 (02)723-0646 ● 영업총판 운주사

영원한 자유의 길

성철 큰스님께서 평생 말씀하신 오롯한 진리의 결정체!



4×6판/184면
/값 2,000원

'수도인은 송곳으로 다리를 찌르고
바늘로 입을 꿰어 매고서 오로지 일체만사를 다 버리고
영원불멸하는 자성을 밝힘 따름이다.'

- 본문 중에서 -

참고 나면 누군가에게 꼭 전하고 싶은 이야기…
법공양으로 특히 좋습니다.

도서출판 장경각 ● 문의 / 해인사 백련암 (0599)32-7300.
서울 사무실 (02)277-2676 ● 대원사(총판) (02)323-5511~3

절로 가는 길

텅 비어버린 그러나 가득찬 이야기



우리는 절문 앞을 수없이 기웃거리며 다녔다.
그러나 우리는 절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른다.
왜 절이 그토록 좋은지 한없이 가도 싫지 않은
그 신비는 무엇인지 우리는 알 길이 없다.
여기 이 책 속에 그 해답이 있다.

천영일 저/ 신국판 /489쪽/ 값 7,000원

대한기획출판부 (051) 865-4383 ● 서울 종로구 청진동 6번지
● 전화 (02) 720-9372.3 ● 팩스 (02)723-0646 ● 영업총판 운주사



종단간부회의 주재



박서봉스님(태고종 총무원장)은 오는 5일 오후2시 태고사에서 각급기관장 및 태고종 3사 3직 스님들이 참여하는 '종단간부회의'를 주재한다.

종정탄신기념 봉축사



전운덕스님(천태종 총무원장)은 5일 총본사 구인사에서 봉행되는 2대 종정 남대충스님 탄신일 기념 봉축법요식에 참석 봉축사를 할 예정이다.

새해 대서원 불공



지광 진각종 통리원장은 1월 4일 통리원에서 신년하례식을 갖고 1월 9일~15일까지 새해 대 서원불공을 한다.

금석학 · 화엄경 강의

지관스님(해인사 주지)은 오는 5일과 6일 가산불교문화원에서 금석학과 화엄경 강의를 한다.

어린이 지도자연수 참석

정관스님(범어사 주지)은 12월 31일부터 1월 2일까지



경주 도투락월드에서 열린 제 18차 전국어린이 지도자 연수회에 참석, 지도자들에게 법문을 설했다.

제주불교협 신년법회



중원스님(관음사 주지)은 오는 5일 오후 5시30분 제주 오리엔탈호텔 대연회장에서, 을해년 제주불교인들의 신심과 화합을 다짐하는 제주불교협의회 신년하례법회를 봉행한다.

포교원 개원식 참석

설적운스님(골굴사 주지)은 오는 7일 오후 4시 서초구 잠원동 골굴사 선무도 서울포교원(원장 강찬선)개원식에 참석, 도심포교에 앞장서 달라는 격려사를 할 예정이다.

성도절 기념법문



정현스님(용주사 주지)은 오는 8일 성도재일을 맞아 용주사 수원포교당(주지 성관)에서 성도절 기념 특별법문을 설할 계획이다.

인도불교성지 참배

현고스님(송광사 주지)은 오는 6일 광주 불일회 회원들과 함께 인도불교성지 참배를 위해 12박 13일의 일정으로 출국한다.

BBS '오늘을~' 진행



이기영박사(한국불교연구원장)는 '현대사회와 원효의 화쟁사상'을 주제로 오는 3일부터 7일까지 5일간 BBS 불교방송 '오늘을 이끄는 불교'의 진행을 맡는다.

총무처장관에 취임

서석재씨(민자당 당무위원)는 구랍 23일 내각개편에서 총무처 장관에 임명됐다. 4선의원 출신인 서 장관은 61년 부산 동아대를 졸업하고 동아고 교사로 재직중 정치에 입문해 민추협상임위원, 통일민주당 사무총장, 민자당 당무위원직 등을 역임했다.



청와대 정책수석 말아



박세일교수(서울대 법대)는 구랍 23일 있은 내각개편에서 청와대 정책기획수석에 발탁됐다. 박수석은 서울대 법대, 미국 코넬대를 졸업하고 서울대 법대 교수로 재직중이다.

우리는 돼지 띠 "일 욕심 많아요"

한글 불타조사원류 간행

도문스님(61, 대각사주지) 용성대종사의 법제자인 동헌 원규대선사의 탄생1백주년을 맞는 을해년은 많은 의미를 갖는다. 올해에는 불교의 5대 수행법, 전법게등을 수록한 '불타조사원류'를 한글로 간행하는 것이 계획이다.

개혁불사 적극추진

범하스님(49, 조계종 총무부장)중요한 시기에 종단의 중차대한 소임을 맡게 돼 새해를 맞는 소감이 남다르다.

올해에는 전종도들의 뒷받침으로 그동안 지속돼온 종단 개혁불사를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불교의 사회화에 역점

시현스님(49,조계종 문화사회부장)복지사업을 구체화시켜 불교의 사회참여를 적극 실현할 것이다. 아울러 국제화시대에 발맞춰 세계무대에서의 한국불교의 위상정립과 불교적인 포용력으로 남북문제를 풀어 나가는데 일익을 담당하고 싶다.

미국 유학길 오를 예정

현능스님(37,사천왕사 주지) 지난 6년간 사천왕사의 주지직을 수행하면서 많은 어려움끝에 맞이하는 을해년이라 감회가 남다르다. 주지직을 물러나 오는 4월 미국 유학길에 오를 예정이다. 불교의 국제화, 세계화를 위해 불교관련 학문을 미국에서 공부하여 21세기 불교를 대비하고자 한다.

지방국 개국에 전심전력

김태호(61, 불교방송 사장) 불교방송의 현안불사인 지국개국이 소망이자 전심전력을 다해야 하는 일이다. 올해가 돼지해인 것처럼 모든 불자가 일심동체되어 돼지처럼 순박하고 거짓없는 한해가 되길 발원한다.

아들 앨범 사랑받았으면

한명숙(61, 가수) 돼지는 행운을 부르는 영물이라 한다. 작은 소망이 있다면 1월에 나올 아들의 1집 앨범이 팬들에게 많은 성원과 사랑을 받았으면 좋겠다.

한국불교 해외 알릴터

리선행(49, 수미산여행사 회장)행운의 표상으로 일컬어지는 돼지해에는 지구촌 모든 사람들에게 항상 좋은 일만 이어졌으면 한다. 전세계에 한국불교문화의 우수성을 전하는 매개체 역할을 하고 싶다.

논문 재결집 계획

이봉춘(49, 동국대 불교학과 교수) 올해 을해년을 결집의 해로 정했다. 20여년동안 불교학을 연구하면서 발표한 여러편의 논문들을 각 분야별, 시기별로 재결집하는 것이 올해의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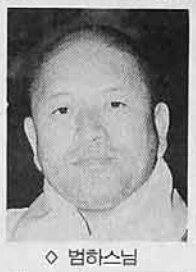
불교세계화에 앞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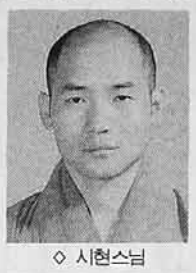
송병욱(49, 불교방송국 재단사무국장) 한국불교의 세계화를 위해 포교에 탐욕을 내고자 한다, 돼지처럼. 세계불교를 위해 불자 모두 희생정신을 갖고 봉사하고 힘써야 할 때라 생각하고 불교인으로 바른길을 걷고자 정진했으면 하는것이 나의 소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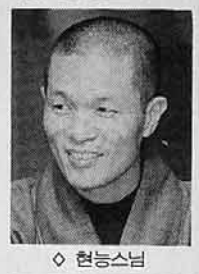
"가수 포교사로 뭔 터"

김흥국(37, 가수)을해년은 '김흥국의 독무대'로 만들 것을 약속드린다. 2월이 되면 불교방송의 '백팔가요' 가영·호남에서 방송될테니 방송포교사로서 한몫을 톡톡히 해낼 것이고, 3월엔 신곡이 발표될 예정이니 가수로서도 최선을 다할 생각이다.


◇ 도문스님


◇ 범하스님


◇ 시현스님


◇ 현능스님


◇ 김태호씨


◇ 한명숙씨


◇ 리선행씨


◇ 김흥국씨

백성희 신성일 김무생 박찬갑

늦깎이 동국가족들 "가슴 설레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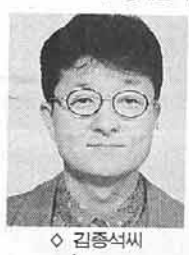
동국대 문화예술대학원, 문화 · 연예계 스타 대거 입학


◇ 백성희씨


◇ 정재만씨


◇ 박상원씨


◇ 신성일씨


◇ 김종석씨


◇ 박찬갑씨


◇ 김무생씨


◇신혜수씨


◇ 김용철씨


◇ 김지현씨

종립 동국대에 국내대학으로는 처음으로 개설된 문화예술대학원에 문화, 예술, 연예계의 '스타'들이 대거 입학했다.

대학원측은 지난 20일 각 학과별 합격자를 발표했다. 1백30여명의 합격자중 화제의 대상이 되는 신입생은 연극전공 김종석(M.C), 영화영상전공 신혜수(영화배우), 관리자과정으로 신성일(영화배우) 박상원(탤런트) 김무생(탤런트) 박인자(숙대 무용과 교수) 정재만(숙대 무용과 교수) 박찬수(목아 박물관장) 박찬갑(조각가) 김용철(소설가) 백성희(연극인) 김지현씨(가수) 등.

숙명여대 박인자교수는 "넓지 않은 문화예술인이 모이는 자리인 만큼 무용이외에도 전반적인 문화예술인들과 다양한 교류를 하고 싶다"며 입학 소감을 밝혔다.

동대 출신으로 연극과에 입학한 김종석씨는 모교에 처음으로 설립된 문화예술대학원에 입학하게 돼 감회가 남다르다며 "앞으로 이 대학원을 거쳐간 사람들이 우리 문화예술계의 선구자적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박찬수,신성일, 박상원, 김무생씨등은 "그동안 많은 실전경험을 해왔으나 이론적으로 혹은 관리자로서 마땅한 교육의 장이 없어서 안타까워 하던 중 이번에 좋은 기회가 마련돼 기쁘다. 새로운 각오로 최선을 다해 면학에 힘쓰겠다"며 의욕을 보이고 있다.

〈김중근 기자〉

신년 연휴 특집 방송

〈불교방송〉

▲원단기획 종정 월하 큰스님께듣는다(1.1 10:05~11:00) 월하스님으로부터 거듭 태어나야 할 한국불교의 새로운 모습과 위상에 대해 들어본다.

▲날다다 좋은날 되소서(1.1 11:05~12:00) 교계 유명인사로부터 일반신도에 이르기까지 새해 희망과 꿈을 다채롭게 듣는다.

▲보도특집 최병렬 서울시장에게 들어본다(1.2 08:10~09:00) 6월 본격적인 지자제실시를 앞두고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21C 도시발전계획을 듣는다.

▲월주스님께 들어보는 새시대 새불교(1.20:05~11:00) 온갖 사회비리와 병폐를 치유하고 새로운 시대를 만들어 가야하는 종교인의 역할이 다른 어느때보다 크게 요구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새로 취임한 조계종 총무원장 월주스님의 포부와 계획을 들어본다.

▲소리로 듣는 연하장(1.2 11:05~12:00) 각계각층의 인사들이 불교방송 청취자들에게 띄우는 신년인사.

▲광복 50년, 분단 50년(1.2 15:05~16:00) 분단 50년 동안 계속되어 온 남북대화와 접촉, 이산가족들의 아픈 사연들을 통해 분단이 가져 온 한반도의 역사를 돌아보고 급변하는 세계정세 속의 한국의 앞날을 예견한다.

▲보도특집 불교문화재 보존관리 이대로 좋은가 (1.3 19:20~20:00) 훼손과 방치의 일로에 있는 불교문화재의 실태파악과 불자와 관련자들의 인식을 제고하고 보존관리에 대한 새로운 방향을 설정, 제시한다.

▲보도특집 사찰환경 파괴되고 있다.(1.5 19:20~20:00) 청정환경의 보루인 사찰주변이 온갖 쓰레기와 소음으로 멍들어 가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현장취재를 통해 그 문제점을 파악하고 예방책을 제시한다.

〈KBS〉

▲세계의 다큐멘터리 실크로드(1.6 23:10~24:00) 아시아 내륙을 동서로 횡단하던 고대의 교역 교통로, 실크로드를 따라 동서문화의 교류와 불교전래 과정을 살펴본다.

〈sb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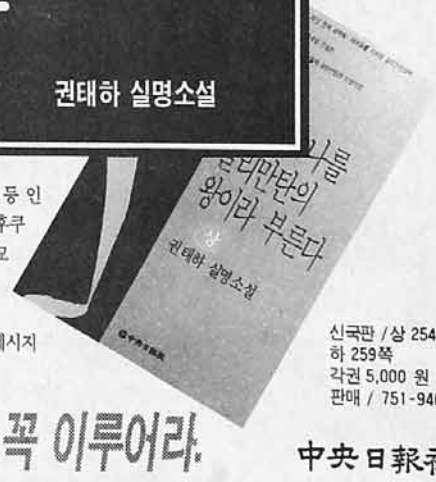
▲아! 북녘, 깨어나는 천년의 신비 고구려 고분벽화(1.4 23:00~)광복50주년인 새해를 맞아 분단이후 최초로 북한의 고구려 고분벽화가 영상물로 기획돼 방송된다.



일상의 평범을 거부하고 세계속에 뛰어들어 자신의 꿈을 이룩한
大韓國人 최계월의 불꽃같은 인생드라마

그들은 나를 칼리만탄의 왕이라 부른다

권태하 실명소설



인도네시아 칼리만탄섬(옛 보르네오)에 경상북도만한 정글을 개척, 원목·조림사업을 하는 한국인을 아는가. 인근 자바해 마두라 지역에 횃불을 밝히고 「產油 한국」의 국가적 과업에 마지막 승부를 거는 사업가의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는가. 동경 시절 낮에는 야쿠자의 두목들을 휘어잡고 밤이면 일본 정계 거물들과 천하대세를 논했던 등 큰 사나이, 서슬퍼런 일본 군국주의 시대에 건습사관(소위) 임관식을 앞두고 「나는 이 전쟁에 협조하지 않겠다」고 버티던 기개와 배짱의 사나이. 일찍이 수카르노·수하르토 등 인도네시아의 전·현직 대통령, 기시·사토·미키·후쿠다·스즈키·다나카 등 일본 역대 수상들과 맺은 교분을 바탕으로 이미 수십 년전 사업의 영역을 국제무대로 넓힌 세계인 최계월. 이제 그가 바쁜 일상속에서 자꾸만 왜소해지는 우리들에게 뜨거운 메시지를 전한다.

신국판 / 상 254쪽, 하 259쪽
각권 5,000 원
판매 / 751-9468

한국인이여, 그대 가슴에 꿈을 품어라. 그리고 그것을 꼭 이루어라.

中央日報社

불교중흥 원년 · 포교 활성화 주력

종단 · 신행단체 새해사업 이렇게 펼친다

각 종단과 신행단체들은 95년을 '불교중흥의 원년'으로 정하고 21세기를 준비하는 새로운 도약을 다짐하고 있다. 각 종단과 단체가 밝힌 새해 계획을 살펴보면 포교활성화, 대작불사추진등과 함께 자체 조직 재정비 등이 중점 사업으로 들어 있다.

▲조계종(총무원장 월주)=오는 5일 사업의 세부안이 일정과 함께 발표되는 1백일 계획에 의해 사업을 추진한다.

우선 조계종은 1995년을 포교중흥의 해로 잡고 21세기를 향한 포교종합 청사진을 마련하며 포교10개년 계획을 세운다. 포교사의 자질향상을 위해 포교사고시를 실시하고 정기적인 포교토론회를 개최한다. 또한 승려교육의 중요성을 감안 승려 재교육을 위한 세미나를 갖고, 지방 승가대와 종립학교의 실태조사에 나선다. 또한 조계종은 종무행정의 전산화를 완료한다는 계획하에 전산작업과 함께 조계종 사찰 토지의 전산화 및 종단재산의 망실 · 유휴토지에 대한 종합적 대책도 마련한다.

▲태고종(총무원장 서봉)=종단의 체질개선과 혁신을 위한 개혁작업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지난해 11월 정기 중앙종회에서 구성된 '종단발전특별위원회'를 주축으로 근본적인 종단개혁방안을 추진하기 위해 구체적인 사업안을 오는 3월까지 구성하고, 3월 임시종회를 거쳐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종단기본 재정 마련, 각종 제도개혁, 참신한 인재 등용 등이 개혁작업의 주요사안이 될 것으로 보이고 지난해 발간키로 했다가 미뤄진 태고종의 연혁 · 사찰 · 승려수등 모든 것을 한 눈에 볼수 있는 태고총람도 발간할 계획이다.

▲천태종(총무원장 운덕)=지난해부터 시작된 총본산 구인사와 중국 국청사에서의 조사전 건립 불사를 활발히 진행하는 한편, 한 · 중 · 일 삼국 불교를 통한 문화교류와 우호증진을 다지는 등 국제교류에 전력할 방침이다.

또한 천태종은 수도권 포교의 중추적 역할을 맡게 될 관문사(서울 우면동 소재) 건립을 계속 추진하고 사회복지사업, 환경운동 등 사회사업의 적극적 참여로 종단의 위상 강화를 꾀한다.

▲진각종(통리원장 지광)=지난해 12월 시작한 진각회관(대구 중구 소재)이 96년 완공을 목표로 꾸준히 추진된다.

또한 그동안 전개해온 소년소녀가장, 사회복지단체, 세계기아민 등을 돕기 위한 '은혜를 나눕시다' 운동을 종단차원에서 추진하며 환경보호를 위한 진각종 청정국토가꾸기 운동을 올해 역점사업으로 진행한다.

▲법륜종(총무원장 일화)=교육 문화 포교의 전당이 될 법륜회관 건립불사를 추진하고 종도합동득도식(10월 예정)을 갖는다. 지방순회법회, 천도대법회(6월)등 각종 법회활동 을 전개하며 재소자교화, 불우이웃돕기운동 등 사회복지사업의 활성화를 꾀한다.

▲대한불교진흥원(이사장 서돈각)=8월16일 진흥원설립 20주년을 맞아 기념사업으로 세미나와 〈20년사〉를 발간한다. 3년전부터 준비한 〈결집3천, 21세기의 한국불교〉를 8월경 선보이며 93년도에 발간한 〈불교총람〉을 증보개정,CD롬 타이틀로 제작한다. 매년 진행하고 있는 교육연수, 학술진흥, 포교, 법당건립, 불서발간사업지원 등을 계속사업으로 추진하며 특히 군법당 1개 설립, 과산 다보수련원 요사 채건립 등 포교사업에 주력할 예정이다.

▲우리는 선우(공동대표 남지심 · 박광서)=먼저 불교의 세계화와 복지사업일환으로 캄보디아 스님들의 학업을 돕기위한 기금모금을 펼친다. 교육사업은 지역별 기도법회를 강화하며 1월초에 처음 실시하는 청소년수련회를 여름방학을 이용 어린이까지 확대하고 성인수련회도 계획중이다. 환경운동차원으로 교계 환경단체와 연합 '알뜰살이 운동'을 전개해 물물교환, 우리농산물 판매등을 펼친다. 초파일 자비의 등달기와 군포교지원등의 정례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치며 이러한 사업을 보다 원활하게 하기위해 '사단법인'을 추진할 계획이다.

▲전국불교운동연합(상임의장 지선)=그동안 일각에서 제기되었던 운동권 이미지를 벗기고 폭넓은 활동으로 불교중흥운동의 선봉을 자청한다.



천태종은 중국 국청사에 조사전을 건립하는 동시에 서울 포교를 목적으로 우면동에 관문사(사진)를 조성한다.

▲불교인권위원회(공동대표 진관 · 한상범)=불교인권법당 마련이 새해의 원력이다. 본말사 주지와 재가 청년불자를 대상으로 회원확보에도 힘쓰는 한편 불교인권학교, 여성불교학교를 개설할 예정이다. 사찰순회강연을 펼쳐 전국포교에 앞장서며 여성, 농어촌 어린이포교 활성화를 위해 후원회를 조직할 계획이다. 국내외 인권단체 등과 연계사업도 구상하고 있다.

▲군승단(단장 강남석)=법정이다. 또한 불교학술연구 및 자료집 발간과 주 1회 사회문제관련 법회를 개최해 대외적 이미지 제고와 내부결속에 주력할 방침이다.

▲불교인권위원회(공동대표 진관 · 한상범)=불교인권법당 마련이 새해의 원력이다. 본말사 주지와 재가 청년불자를 대상으로 회원확보에도 힘쓰는 한편 불교인권학교, 여성불교학교를 개설할 예정이다. 사찰순회강연을 펼쳐 전국포교에 앞장서며 여성, 농어촌 어린이포교 활성화를 위해 후원회를 조직할 계획이다. 국내외 인권단체 등과 연계사업도 구상하고 있다.

▲군승단(단장 강남석)=법주력하고 8월경 법요집을 개정 발간할 예정이다. 군승교육으로 하안거 교육(4박5일)을 실시하며 수련회를 개최한다. 특히 해외연수로 일본 동남아 인도 불교성지순례를 실시한다.

▲경제정의실천불교시민연합(회장 월주)=무료급식소 부산 자비의 집을 5월경 정식으로 개설하는데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외국인 노동자 대책기구를 설치, 보다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외국인 노동자권익을 보호할 전담기구 마련에도 주력할 방침이다.

▲조국평화통일추진불교인협의회(상임부회장 법타)=전국 5개지역본부의 지원강화와 회원 배가운동에 주력할 예정이다. 행사로는 남, 북, 해외 불교지도자 합동기원법회와 남북한 불교발전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한다. 또한 부처님오신날에는 북한불교 사진전 및 초청강연회를 펼친다.

▲대한불교청년회(회장 이상번)=21세기를 준비하는 원년으로 선포하고 1단계로 97년까지 3년간 조직정비 및 불청사업 활성화에 매진할 계획이다. 만해학교를 개설하며 3월경 만해스님 기념사업회를 결성한다. 법사 · 포교사 양성을 체계화시키며 회비납부를 의무화 한다.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회장 곽상인)=정세분석 및 정책자료집을 발간하며 미래불교에 대한 연구를 전담할 정책실을 신설, 과감한 투자를 한다. 다양한 불교 이벤트사업과 프로그램을 개발해 새로운 학생불교운동을 펼칠 예정이다.

▲보조사상연구원(이사장 현호)=구산선문, 16국사등의 자료집을 발간할 예정이며 정례 학술발표회를 계속한다.

▲한국불교연구원(이사장 이기영)=새해를 맞아 성도절 법요식과 함께 하례식을 갖고 '불이상'을 시상한다. 교사불교연수회를 마련하고 11월에는 국제학술세미나를 개최한다.



◇3월에 개국 될 불교텔리비전의 '불자예절' 녹화장면.

영상포교 혁명 "큐" 임박

불교텔리비전 5일 시험방송, 전국 시청권

올해 또 한번의 포교혁명이 이뤄진다.

매체포교의 총아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 불교텔리비전이 3월부터 본격 가동, 영상포교의 새 시대를 이끌어 가게 된다.

신규사원 채용에서 방송장비 구축, 스튜디오 개설, 위성안테나 설치 등 숨가쁘게 달려 온 불교텔리비전은 10월말 80억 규모의 불자주주 공모로 방송포교사의 자리매김을 단단히 했다. 주주공모에서 나타난 국내외 불자들의 호응은 방송포교 혁명의 토대를 마련케 했으며 본격적인 방송 개시 이후의 가능성도 충분히 보여 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무엇보다 불교텔리비전은 가시청 영역이 전국권이란 점에서 상당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더우기 위성안테나를 설치할 경우 케이블이 없이도 전국 어디서나 시청할 수 있도록 해 공중파 방송과 같은 효과까지 갖게 한 점은 산사와 난시청지역의 환영을 받고 있다. 이같은 불교텔리비전의 방침은 상업성 추구보다는 포교방송을 우선시 한다는 신념을 보여준 것이기도 하다.

또한 불교텔리비전은 전문영상사업단을 구성 다매체 다채널 시대를 앞질러갈, 질좋은 프로그램을 제작할 것을 선언했다.

사업단은 프로그램의 제작과 보급은 물론 언론 학계 등 직능별 조직화 작업도 담당하게 된다.

3월 개국이후 방영될 기본 프로그램의 틀은 이미 짜여져 있는 상태다. 또 1월5일부터 하루 4시간 실시될 시험방송도 본방송과 다름없이 진행해 '실전'의 경험을 충분히 쌓는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불교텔리비전은 지역별로 개설되는 종합유선방송국(전국 54개지역)에 가입 신청을 하면 볼 수 있다. 이때 컨버터 설치비(5~6만원)와 보증금(3만원)을 방송국이 가입자의 가시청 지역에 유선방송 전용회선을 연결하고 TV수상기와 별도 수신장치인 컨버터를 연결해 준다.

시청자는 매월 수신료 1만5천원과 컨버터 임대료 2천원을 납부하게 되며 현재 계획상으로는 2월1일 시범방송부터 30개 채널을 시청할 수 있게 된다. 불교텔리비전의 채널은 32번이다. 〈태〉

조계종 '포교 10개년 청사진' 마련 태고종 '종단발전특위' 주축 개혁

진흥원 '20년사' '결집 3천~' 발간 우리는 선우 '알뜰살이 운동' 전개

중앙승가대 재원 마련 · BBS 지방국 추가 설립
장묘제도 법령 개정, 군승 증원 · 신도회 활성화 시급

을해년에 풀어야 할 과제들

개혁의 토대를 마련하고 새해를 맞이하는 불교계는 그 어느 때보다 알찬 한 해를 만들기 위한 준비에 분주하다.

해묵은 현안들을 비롯 올해 불교계가 역점을 두고 풀어가야 할 과제를 분야별로 점검해 본다. 〈편집자 주〉

불교관계 법령개정

지난 87년 불교재산관리법을 폐지하고 대체입법으로 제정된 전통사찰보존법은 전통사찰의 행위규제나 재산관리인 임명등 중요사항에 관해 교계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시킬 제도적 장치를 갖고 있지 않고 자율권을 지나치게 막고 있어 개정이 요구되고 있다.

불교계가 참여하는 전통사찰위원회 설치, 문화재 위원회에 불교관계자의 참여 제도적 보장, 공원계획의 수립, 공원조성 및 지정시 사찰주지와의 사전협의 및 종단대표의 참여를 보장하는 자연공원법등과 그 시행령의 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사찰들의 커다란 조세저항을 받고 있는 종합토지세 토지초과이득세 면세조치와 함께 종교의 자유와 특수성을 최대한 그려해 주는 '종교법인법'의 제정이 시급하다.

불교방송 지방국 추진

김영삼 대통령이 대선당시 공약으로 내건 공약사항중 가장 강조한 것이 불교방송 지방국 허가. 부산 광주등 두 곳은 허가를 얻어 개국준비에 여념이 없으나 불교계는 타 종교와 형평을 맞추고 또 대선공약으로 불교계에 약속한 대구 대전(또는 청주) 강릉(또는 춘천) 등 추가로 허가해 달라는 요구를 꾸준히 해왔다.

정부는 주파수 부족 등의 이유로 추가 허가에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공보처 산하 선진방송 위원회의 보고에 의하면 3~4개 정도의 지방방송망 설립은 충분하다는 보고이다. 불교계의 줄기찬 요구와 함께 지역에서의 만반의 준비가 필요한 사항이라 하겠다.

장묘제도 법률안 개정

지난해 잇따라 열린 장묘제도 관련 세미나에서 보여주었듯이 장묘제도개선은 이미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후손에게 남겨줄 생활터전이 묘지로 침식당하고 있는 현실에서 납골묘, 영탑조성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다. 보사부도 92년 묘지제도 자문위원회를 설치, 법률개정안을 입법예고 했었다.

중앙승가대 정규대 승격

지난 11월30일자로 김포군 금정사 부지로의 중앙승가대 위치변경 승인이 남에 따라 중앙승가대의 정규4년제 대학 승격의 전망이 한층 밝아졌다.

96년까지 정규대 제반요건을 갖추면 승격이 가능해 96년 3월1일부터 4년제 정규대로 개교할 수 있다. 그러나 최대 관건은 재원마련. 이전에 드는 총 비용이 2백78억원.

승가대는 올 11월30일까지 대학설치기준령에 의한 교사 체육장등 시설완공및 준공검사를 이행해야하고 공사비 67억원이 확보돼야 한다.

군승증원 및 특별교구설치

신임 조계종 송월주 총무원장이 지난해 11월 말, 정부에 제시한 대정부 건의서에서 지적한 것처럼 군대내 군법사(군승) 및 법당증설이 군포교 최대의 현안으로 제기되고있다. 94년 국방부 통계에 따르면 신자대비 군종목사는 67명이 초과한 반면 군승은 58명이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종교시설의 경우는 기독교가 1백2개소 초과되어 있으나 불교는 1백7개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시정이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 군승특별교구설립도 올해의 숙원사업으로 제기되고 있다.

신도회 재정비

지난해 불교계에 몰아친 개혁바람이 새해들어 21세기를 대비하자는 움직임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재가불자들의 구심점인 신도회의 활성화가 요구되고 있다. 현재 신도회는 각 종단, 사찰, 지역별로 구성되어 있으나 활동은 미비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조계종 신도회와 재가연합의 통합을 시도하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 신도회가 재기해 불교발전에 동참해야 한다.

아직도! 인도 성지 순례를 어렵다고만 생각하십니까?

감솔님 한해 동안 성원하여 주신 불자님께 감사드립니다. 올해는도 성실하게 안내하겠습니다. -수미산 가족 일동-

여행번호	방문지	여 행 일 정	요 금	출발일 '95.1	2월	3월	4월
INA-01	인도 10일	불교 4대 성지	150만원				
INA-02	인도 30일	인도 전역 자유여행자를 위한 왕복 항공권					
INA-03	인도 12일	방콕-델리-아그라-바라나시-보드가야-라지기르-파트나-바이샬리-쿠시나가르-룸비니-기원정사(바랄푸르)-럭나우-델리-방콕	180만원 (155만)	95년 2월 16일 3월 7일			
INA-04	인도 15일	방콕-델리-아그라-바라나시-보드가야-나지기르-파트나-쿠시나가르-룸비니-기원정사-산치-아잔타-엘로라-봄베이	210만원 (180만)	95년 2월 10일 3월 3일			
INA-05	인도 17일	방콕-델리-바라나시-보드가야-라지기르-나란다-파트나-바이샬리-쿠시나가르-룸비니-기원정사-럭나우-아그라-보팔-산치-잘가온-아잔타-오랑가바드-엘로라-뭄바드-봄베이-방콕	230만원 (200만)	95년 2월 7일 2월 28일			
INA-06	인도 22일	방콕-카투만두-룸비니-사나울리-기원정사-쿠시나가르-바이샬리-파트나-나란다-라지기르-보드가야-바라나시-상카시아-아그라-델리-보팔-산치-잘가온-아잔타-오랑가바드-엘로라-뭄바드-봄베이-몸몸보-아루라다푸라-폴로나누와-시기리아-캔디-방콕-아유타야-홍콩-마카오	280만원 (240만)	95년 2월 5일 2월 19일 3월 5일			

INDIA

인도관광성

그럼, 지금 수미산 여행사로 문의하십시오
풍부한 경험과 친절한 안내가
여러분을 따뜻하게 모십니다.
아무리 어려운 인도라하더라도
저희 수미산과 함께라면
만족하실 것입니다.

*출발예정일

대 만	(4박 5일)	1월 22일	(불광사 · 일월담 · 타이페이)	55만원
대 만	(4박 5일)	1월 24일	(불광사 · 일월담 · 화련 · 타이페이)	55만원
싱가폴 · 발리	(5박 6일)	2월 18일	(싱가폴 · 보래돌 · 발리)	90만원
싱가폴 · 발리	(5박 6일)	1월 9일	(싱가폴 · 바탐 · 방콕)	75만원
방콕 · 홍콩	(5박 6일)	2월 4일	(방콕 · 홍콩 · 마카오)	75만원
스리랑카	(8박 9일)	2월 14일	(스리랑카 페라헤라 축제)	140만원

(주) 수미산 여행사
SUMER TOUR CO., LTD
서울 종로구 수송동 46-19 원당빌딩 2층
전화 02-720-3241~7 / 팩스 02-720-3248
국외여행업 등록 제358호

여행번호	방문지	여행일정	요금	'95.1	2월	3월	4월
SMR-01	미얀마, 태국 8일	양곤-만달레이-파간-쾌구-방콕-아유타야(파타야)	129 만원	10	10 21	11 22	5 18
SMR-02	일본 5일	오사까-나라-교또	95 만원	18	17	17	20
SMR-03	일본 6일	동경-나라-교또-오사카	135 만원		15	8	22
SMR-04	대만 5일	타이페이-일월담-고웅-불광사	55 만원	22	24	12	20
SMR-05	대만 6일	타이페이-일월담-고웅(불광사)-화련	65 만원		24	23	8
SMR-06	태국 6일	방콕-파타야-아유타야	60 만원	8	8	15	21
SMR-07	동남아 3개국 8일	홍콩-방콕(아유타야)-싱가폴(바탐)	90 만원	18	21	17	10
SMR-08	동남아 4개국 10일	방콕-아유타야-보루부돌-홍콩-타이페이(불광사)	155 만원		27	19	14
SMR-09	(9박 10일) 홍콩 스리랑카	홍콩-콜롬보-아누라다푸라-폴론나누와-캔디-누와라엘리야(불즉산)	145 만원	10	14	9	15
SMR-10	(7박 8일) 태국 스리랑카	방콕-콜롬보-아누라다푸라-하바라나-캔디	108 만원	11	10,21	20	21

*상기 일정중 단체 출발시에는 일정 변경이 가능합니다.
*상기 코스 이외에도 다양한 상품이 준비되어 있으므로, 문의해 주시면 상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한국불자들, 깨달음의 땅 '부다가야'에 학교 세웠다

"공부하고 싶은 어린이 다 오세요"

성도절 화제

오는 8일(음력 12월 8일)은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이룬 성도절.

깨달음을 얻기 위해 6년 고행을 하신 석가모니는 수자타가 공양한 우유죽을 먹고 보리수 아래서 부처님이 되신다.

성도절의 의미가 한층 커지고 있는 요즘, 부다가야에 한국불자들에 의해 학교 설립, 분쟁마을이었던 두르가푸르에서 '깨달음'을 향한 이정표 노릇을 하고 있어 화제다.

인도 비하르주 부다가야에서도 오지인 두르가푸르 마을에 한국불자들의 성금으로 국민학교가 설립됐다. 이곳은 국민학교를 다닌 사람이 단 2명밖에 없을 정도로, 굶주림과 질병의 할벗은 삶을 사는, 불가촉 천민의 마을이다.

6개월간의 건립기간을 거쳐 문을 연 「수자타 아카데미」에서는 교사 6명이 1백50여 학생들에게 인도 국어와 산수 등 기초 교육을 시키고 있다. 학교가 생김으로해서 배워야 할 살 수 있다는 삶에의 의욕이 마을 전체에 확산되고 있다.

학교가 세워진 곳은 부처님과 관계가 깊은 유적지다. 부처님이 6년간 치열한 고행을 하고 니련선하 강가에서 '수자타'의 공양을 받으시고 성도를 이룬 곳이므로 학교이름도 「수자타 아카데미」로 불었다.

"배고픈 사람은 먹어야 하고, 아픈 사람은 치료받아야 하고 아이들은 배워야 합니다. 이것은 인종 국가 민족 종교 남녀에 관계없이 모든 인간이 누려야 할 기본권리입니다만 아직도 이 세상에는 먹지 못하고 교육받지 못하고 치료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학교설립에 앞장선 법륜스님(정토회 지도법사)은 정토회 국제사업부 Join Together Society가 설립된 목적은 바로 이러한 일을 하기 위해, 서로 만나서(Join) 함께(Together)하는 모임(Society)이라고 설명한다.

법륜스님은 그러나 '돕는다'는 차원이 아님을 강조한다. 인도인들은 한마을에서 대대로 수천년을 살아오는 전통에 비추어 볼 때 이 마을 사람들은 부처님께 공양올린 수자타의 후손들이 분명하다.

가난한 그들을 '돕는다'는 의미보다는 부처님께 공양올린 사람의 자손 자손들인 그들에게 부처님을 따르는 불제자로서 '은혜를 갚는 것'이고 '회향한다'고 보는 것이 더 옳다는 것이다.

지난 91년 인도 성지순례중 한 걸인 여인과의 만남으로부터 '부처님 자손들에게 회향' 원력을 세우게 됐다는 법륜스님은 다음해 '유영굴(부처님이 고행한 곳)'을 찾다가 두르가 푸르 마을과 만나게 된다.

정토회에서 모은 성금과 월간 「정토」주최로 갖는 인도 성지순례에 동참한 사람들이 숙식비를 아껴 마련한 돈으로 학교 설립은 이루어졌다.

땅을 파고 벽돌을 나르고 못질을 하는 학교건물공사에는 법륜스님은 물론이고 나이 어린 아이들까지 온 마을주민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동참했다.

J.T.S는 또한 지형이 낮아 홍수로 사람들이 전염병에 잘 걸리는 웨스트벵갈주 탐룩에 이동무료진료소도 세워 주었다. 세계에서 결핵환자가 가장 많다는 인도. 우리돈 8만원이면 죽어가는 결핵환자 1명을 살릴 수 있고, 담배 한가치를 아낀 돈으로는 굶어가는 한명을 먹일 수 있다고 한다.

법륜스님은 "우리 한국이 살기 좋아졌으니 제 3국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특히 인도는 부처님 나라이기에 중생을 무명에서 건져준 부처님의 은혜를 회향한다는 의미에서도 인도 전역에 불교를 되살리겠다는 각오로 한국 불자들이 나서야 할 것입니다."

인도의 부처님 발자취를 따라 싯달타태자가 태어난 룸비니에 '싯달타 학교', 춘다가 부처님께 마지막 공양을 올린 쿠시나가라에 '춘다 병원', 여성이 최초로 출가했던 곳인 바이살리에 '알라빨리 여학교' 그리고 부처님이 천상에 계신 마야부인께 설법을 하고 내려오신 상카시아에 '마야 양노원' 건립의 원력을 세워놓았다고 법륜스님은 귀띔한다.

〈이경숙 기자〉



◇ '깨달음의 땅' 부다가야 두르가푸르마을에 한국불자들의 성금으로 국민학교 「수자타 아카데미」가 문을 열었다. 원안은 법륜스님.

'수자타 아카데미' 150명 인도어린이 공부

8대성지서 교육·의료 봉사 … 법륜스님 원력

종단초월 공동발전 모색

'조계·태고 분규해결위' 구성

91년이후 중단된 조계종과 태고종의 분규사찰에 대한 논의가 다시 재연될 전망이다.

조계종총무원은 구랍 21일(가칭) 「조계·태고 분규해결위원회」를 구성하고 원산(교육원장) 정휴(종단목적사업추진위원장) 범하(총무부장) 지명(기획실장)스님등 집행부 간부임원으로 7인 위원을 구성하는 등 조계·태고 분규해결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조계종은 송월주 총무원장이 취임한 이후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로 선학원 대각회 문제와 함께 태고종과의 분규사찰 문제를 조속히 매듭짓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조계종은 중앙승가대 이전에 따른 막대한 비용의 재원마련에 분규사찰인 봉원사의 유휴재산을 매각 한다는 방침아래 태고종과의 분규사찰 논의를 가능한 한 조속히 실현시킨다는 방침이다.

한편 태고종은 구랍 26일 교계 기자들과의 간담회를 열고 "아직 조계종으로부터 공식적인 이야기를 듣거나 제의를 받은 바 없다"고 전제하고 조계종이 먼저 분규사찰문제를 거론해 온다면 이번 기회에 20여개에 달하는 분규사찰 문제를 일괄 타결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한편 교계에서는 '봉원사 부지 매각설'에 대해 "더이상 불교의 삼보정재를 팔아서는 안된다"는 공감대가 퍼지고 있다.

아무리 중요한 목적사업을 위한 것이라도 대대로 내려오는 불교재산을 팔아 이용하기 보다는 다른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는 것이다.

교계의 한 관계자는 "강남 봉은사가 땅 한평 사기 운동을 벌이는등 예전의 사찰땅 되찾기에 얼마나 고심하고 있느냐"며 재원을 마련하는 방안으로 땅의 매각은 신중히 고려해야 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소년가장 17명에 장학금
맑고 향기로운 음악회

소년소녀 가장을 돕기위한 '맑고 향기로운 음악회'가 1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구랍 26일 효암아트홀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맑고 향기롭게 살아가기 운동본부(본부장 윤청광) 주최로 열린 이날 공연에는 국악인 김영동씨, 가수 노영심, 김광석씨등이 아름다운 음악과 노래의 선율을 펼쳐 보였다.

공연에 이어 법정스님은 소년소녀가장 17가족에게 장학금을 전달했다.

이봉춘씨등 4명선정
10회 불이상 시상

제10회 불이상 수상자가 확정됐다. 불이회(회장 홍타희)는 연구분야에 이봉춘씨(동국대 불교문화대학 교수) 실천분야에 조길조법사(육군 제2군 사령부 군종참모), 장학분야에 이성렬씨(동국대 박사과정), 출가면학분야에 일진스님(일본 불교대학원에 재학)을 선정, 오는 8일 오전 11시 한국불교연구원 법당에서 시상식을 갖는다.

각 분야별 수상자에게는 3백만원씩의 상금이 수여된다.

조계종·선학원 만남 무산

선학원 임시 이사회 열어, 합리적 절차요구

조계종 중앙종회 선학원 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 법등)와 재단법인 선학원(이사장 정일)과의 만남이 무산됐다.

재단법인 선학원(이사장 정일)은 구랍 27일 임시이사회를 열고 조계종·선학원 문제의 합리적 해결책을 강구하기 위해서는 그 절차 역시 합리적 이어야 한다고 밝히고, 조계종의 일방적인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선학원 상무이사 법진스님은 "선학원에 증여된 재산은 명백히 공적 재산이므로 사설사암과 법인소속사암에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려는 조계종헌 9조 3·4항은 순리에 맞지 않는다"고 전제하고 "타종단이나 카톨릭 등에서 볼 수 있듯 유지 재단의 설립을 통한 재산관리가 안전하고 합리적인 방법이다. 조계종에서 각 교구 본사별로 유지 재단을 설립할 경우 현재 상황보다 한층 진일보된 상태에서 합리적 방안이 나올수 있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선학원은 조계종과 합리적·지속적 대화를 통해 「조계종·선학원」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원광국사 세속오계비 건립

화랑정신의 발상지 운문사 입구에

신라 화랑정신 발상지인 청도군 운문면 운문사 입구에 원광국사의 화랑 세속오계 비석이 세워졌다. 구랍 22일 열린 제막식에는 청도군 관계자와 스님 주민등 1백여명이 참석했다. 청도군이 이번에 세속오계비석을 건립하게된 것은 신라 화랑정신의 발상지인 운문사 알대를 기리기 위해서이다.

이 세속오계비는 자연석 화강암 받침대위에 높이 3.5m 너비 3m의 화강암에 '화랑오계'가 음각되어 있다.

10일, 천일기도 입재
광명선원 2돌기념

봉선사 서울포교당 광명선원(주지 초격)은 오는 10일 오전 10시 방배동 광명선원 법당에서 개원 2주년을 맞아 대법회 및 천일기도 입재식을 봉행한다.

이날 대법회 및 천일기도 입재식의 증명법사는 운경스님(봉선사 주지)이, 월운스님(봉선사 회주)이 입재법문을 할 예정이다.

초격스님은 "산중에서만 생각했던 천일기도를 도심 포교당에서 봉행할 수 있게된 것은 부처님의 원력 덕분"이라며 "많은 불자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불교언론인의 밤' 성료

한국불교기자협회(회장 변대용)는 구랍 26일 한국일보 13층 송현클럽에서 '불교언론인의 밤' 행사를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조계종 총무부장 법하스님, 태고종 총무부장 자월스님, 본사 회정희 편집국장, 불교신문 김종찬 편집국장, 불교TV 홍사성 제작국장등 교계 인사와 기자 1백여명이 참석했다.

청소년 윤리회복 실천대회 마쳐

윤리강령 결의, 강연·오락행사 도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가 주최하고 (사)대한불교청소년교화연합회 대전지부(지부장 종실스님)가 주관한 청소년 윤리회복 실천대회가 구랍 18일 대전 보현문화회관에서 성대히 개최됐다.

학생대표의 청소년 헌장 낭독으로 시작된 이번 행사는 모범청소년 및 지도자 표창과 청소년 윤리강령 결의, 이기영교수(동국대)의 '청소년의 도덕성 회복'을 주제로 한 강연 등으로 이어졌다.

종실스님은 인사말에서 "우리의 창조적 삶을 구현하기 위해 청소년 각자의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열린 '다함께' 시간에는 법명스님과 함께 한 레크리에이션을 비롯 학생대표들의 중창, 현대무용,사물놀이 등이 무대를 가득 메워 이날 대회에 참가한 2백여 청소년들의 열기를 고조시켰다.

조직 새롭게 정비
실천불교승가회

실천불교전국승가회(회장 청화, 이하 '승가회')는 구랍 23일 승가회 사무실에서 제15차 집행위원회를 가졌다.

이날 회의에서 94년도 사업 및 재정보고, 안건토론이 있었다. 안건토론에서 오는 2월 20일 총회를 갖기로 하고 총회 준비위원회를 구성, 위원장에 효림스님과 12명 준비위원을 선출해 94년 총괄적인 사업평가와 95년도 사업계획안을 구성하여 새로운 조직을 정비하기로 했다.



신년휘호·석주스님

소년가장돕기 정기연주
대한불교 소년합창단

대한불교 소년소녀합창단(단장·황학현)은 소년소녀가장돕기를 위한 제2회 정기 연주회를 오는 19일 오후 7시30분 한국일보사 13층 연주홀에서 갖는다.

이날 연주회에서는 찬불동요 10곡, 민요 3곡, 창작동요 3곡등이 공연된다. 지휘는 박이제교수(중앙대)가, 민선희씨가 반주를 각각 맡는다.

전통차 다기 대전
6~11일 경방필 백화점

95 한국전통차 다기 종합대전이 광리방의 주관으로 오는 6일부터 11일까지 영등포 경방필 백화점 지하1층 이벤트홀에서 개최된다.

다도시범 및 강좌, 녹차 무료시음회, 국내우수품과 희귀 다도구 전시판매 등으로 펼쳐질 이번행사는 한국전통차와 다기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차문화사업의 저변 확대를 위해 마련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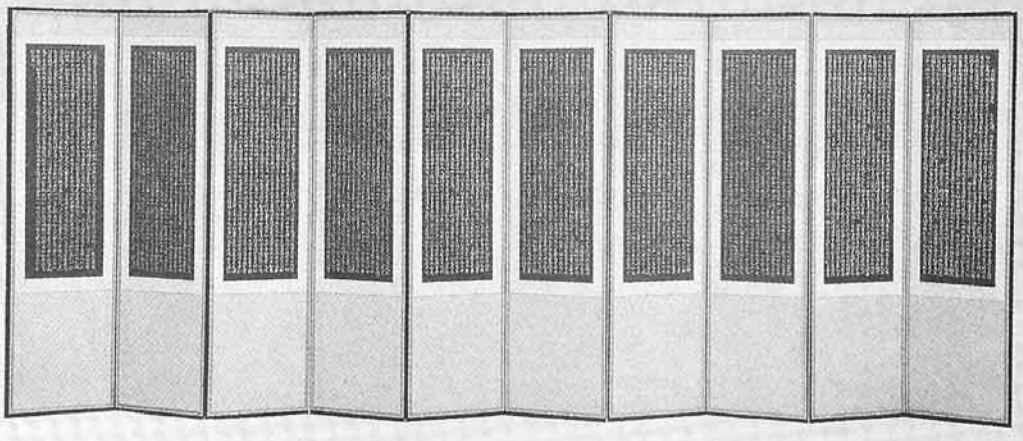
의장에 각원스님 선출
전승련 총대의원회

전국승가대학학인연합(이하 '전승련')은 구랍 15일 전승련사무실에서 제5차 총 대의원회를 갖고 제5회 전국학인대회 평가와 제6대 전승련 의장단을 선출했다.

제6대 의장으로 각원스님(해인사)을 선출, 부의장은 신임의장의 지명으로 지응스님(통도사)이 확정됐다. 각원스님은 "학술적인 부분 및 수행자상을 올바르게 심는데 총력을 다하겠다"며 당선소감을 밝혔다.

금강경(후면 연화도진품) 10폭 병풍

불자라면 누구나 원하시는 병풍 금강경 이제는 가격부담없이 모실수 있습니다.



■ 특 징
• 전면 : 원력높은 스님께서 사경하신 금강경을 영인본 쇼쿄로 조성하였습니다.
• 후면 : 국전작가 재가불자화백의 연화도 진품.

■ 규 격
• 높이 : 5자8치(175.8㎝)
• 폭 : 14자5치(439.5㎝)
• 재질 : 스기목, 양면비단, 스모사 특후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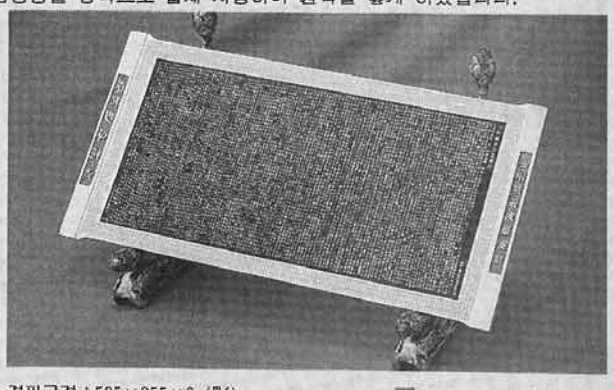
■ 포교가격
₩ 490,000
(현금및 은행신용카드)

불법홍포와 자비원력의 시현을 위하여 진력하시는 정진대중께 포교의 일환으로 정성을 다하여 조성한 금강석 같은 금강경 병풍을 저렴하게 보급하고 있습니다.

모시는 것만으로도 큰 공덕을 쌓는 성품
살아있는 호신경전

秘經 천불 금강경

경판테두리에 단을 쌓아 천불을 조성하여 공덕을 기리고 가운데에 금강경을 양각으로 입체 사경하여 원력을 닦게 하였습니다.



• 경판규격 : 505×255×8 (㎜)
• 재질 : 주석(99.9%) 순금(24K)양표면처리

■ 특별가격 ₩480,000

(클로버써비스)전화 080-023-1101, 지방에 계신분은 수신자가 요금을 부담하는 클로버써비스 전화를 이용하세요.

불교전통불화공예연구원
三 田 佛 事 (조계사 후문)
■ 문의처 : (02)732-6095~6

불교전통표구, 각종 불교행사기념품, 사찰인쇄 기획에서 제작까지 저렴하게 하여드립니다.

'95 새해, 더욱 값진 한 해를 맞으십시오.

거침 없는 개척 정신으로
무한 가능성의 場을 펼쳐나갑니다.



산업 냉동 엔지니어링에서, 종합 건자재, 무역,
우드택, 식품 기계, 레저부문까지…
이생산업(주)은 고객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에
힘입어 지난 10여 년 동안 꾸준히 성장, 이제는
2천년대를 여는 종합기업으로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끊임없는 연구개발과 혁신적 신기술 도입
으로 오직 고객 만족에만 전념할 것을 다짐합니다.

프랜트 사업부

냉동 · 냉장 엔지니어링의 고부가 첨단화를 추구하여 E Part 사업부 (주로 냉동 · 냉장 설비의 보급을 통해 식품 화학 기타 산업 부문의 발전에 이바지하고
냉동 Plant 수출은 국가 신용장 어도 없이 입찰

종합무역부

일반상품 - 김치, 농수산물, 종이, 잉크, 인쇄물(Lable 및 시트), 프라스틱 제품(Tray 및 Chip) 의학 관련 제품 수출 아조봉 높이 사구, Aluminium Foil 등 산개발품 수입 판매

기계사업 - 식품관 관련의 전설비 (Turn Key Base) 태주 소주 · Soft Drink Mineral Water 주류 및 유제품의 Canning and Bottling 설비, 검사설비, C.I.P 설비 자동화 품목 등의 수입판매 Plastic 기술 기계 등 설비 관련 기계 수출

우드택 사업부

일본 ASAHI사와 기술 제휴하여 한국내 최단 현재의 이부제품 개발 생산
고급 주택이나 대형 아파트 형으로 공급

종합건자재 사업부

기능재료 목재, 복합판, 합판, Skin - Door, Furnitur, Euro - Form 등 각종 최고급 기능제품 국내 굴지의 종합건설 관련에 납품

창호 사업부

주거공간에 필요한 방적 Door, 창문틀 및 기타 창호 제품의 설계부터 생산 시공에 이르기까지 고객이 원하는 최상으로 공급

레저 사업부

수영장/볼링장/골프 스케이트장 신체적 건강만을 위한 스포츠 시설이라는 개념에서 탈피하여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심미적 건강 모두를 함양시킬 수 있는 이기 공간을 제공

(동서울 스포츠 센터)

利生産業株式會社
E-SAENG INDUSTRIAL CO., LTD

본사 서울 특별시 강남구 도곡동 423-5
• TEL : (02) 571-0636 • FAX : (02) 575-9728

공장 인천 직할시 남동구 고잔동 729-6
• TEL : (032) 816-0154 • FAX : (032) 581-0693

자매회사 (주)효종포장
이생기업(주)